

第十一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9월호 통권 329호

건축설계와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개정법률
의성교육청, 서울대, 성균관
화인재, 국민연금대전회관
대한교원공제회경남회관, 규수당
성창빌딩
한국의 건축가 · 박동진

96.9
September

建築士



표지사진 / 의성교육청(설계 / 이근근)

발행인 : 김규태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위원장 : 조정상
위원 : 방철린, 승효상, 심영섭, 원대연
편집·취재 : 양원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김광기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상립일 : 1965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 581-5711 ~ 4
팩스 : (02) 586-8823
등록번호 : 서울 라-26(월간)
등록일 : 1967년 3월 23일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 : 이봉수/정문사 (02) 266-4555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Cho Jeong-Sang
Member : Bang Cheol-Rin, Seung Hohioh-Sang,
Shim Young-Seop, Won Dai-Yun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 581-5711 ~ 4
Fax : (02) 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23,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2) 266-4555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오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9월호 통권 329호

건축설계와 건설업, 대등의 협력 속에 유기적 종합을 / 박경립	24
건축설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될 수 없다	27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8
건축관련법과 제도의 개선(10) / 최천환	30
의성교육청 / 이근근	38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 / 오흥세+김관중	44
화인제 / 이명규	48
국민연금대전회관 / 조대희+이광인	52
대한교원공제회 경남회관 / (주)정림건축	58
규수당 문화센터 / 이용호+안병복	62
성장빌딩 / 민경재+김창대	66
계획작품	
금동 28-8 / 이충기	70
연세정형외과 / 심우근	74
K동 디목적회관 / 박영준	76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은 고민하는 작업이다 / 이성인	7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박동진 / 윤인석	80
전통건축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구성원리(1) / 최동호	86
연구 노인주거의 설계기준(7) / 강병근	94
기고 재개발 아파트의 스카이라인 조정 / 혜광호	100
UIA 대회와 협회 국제활동 / 이정근	102
현상설계경기	
대련운산호텔	106
한전기념관	108
중랑구립 도서관	110
강원도립전문대	112
기흥상갈지구 주공아파트	116
통계 96년도 7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18
협회·건축계 소식	120

CONTENTS

VOL. 329 SEPTEMBER 1996

COLUMN

Organic Synthesize in Coordinate Corporation / Park Kyung-Rip	24
---	----

PUBLIC HEARING

Give a Flat Contradiction to Construction Industry-Basic Law	27
--	----

LAWS & ORDINANCES

The Lawmaking Announcement of The Revised Construction Business Law	28
---	----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 Choi Chan-Hwan	30
--	----

WORKS

Eulseong Education Hall / Lee Keun-Kon	38
--	----

Samsung Convention Center in Seoul National Univ. / Oh Heung-Seh & Kim Kwan-Joong	44
---	----

Hwainje / Lee Myoung-Kyu	48
--------------------------	----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Taejeon Branch / Cho Dae-Hee & Lee Kwang-In	52
--	----

The Korea Teacher's Mutual Fund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58
--	----

Kyusudang Culture Center / Lee Yong-Ho & Ahn Byeong-Mok	62
---	----

Sungchang Building / Min Kyoung-Jae & Kim Chang-Dae	66
---	----

PROCESS WORKS

Kum-dong Residence 28-8 / Lee Chung-Kee	70
---	----

Yonsei Orthopedic Hospital / Shim Woo-Keun	74
--	----

K Multi-Purpose Hall / Park Young-Jun	76
---------------------------------------	----

ESSAY

Architecture is Work in Agony / Lee Seong-In	78
--	----

SERIAL

Korean Architects - Park Dong-Jin / Yoon In-Suk	80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1) / Choi Dong-Ho	86
---	----

STUDY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7) / Kang Byoung-Keun	94
--	----

FEATURE

Redevelopment Apt. & Sky Line / Heo Kwang-Ho	100
--	-----

KIRA'S International Activity & UIA / Lee Jeong-Keun	102
--	-----

COMPETITION

Darian Mixed Use Tower Hotel	106
------------------------------	-----

Commemorative Hall of Constitutionalism	108
---	-----

Chungnang-gu Library	110
----------------------	-----

Kangwon College	112
-----------------	-----

Kiheung Sanggal - District Apt.	116
---------------------------------	-----

STATISTICS

NEWS

118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 / 333-6411 · 관악구건축사회 / 884-0048 · 강북구건축사회 / 80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 / 632-2143 · 강동구건축사회 / 484-6840 · 강서구건축사회 / 604-7163 · 광진구건축사회 / 446-5244 · 종묘구건축사회 / 923-6213 · 종로구건축사회 / 735-0905 · 미포구건축사회 / 333-5251 · 송파구건축사회 / 423-9158 · 중구건축사회 / 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 / 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 / 552-8468 · 은평구건축사회 / 388-1486 · 동작구건축사회 / 816-3026 · 강남구건축사회 / 517-3071 · 노원구건축사회 / 933-8076 · 양천구건축사회 / 863-2892 · 중랑구건축사회 / 437-7356 · 성북구건축사회 / 922-5117 · 구로구건축사회 / 8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033)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 / (033)43-6662 · 안양지역건축사회 / (034)49-2698 · 부천지역건축사회 / (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 / (0342)755-5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 / (033)666-6153 · 고양지역건축사회 / (0344)63-8922 · 구리지역건축사회 / (034)63-2337 · 이천지역건축사회 / (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 / (02)684-5845 · 안산건축사회 / (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 / (032)694-4121

■ 강원도건축사회 / (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 / 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 / (0371)43-7290 · 강릉지역건축사회 / (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 / (0392)33-5081 · 삼척지역건축사회 / (0304)31-8708 · 양구지역건축사회 / (0373)374-2269 · 철원지역건축사회 / 52-3307

■ 충청북도건축사회 / (0431)56-2752 · 53-7342

충주지역건축사회 / (0441)847-3082 · 제천지역건축사회 / (0443)43-6253 · 옥천지역건축사회 /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 / (0417)551-4551 · 흥성지역건축사회 / (0541)32-2756 · 부여지역건축사회 / (0463)835-2217 · 보령지역건축사회 / (0452)34-3367 · 공주지역건축사회 / (0416)54-3355 · 서산지역건축사회 / (0455)64-8550

■ 전라북도건축사회 / (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 / (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 / (066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 / (0671)33-2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 / (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 (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 / (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 / (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 / (0532)44-6029 · 경주지역건축사회 / (050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 / (0549)51-1537~8 · 안동지역건축사회 / (0517)57-7464 · 김천지역건축사회 / (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 / (0572)34-5560 · 문경지역건축사회 / (053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 / (0532)32-5661 · 경산지역건축사회 / (053)612-6721 · 칭기지역건축사회 / (0545)974-7026 · 영천지역건축사회 / (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 / (055)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 / (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 / (0591)745-6403 · 충무지역건축사회 / (057)645-7420 · 김해지역건축사회 / (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 / (0527)355-4348 · 거창지역건축사회 / (0598)43-6090 · 양산지역건축사회 / (06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 / (0556)635-3432 · 삼천포지역건축사회 /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 / (054)62-2233

건축설계와 건설업, ‘대등의 협력’ 속에 유기적 종합을

Organic Synthesize in Coordinate Corporation

박경립 / 강원대 건축과 교수
by Park Kyung-Rip

어찌 건축인으로서 한 나라의 건설산업이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더욱이 요즈음 같이 문호개방의 압력이 거세지는 시점에서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건축인은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형상화 과정을 통하여 구축되는 건축이 결코 건설과 동떨어진 분야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분야를 건설산업과 동일시하거나 그의 부속 개념으로 간주하여 한 국가의 건축문화를 고사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은 단순히 산업의 대상물이 아닌 역사를 지닌 모든 민족들의 삶을 담아온 문화의 실체이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책임질 그릇이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삼풍사고 이후 건축계는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건축문화 창조의 주역인 건축사들도 개방에 대비하며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스스로 싹도 피어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두뇌는 인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인체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담기 위한 발상, 계획, 설계를 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담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상업성이 개재할 공간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그것들이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의 구현과정에 흔히 우리가 문화적 요소라고 부르는 부분과 예술적 부분이 관여하게 된다.

그렇다고, 신체의 다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를 구현시켜 주는 그릇으로서, 몸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이 실현의 과정에 건설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는 또 다른 창조의 영역이다.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 건축역사의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발전된 건축기술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건축을 도입하다 보니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었던 것이다. 서구의 건축기술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으로 취급하다 보니 그의 역기능을 간과하고 순

기능만이 강조되어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축을 건설산업의 일부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그 기능상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이해되어야 시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사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건축은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산업사회에서 건축이 건설산업과 밀착되어 온 것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20세기 전반의 건축사조가 기계미학에 바탕을 두고, 생산성 향상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면, 20세기 후반기는 대량생산을 필두로 한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되었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세기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들이 인간과 환경이라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고민을 시작하였을 때, 분단의 전쟁을 치렀고 그의 복구를 위한 건설에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 좀더 빨리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건축을 건설의 과제로만 다루었던 것이다. 건축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건설부가 다루게 되었고, 건축교육도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이루어졌으나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건축인들만이 이 문제를 한숨지었지만 거대한 벽 앞에서 스스로 주저앉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새삼스럽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건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모든 일의 가치를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개인적 가치이고, 또 하나는 공공적 가치이다. 세번째는 상업적 가치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상업적 가치이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가치는 각각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현실속에서는 상호대립적 입장에 서게 될 때가 많다. 이같은 대립관계는 건축의 각 가치가 추구하는 이해의 범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관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건축시장이 개방되는 1997년 이후부터 이 현상이 가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익히 들어왔던, 산업사회 시대의 생산의 합리화 과정 속에서 매력적으로 들렸던 용어들을 되뇌게 될 것이다. 대량생산, 가격절감, 생산의 합리화, 모듈, 표준화, 생산조직의 체계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 소득의 증대, 그에

따른 이익의 재투자, 그리고 또다시 대량생산. 이 얼마나 환상적인 순환의 모습이었던가?

우리는 이같은 순환의 과정 속에서 다가올 세상을 새로운 유토피아라 부르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산과 자본의 축적이 개인과 공동을 위한 선투자로서의 보험이라 생각하지 않았던가?

과연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원하던 것을 다 얻었는가?

건설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또다시 환상에 빠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는 성수대교나 삼풍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튼튼한 거대 조직만이 설계로부터 시공까지를 담당할 것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은 아주 싼값에 필요한 공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높아진 경쟁력으로 개방된 시장도 대처하게 되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보다 더 거대한 공룡들이 다가올 것이고, 가격경쟁에 뒤진 우리 기업들은 우리 그릇을 모두 다른 문화에 내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남의 그릇에 어렵게 적응하며 살게 될 것이다.

혹자는 너무 비판적 생각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은 우리가 그렇게 갈고 닦고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언어에 비전할 수 있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 버린 세상에 우리만이 쓰고 있는 한글을 무엇 때문에 고집하느냐며, 영어의 사용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얼마전 아직도 몇십년은 더 쓸 수 있는 남산 외인아파트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폭파하였다. 가장 높은 텔레비전 시청률을 보인 이 깜짝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열광한 것은 첨단 파괴공학의 위대함이었나?

그 위대한 파괴가 보여준 것은 사회적 수명을 다한 건설의 덩어리였다.

거대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조직의 부분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고 독려하게 된다. 그 속에서는 개인적인 욕구나 창의성은 전체라는 이름하에 유보된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예측불허이다.

21세기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다. 정보화사회, 소프트웨어의 사회, 고도전문화의 사회, 환경친화적산업의 시대, 디자인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 창의력의 사회 등이 그것이다.

이 시대에 경쟁력있게 살아 남으려면 각 분야가 각자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잊지 않는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는 설계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각자 영역의 전문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등의 협력관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직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자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이 조직의 거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건축은 산업의 단순한 대상을 이상의 것이다. 우리들은 싫으나 좋으나 건축이라는 그릇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현재 건축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혹자는 후기 산업사회의 서비스업은 농경사회의 농업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지혜는 대부분의 농부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이며, 한 명의 장로에게 집중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수의 민주적 협동이며, 지혜로운 한 사람에게로의 다수의 복속이 아니다. 건축도 몇몇의 집단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건축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도시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건축은 개체로서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와 건축의 관계가 그렇듯이 이 부분과 전체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부분의 산술적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의 합이 전체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물이라는 유기체에서는 전체라는 메커니즘이 부분의 논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도 문제가 생기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다 다르게 된다. 설계라는 분야도 단지 한 부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전체 그릇의 문제로까지 파생될 수 있다.

부분과 전체를 다루는 지혜는 우리 민족의 역사속에 깊게 배여있다. 우리에게 뿌리깊게 발전되어 온 것은 화해의 논리이며 공존의 논리이다. 중용이라는 단어는 인간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철학 논리가 아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지혜인 것이다. 이렇듯 건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는 대등의 협력 관계(일찍이 Walter Gropius는 1920년대에 Bau Haus의 목표를 이야기하며 coordinate corporation 이라는 표현으로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촉구하고 있었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일등 중후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에서도 일류주의가 편치고 있으며, 그에 의한 폐해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질지 몰라도, 문제는 승자가 분배의 미덕을 모르고 끊임없이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이긴 자는 국소수이며,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적이고 파괴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간 이윤만을 추구한 기업주의와, 물질적 발전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양적 팽창의 고성장 우선주의를 택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우리의 강산은 심한 몸살을 앓아 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건축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같은 여건을 빌미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계되어야 한다.

건축과 도시를 다루는 법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법은 단지 건축이 그들의 정당한 논리에 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그 성장을 인위적으로 너무 속박하여서는 안된다. 원래 법은 폐소자를 가죽포대에 싸서 강물에 떠나 보내 신에 불경함을 씻어 벼리는 의식을 뜻하였다고 한다.

하나뿐인 지구, 그 속에 우리 모든 역사를 품어준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서두르지 말자. 잘 하려는 법이 우리의 터전을 보이지 않게 망치거나 않는지, 우리도 모르게 갖은 자만을 살찌워 주는 것이 아닌지, 정신의 황폐화 속에 물질적 풍성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그간 문민정부는 재벌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설계분야도 중소기업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건축설계 분야의 보호는 이 땅 위에 문화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다루어져야만 한다. 농업을 보존하는 것이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듯이 건축을, 특히 설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문화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진정 손익계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건축설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통합될 수 없다

Give a Flat Contradiction to
Construction Industry-Basic Law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건설업의 경쟁력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키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연구원의 주최로 지난 8월 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의 주제발표와 함께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 부원장의 사회로 장시간에 걸쳐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참석한 우리협회 이관영 이사와 중앙대 김수삼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이재우 박사, 쌍용건설 남충희 박사, 한국경제신문 산영섭 논설위원을 비롯해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설비공사협회·전기공사협회·소방안전협회 및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업계가 모두 참가해 새 법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우리협회는 물론 전기·소방·설비·관련업계에서는 건설업과는 별개인 각 분야의 특수성을 들어 건설업의 일종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새 법안의 해당업역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협회는 「건축설계」 분야를 「건설업」의 범주내에 포함시키므로써 창작행위를 산업적 시각으로 보아 창의성, 작품성, 공공성보다는 경제성, 기술력, 상업성이 우선하는 획일적 경제논리로 다루는 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건축설계의 창의성,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산업경제 논리와 구별하여 문화적인 관점으로 다루여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건축설계」 분야를 건설시공업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깊은 건설업법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건설업체들이 주장해온 「건설분야」의 잠식의도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일부 법조항을 확대 해석 또는 악용함으로써 본래의 개정의도에서 벗어나 건설업체의 업역독과점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안)은 건설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건설업법 외에도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13개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만도 6개 부처로 다원화 되어 있는데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일반국민이나 건설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실방지대책과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건설관련 정비에서부터 건설제도 면허의 혁신, 도급한도제도의 폐지, 공사현장 실명제도입, 건설분쟁중재원설립, 공체조합법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본 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예고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The Lawmaking Announcement
of the Revised Construction
Business Law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시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견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편집자註〉

1. 제안이유

건설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건설업법외에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일반국민이나 건설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현행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제도·도급 및 하도급제도·분쟁처리제도 등을 개선하여 건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 가. 법률의 제목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건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법 이외에 9개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던 시공자격제도를 이 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흡수통합하여 건설업에 관한 법체계를 단순화하여 전문성 등으로 소관부처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3조)
- 다. 건설업을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특수건설업을 전문건설업과 통합하여 건설업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건설업에 관한 자격제도로서 등록제도를 두어 다른 법에서 등록제로 운영되던 업종은 이 법으로 통합되더라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제1항)
- 라. 건설업면허는 매년1회 실시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행위·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는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조, 제11조 제1항 제4호)
- 마.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 바.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없이도 설계·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호·제7호, 제24조)
- 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5호)
- 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에 실제 참여한 십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한 경우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는 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대금수령 등에 있어서는 하수급자와 같이 보호함(안 제37조)
- 자. 주요시설물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권자는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2항)
- 차. 정부는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제47조 제2항)
- 카. 건설업자들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타.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공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8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도급·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수행에 적정을 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구조물의 축조 및 해체공사, 산업설비의 조립·설치 및 해체공사,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 시설의 설계·설치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회·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신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당

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등을 한 자이어야 한다.

8.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9.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11.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업분야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체결을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와 자본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기회하거나 조언하여야 한다.

건설법 개정과정에서 협회 건의 내용

개 정(안)	협 회 건 의(안)	입 법 예 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u>건설공사와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조사·설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영업</u>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구조물의 축조 및 해체공사, 산업설비의 조립·설치 및 해체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u>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영업</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u>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영업</u> 을 말한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설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_____ ----- (삭제) ----- (삭제)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_____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_____ ----- 공항 ----- 고속철도·발전소·댐 -----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1. 서 론

자연환경과 인간은 상호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하나의 유기체로서 순응해가며 조심스럽게 생활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개발압력과 도시확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와 같은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유기적 균형관계와 질서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정·통제하고 보호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현상은 근대화과정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집중화로 주거 및 생활시설의 대량적 수요, 그리고 시설의 입지에 필요한

개발가용지의 상대적인 부족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환경친화적 개발보다는 자연과 유리(遊離)된 개발에 치중하게 되어 환경파괴와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화의 확산은 대부분 고층고밀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부분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때로는 대량의 환경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밀도 개발은 자연히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기존의 도시주변지역의 자연녹지를 시가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비지적 개발(飛地的開發)로 도시와 똑같은 개발수법과 양상을 보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도시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팽창은 어쩔 수 없는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에 대응하며 개발되는 모습이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유형과 동일한 형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개발은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불균형개발은 개발을 주도하는 개발자들의 과도한 경제성 추구와 공공성 그리고 유지관리 등의 종합적 비용 등 직간접의 효용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공공이 이를 유도, 규제·감독해야함에도 전문성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물지각함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취락지구개발의 윤곽을 결정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주거환경의 페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개발이 난맥상으로 진행되는 현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발을 적절하게 통제유지하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가운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개발특성 및 문제점

1)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구분 및 관리

헌법 제120조 제2항과 제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토자이용계획으로서는 국토의 이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최상위 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도권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 국토

구분	劃定 또는 설치할 区劃 등	용도지역의 관리업무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준 도 시 지 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	법 제14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소방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써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
준 농 림 지 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기 일정규모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 토지이용행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이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건물을 기타 공작물의 설치행위

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각종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법 체계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정점으로 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보전목적의 2개의 용도지역인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3개 용도지역인 도시, 준도시, 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로 행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기본으로 세분화한 15개 용도지역과 특수목적의 8개지구 그리고 도시의 거시적 성장관리를 위해 개발제한 구

역등 6개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필지별 용도에 대한 규제와 최소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물리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국토이용계획 용도별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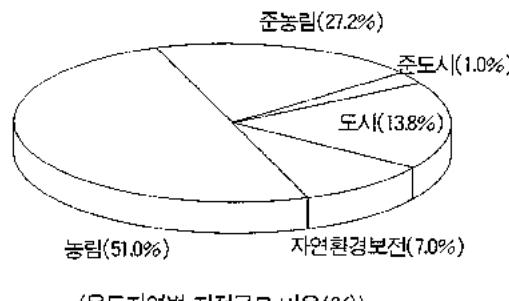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61%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준농림지역이 27%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포함한 면적이 도시지역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도시지역이 스포츠현상에 의해 잠식될 경우를 감안할 경우 개발이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준농림지역의 개발가능성은 현재와 같은 난립개발현황이 현재대로 계속유지될 경우 심각한 주거환경 및 도시

(단위:km²)

구분	총면적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전국	99,313.7	13,708.8	984.8	27,020.7	50,634.5	6,964.9
경기	10,774	2,294.86	226.25	3,695.48	4,244.97	301.67
강원	16,897.5	912.47	118.28	4,342.66	9,665.37	1,841.83
충북	7,436	654.37	59.49	2,327.47	3,591.58	795.65
충남	8,323.1	665.85	108.20	3,104.52	4,119.93	324.60
전북	8,041.2	788.034	32.16	2,315.87	4,213.59	691.54
전남	11,823.8	1,324.27	141.89	3,204.25	6,408.50	756.72
경북	19,448.3	1,653.11	136.14	4,356.42	12,194.08	1,108.55
경남	11,776.6	2,178.67	94.21	2,590.85	6,006.07	918.57
제주	1,826.2	374.37	45.66	1,051.89	162.5	189.92
기타	2,967	2,869.089	0.00	29.67	29.67	38.57

* 기타는 광역시

자료 : 심상욱,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이용형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국토계획, 1995.6, p.26, 제구성



〈개발용도지역 군단위 비율 분포〉

(단위: 전)

구분	합계	개발용도지역				준농림지역			
		30%미만	30%~	40%~	50%~	30%미만	30%~	40%~	50%~
전국	136	46	33	21	36	80	33	12	11
경기	17	-	3	2	12	5	4	4	4
강원	15	9	4	2	-	11	4	-	-
충북	10	3	2	2	3	4	4	1	1
충남	15	1	4	5	5	2	9	2	2
전북	13	5	3	1	4	7	2	3	1
전남	21	6	7	5	3	14	6	-	1
경북	24	15	5	1	3	21	1	2	-
경남	19	7	5	3	4	16	3	-	-
제주	2	-	-	-	2	-	-	-	2

* 개발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 자료 : 삼성우, 준농림지역에의 토지이용형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국토계획, 1995.6, p.26, 제구성

기반시설투자의 무리 등의 지역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앞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림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지역이 약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토를 통합화된 세부계획하에 진행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주거지의 산발적인 분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와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개발대상지역과 비개발대상지역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난립개발로 인한 오수 및 소음, 자연경관의 해손 등 야기되는 문제점을 올바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하여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하에 개발행위제한, 용도의 적정배분, 기반시설의 배치 및 수용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유리된 개발양상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개발 현황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개발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설교통부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기타 시설의 용도로 계획하고자하는 경우와 개발대상지역 인근의 주요시설, 취락 등과의 연계성,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취락지구에서의 용도구획 및 시설별 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계획적인 생활근거지 조성을 위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기타 시설의 용도로 구획되며,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수립시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하고 있다.

이와같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의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다를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과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취락지구의 올바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취락지구개발계획기간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향후 5년을 취락지구 개발계획목표연도로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사업기간을 개발계획목표연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관서장과 협의 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고 시설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되, 기존시설은 가능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계획수립대상지역 인근에 개발가능지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주택지로 개발할 때 예상되는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계획중 하나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의 경우 주거지계획만 포함해도 가능하며 연속된 아파트 건설이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상업지, 녹지계획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같은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시설물설치계획등은 개발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당해 지역에 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계획수립대상지역 인근의 주요시설, 취락 등과의 연계성 및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가능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용도구획계획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주거지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지나 공업지와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자연차폐물을 이용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준도시지역에 적정한 시설배치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균린생활시설용지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함으로서 주거유형별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피하고자 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토지이용분류는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하여 단독주택용지는 기존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저층주택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을 대상하며, 공동주택용지는 중고층주택이 입지하여도 주

변경관 저해 및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또는 장래에 계획적 중고층주택지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배치계획을 수립 시에는 취락지구 주변이 주로 농지나 산지 상태로 고밀도이용이 적합치않고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용적률150%이하, 층고 15층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주변경관이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도시계획구역경계로부터 2km이내로서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과 2,500세대이상의 취락지구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규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중에 하나만 해당되게 되면 용적률 250%이하, 층고 20층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동시에 다음과 같은 지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고등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아파트 건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을 위하여 폐밀화와 고층화 방지를 위하고, 계획지 표상의 수용규모와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하여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함으로써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개발대상지역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 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 인구밀도 등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타 주변경관 및 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등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이와같은 개발규정은 다분히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준도시지역이 도시팽창에 대비한 유보지로서의 기능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주위경관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고층아파트 개발의 여지를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파트건설을 허용하는 규정은 기존의 준도시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아파트가 가지는 고밀도의 도시기반시설의 필요 등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농경지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건설을 허용하는 부분으로 개발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를 간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규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층고제한으로 이러한 규모제한의 내용도 단서조항을 통하여 개발의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해 건설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여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이념과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못하는 다분히 형식적인 개발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 준도시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발은 대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의 연계가 없는 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취락지구개발은 주민들의 폐적한 생활환경과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야함에도 자치단체 및 건설업체에서는 경제성만 고려하여 18~20층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을 뿐아니라 도로변과 일정거리이상을 이격 하여야 함에도 도시주변의 농경지침식 및 도시미관저해 및 베드타운 현상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파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양상을 통제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청의 경우 고층아파트에서는 도로와 적정이격거리, 주변경관 저해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개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취락지구개발이 주거계획, 상업지, 공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협의 하여야 할것이나 주택보급정책, 토지의 이용성제고 등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환경청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층고는 밀도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밀도 이용을 위해서는 자연히 고층의 건축물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는 토지의 효율적이용이라는 측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도시, 준농림지역에서의 고층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측면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이다. 따라서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능한 고층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경관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축소함으로서 폐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층고제한이 권고수준에 머무는 것으로는 규제의 의미가 약하며 좀 더 적극적인 환경대응적 규제가 필요하다.

4)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개발 문제점

준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산발적인 고층아파트의 입지로 인한 자연경관의 파괴와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준도시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의 부재로 토지이용의 체계화를 이루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도시계획구역인 경우 상업지역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층고 및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주거지역 및 녹지로 갈수록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즉, 고밀도가 요구되는 지역인 1종주거지역 등의 경우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불균형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각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이와같이 도시지역에서도 밀도와 지가 및 각종

취락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
상주인구 250인 이상 또는 가구 수 50호 이상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 용될 지역과 템건설, 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초래 • 기반시설의 미비,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비용 • 준도시지역의 고층아파트개발을 통제유도하기 위한 장치의 미흡 • 유권기관들의 협력미비(지자체, 중앙정부)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의 취약성과 더불어 토지이용의 난개발상의 표출 • 지가상승의 편승과 토지투기의 조장 • 저층주거군에 대한 유도의 미흡 • 지역성의 상실 •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p>—문제지적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의 준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각각의 접근 방법이 부재(예, 설계경기의 활성화, 저층의 우수사례를 통한 주거에 대한 인식 교정,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체의 지역 발전에 대한 장기발전부제내지는 형식적 지침)</p>

변수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개발되는 고층아파트가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마구잡이로 개발됨으로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고 고밀도에 따른 집적된 기반시설을 요구하게 됨으로서 각종시설의 비효율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준도시지역에서의 건축가능기준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 등의 경우 준농림지역의 취락지구 용도변경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과 환경관련 계획의 부합성에 대한 검토없이 분별 없는 무계획적인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의 폐적인 생활을 고려한 계획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20층이하의 고층아파트만 건설함에 따라 도시주변지역의 미관저해 및 베드타운 현상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경관 환경파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와같은 실정은 지자체들이 농림지나 준농림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대거 변경함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1995년 국토이용계획변경현황에 따르면 공장시설 등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3만m²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건수는 2백56건으로 1994년의 1백89건에 비해 35.4%가 늘어났으며 취락지구·운동휴양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로 구분돼있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필요한 지구지정을 받아 해당지역안에 대형공장은 물론 각종 시설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시설을 수용하기 위해 용도변경된 지역규모는 1995년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땅은 모두 1백 34.9km²(4천91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가 넘는 규모가 된다. 이러한 대규모지역이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국토의 이용상의 비효율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의 신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경상도 경산지역과 같은 경우는 1996년 4월 26일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3년간 아파트 신축을 제한한 사례(경산향토신문, 1996. 5. 18자 사설)가 있으며 이는 경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의 보호측면에서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아파트 개발의 무모함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나름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그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지침에도 원칙상 15층빔위내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고려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 및 건설업체들은 환경이 배려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도외시하고 사업성만 고려하여 고층아파트 중심으로만 개발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건설된 도시주변의 환경을 크게 훼손하게되고 특히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의 주위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단적으로 형성됨으로써 내외부 공간을 형성하고 이에따라 다양한 계획기법들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아파트동들이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거지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즉,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가시설이나 다양한 문화적 공간들의 조성 및 기타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주택만을 고집하는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방향

1)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중 취락지구의 세분화

도시 및 도시이외의 지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탈피하여 도시지역과 연속적 개발 개념하에 경제적 기준 및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여 토지의 특성에 따른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의 1/4이 되는 지역에서 다양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락지구의 입지특성,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 취락지구별로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른 토지용도를 세분하여 각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구체적 시설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모두 통합적 계획하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를 그 대상구역안에 포함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지역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농지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같이 통합적관리가 어려운 만큼 세부지역단위의 개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점적 개발방식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선계획 개발(先計劃 開發)

단일건축물이 아니라 지역단위 규제로 전환하여 향후 도시팽창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 도시계획 경계구역에서 2k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15층에서 20층규모의 아파트 허용규정과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고밀개발 예상지역에 대하여 새로이 농촌계획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이 안고 있는 특성을 올바르게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는 제한정비권역에 대하여 개발대상지역을 계획된 지역으로 국한함으로써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고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전 개발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토대로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주거유형의 제한

고층아파트는 협소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거유형으로써 준도시 지역의 토지의 가용정도를 감안할 경우 이는 불합리한 주거유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파트가 만연하는 원인은 경제성 및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 편리성, 농립지역의 택지전용의 어려움 등으로 압축하여 볼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저층주거군에 대한 주거인식을 향상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대상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4) 농지 및 삼림지역의 경관 심의제도 강화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은 집에 대한 소유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했으며, 이로인하여 주거지에서 무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도시화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립지역에 까지 확산되는 것은 주거지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만아니라 개발에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즉, 고밀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하는 요소중 하나인 조망을 확보하거나 경관에 대한 욕구 등이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제나 계획수립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준도시지역개발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개발양상을 세어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용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분화된 용도지정을 토대로하여 지역별 경관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경관심의가 올바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의 정량화를 통한 명확한 규제책의 마련

심미적 요소, 생태계 요소, 위생 및 안전요소, 시간적 요소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평가를 하기 위해 비계량적 요소의 개량화가 불가피하다면 개량화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즉, 이를 수치에 의해 단순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다른 단위로 개량되는 단위

를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이들 영향평가에 대한 총량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시기 등의 기준이 필요하며 취락지구개발에서 간과되기 쉬운 기반시설의 확보나 절토 및 성토의 정도, 오폐수로 인한 영향 및 문제점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질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규제의 정도나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설정하는가와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통일화된 계량화를 통하여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과도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형식적 환경평가에서 탈피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6) 주거지개발에 대한 개발수순의 설정이 필요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지자체나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개발의 우선적 고려후 주거지를 개발하도록 하여 주민입주시 완벽한 주거환경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개발공기의 적정화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와 주거지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유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이 갖춰져있지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편의의 문제뿐만아니라 기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7) 환경의 연속성(continuity) 유지

개발행위는 적어도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훼손을 감수하면서 진행해서는 안된다. 기존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융화되는 형식의 개발을 진행함으로서 개발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는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을 무시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신하는 것은 그들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개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과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하며 현재의 개발동기하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는 부분으로써, 공간적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발전략을 강구 유도해야할 것이다. 농경이나 산림 등이 바로 입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라는 고정된 시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주거유형의 시도를 전제로하여 공간적, 시간적,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생태적 연속성의 유지—유기체적 환경구축

도시지역의 시가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도시내에 자연적 요소가 부족한 것이며, 자연요

소들이 생태적 체계속에 존재하지 못하고 상호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과 같은 경우는 그 입지가 이미 자연이 풍부한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원적인 환경하에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는 자연을 가능한한 손상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삶의 공간을 형성하여 생활할 주민들에게 자연과 상호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시킬 수 있도록해야 한다. 동물, 식물, 토양, 물 등의 자연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 개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에만 주력하는 것보다는 택지개발과 자연생태계의 동시고려하는 것이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② 사회적 연속성의 유지 - 연대감의 확보(invasion & succession)

대부분의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은 기존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기존의 주민들의 특성은 새로이 들어서는 건물의 주민들과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주민과의 세심한 계획적 고려를 한다면 기존의 주민들은 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개발지역의 균형적인 사회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문화적 연속성 유지 - 지역 Identity의 확보

준농림지역의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취락지구로 개발하게 되는 현재의 개발은 다분히 clean-up식의 개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농지나 택지로 사용하던 장소를 새로운 주거형식이나 편익시설들로 계획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은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농촌 속의 작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이는 기존의 농업을 주업으로 해왔던 기존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의 해체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개발대상지역이 유지해왔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토지이용계획이나 환경평가 등에서 세심한 고려대상으로 삼지않을 경우 자연히 이질적인 형태로 자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무의미하고 특징없는 생활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4. 결 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계획은 국토이용 및 관리에 혁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환경보다는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기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오던 자연환경이 순식간에 흥물로 변화는 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도시이외의 개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개발에 체계성을 갖지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다분히 제도의 형식적 운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 아닌 국지적인 개발에 의존함으로서 개발의 양상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의 미비, 통일된 세부계획의 부재, 환경관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미비 등으로 그 원인을 짚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준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하여 준도시 취락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팽창으로 인한 개발가용지의 부족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 차등개발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 개발지역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개발체계를 가져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준농림, 준도시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파괴적 개발에서 환경공생적 개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성평가의 구체화, 정량화, 종합평가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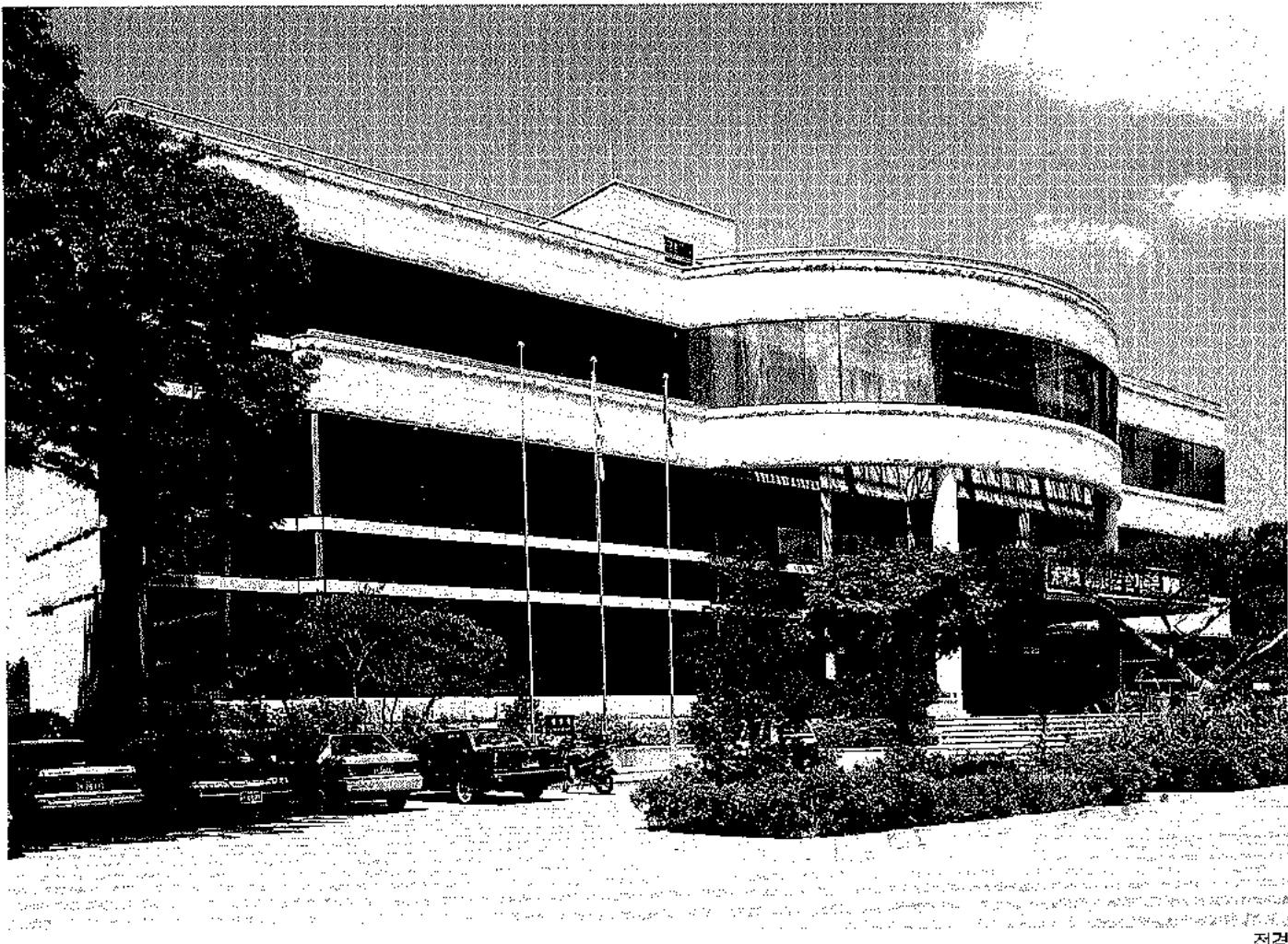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개발지역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의 수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우선확충 및 토지용도의 명확한 구분 등을 위한 취락지구의 세분화를 통하여 균형적인 주거지의 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유지되어오고 있는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명확한 원칙 및 그 세부시행원칙을 수립하여 개발후의 경관악화, 오폐수의 처리문제, 일조, 소음 등의 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책에서 탈피하여 개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의성교육청

Eulseong Education Hall

이근곤 / 건축사사무소 옥자
Designed by Lee Keun-Kon



전경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643번지 외

대지면적 / 5,794.53㎡

건축면적 / 786.0㎡

연면적 / 2,361.33㎡

건폐율 / 13.57%

용적률 / 40.76%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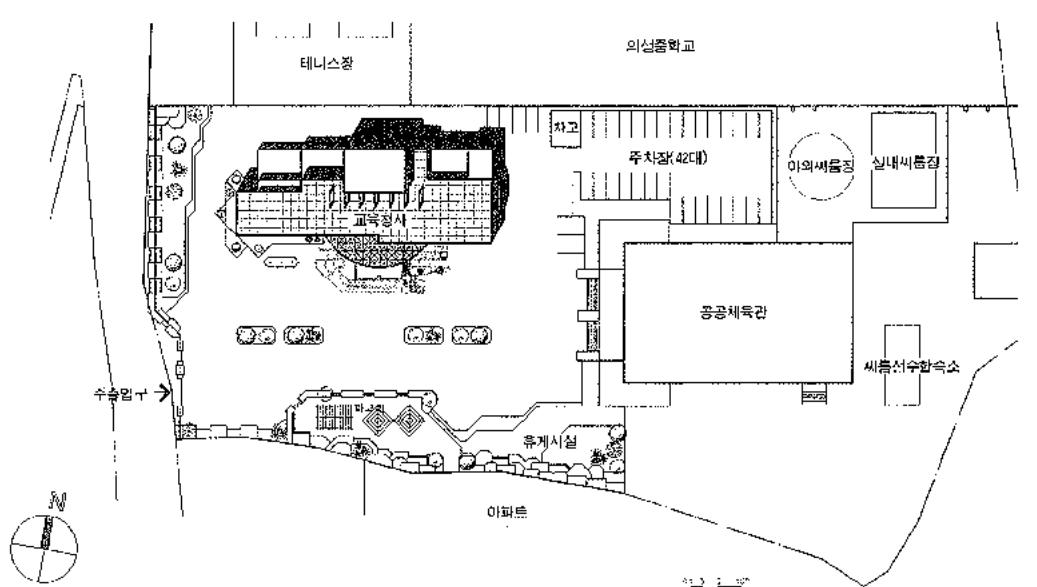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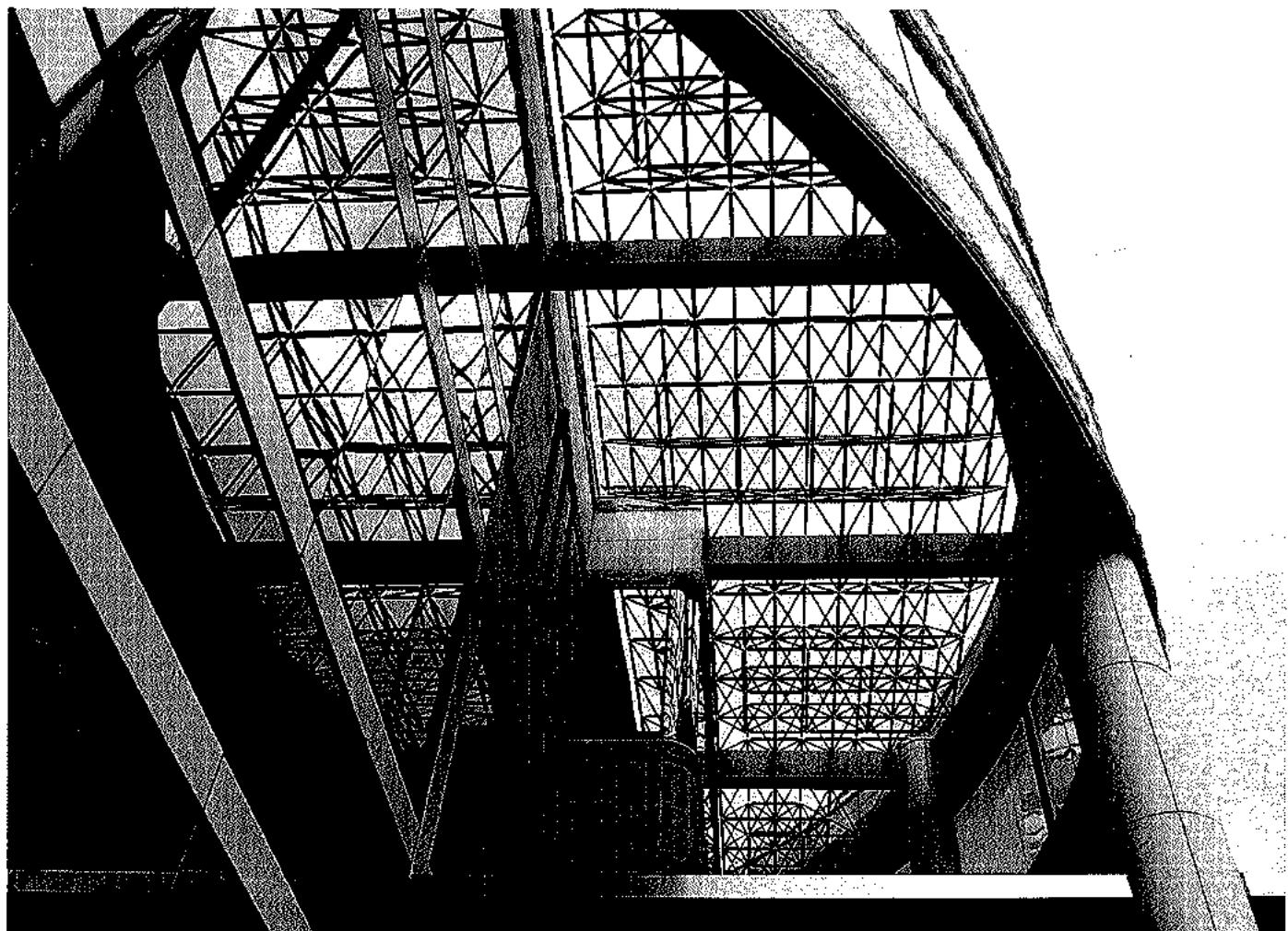
외부마감 / 화강석+복층유리+인조석재 스프레이

건축계획 / 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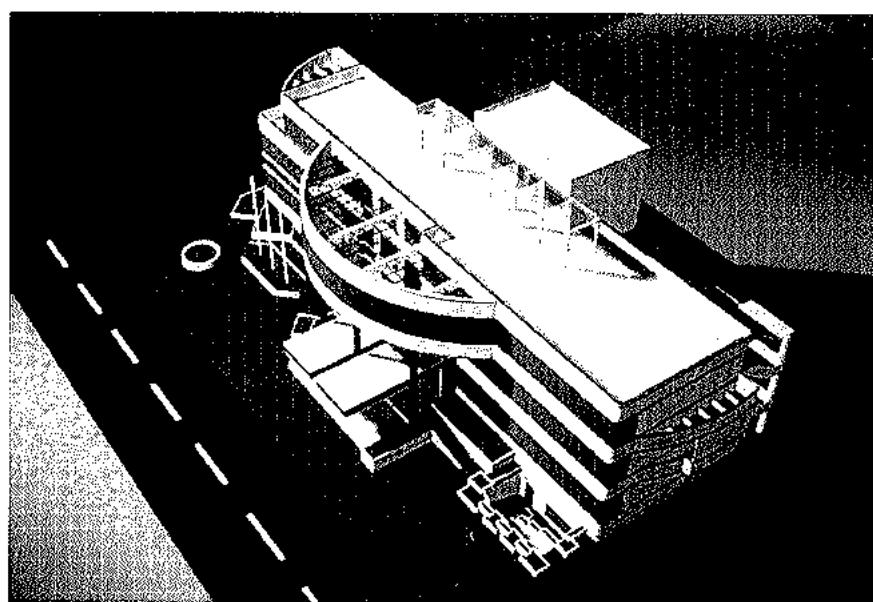
전기설계 / 한우진선

설비설계 / 우상설비





울려다 본 캐노피 상세



계획안 모델

Location / 643, Dodong-ri, Eulseong-Eup, Eulseong-gun,

Kyeongsangbuk-do

Site Area / 5,794.63m²

Bldg. Area / 786.0m²

Gross Floor Area / 2,361.33m²

Bldg. Coverage Ratio / 13.57%

Gross Floor Ratio / 40.76%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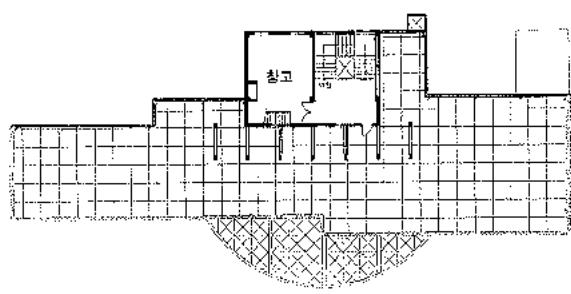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Double Gra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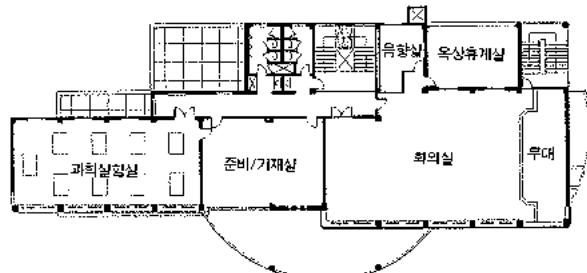
Building Planning / Lee Sang-In

Electrical Installation / Han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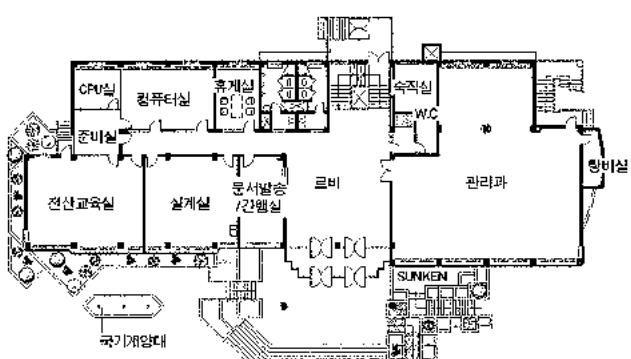
Mechanical Services / Woo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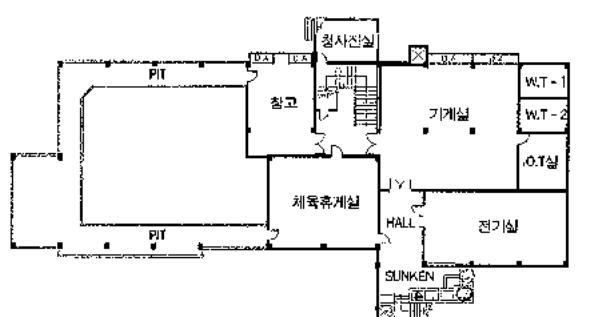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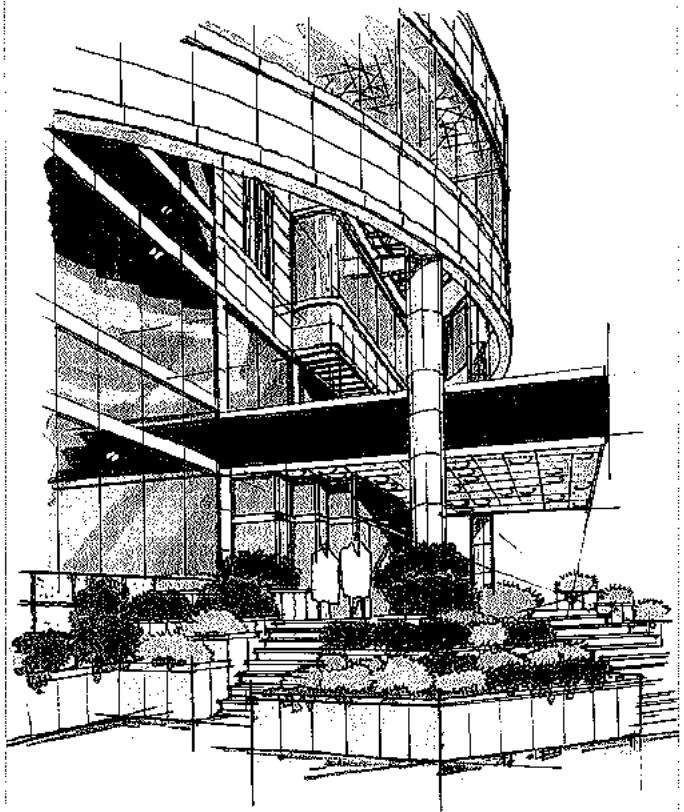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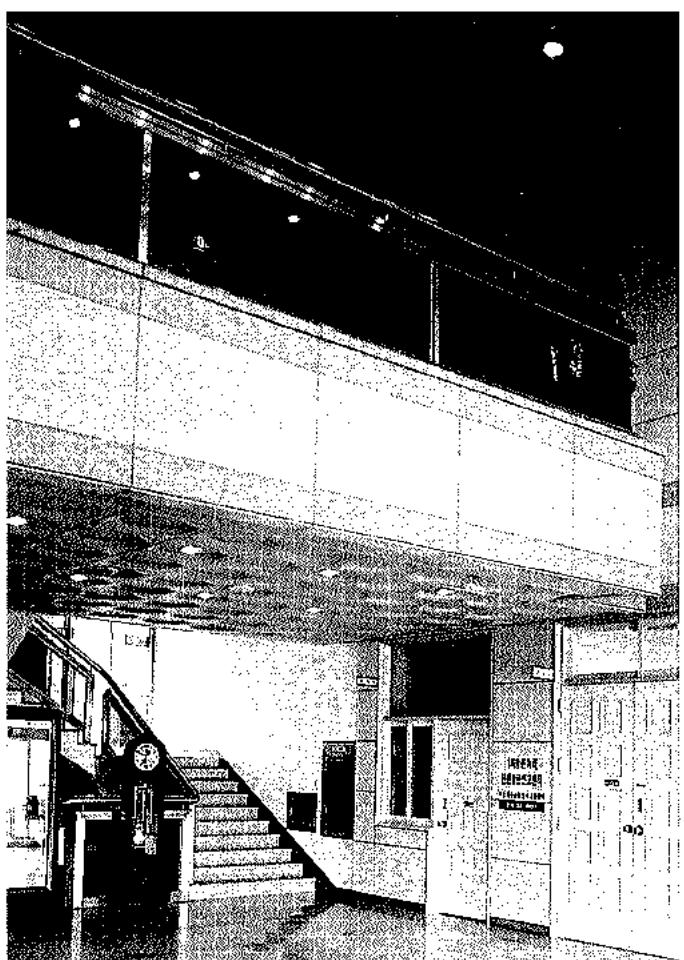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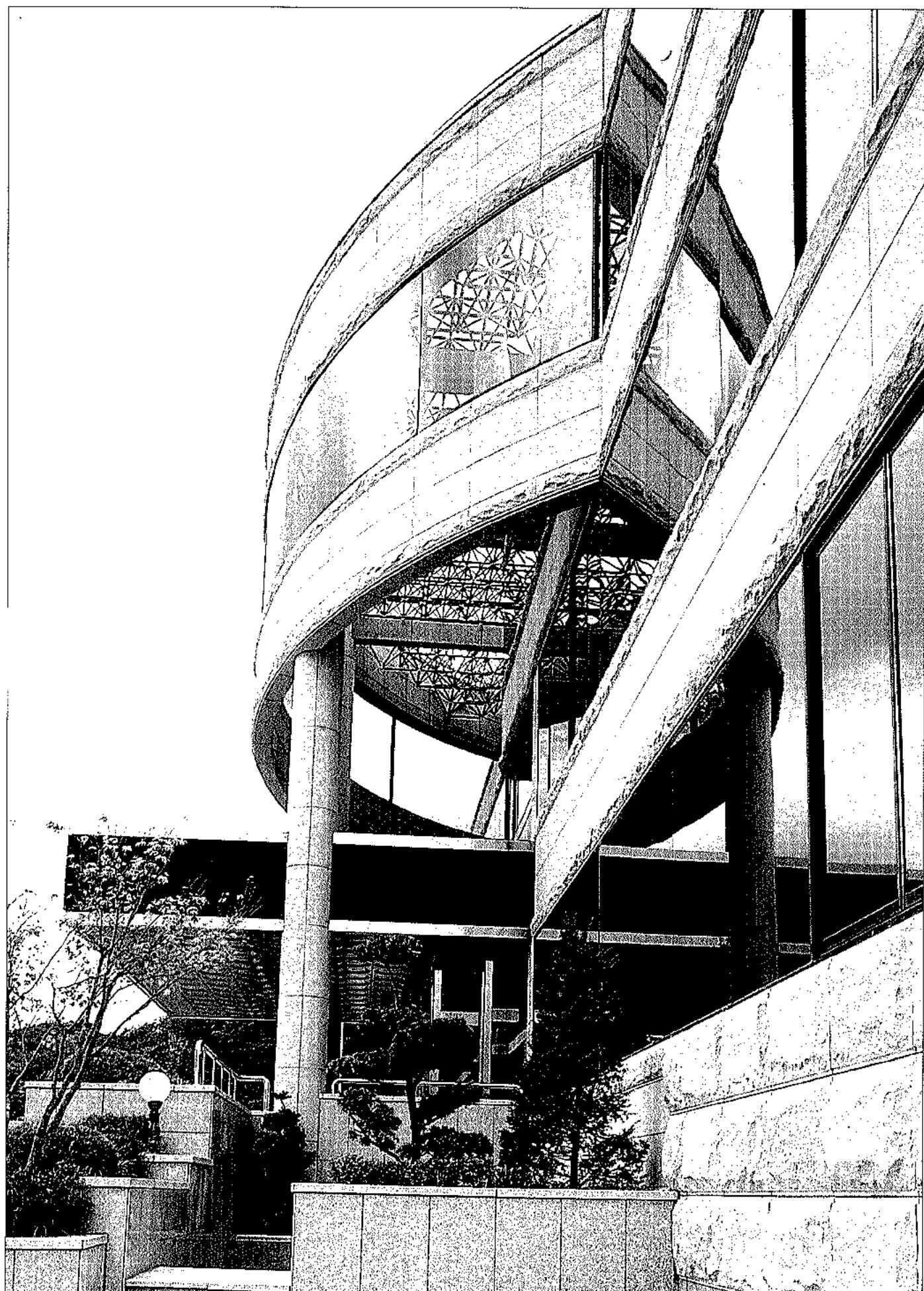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주출입구 캐노피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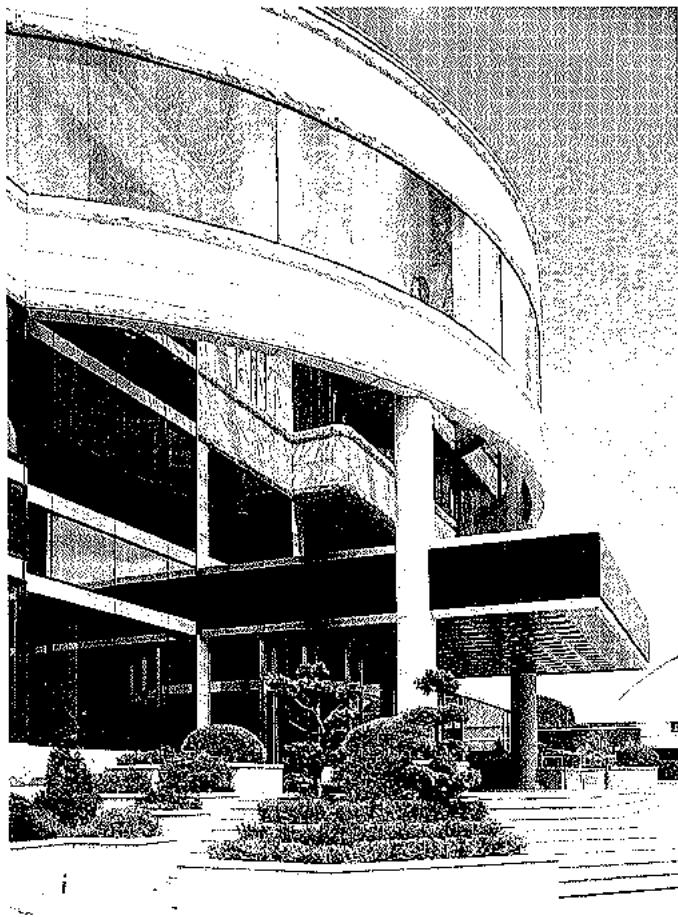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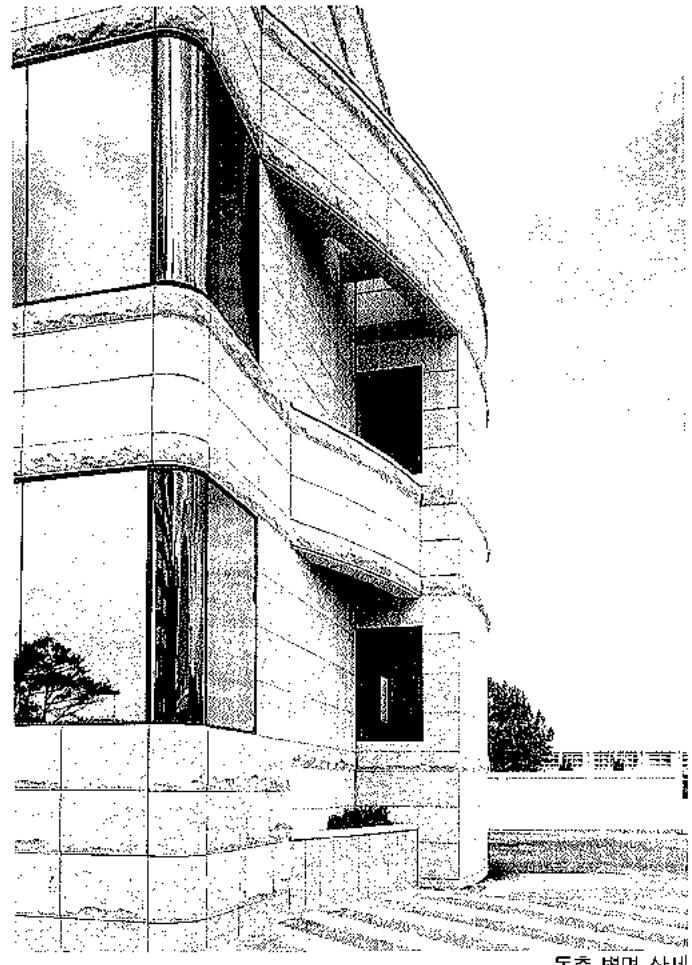


주출입구 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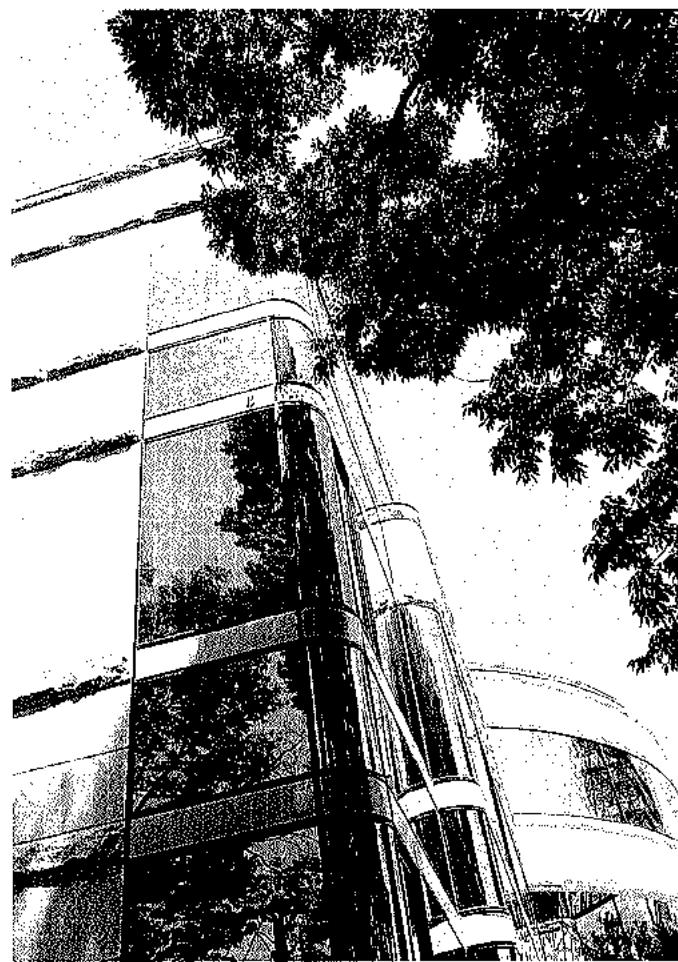
건축사 9609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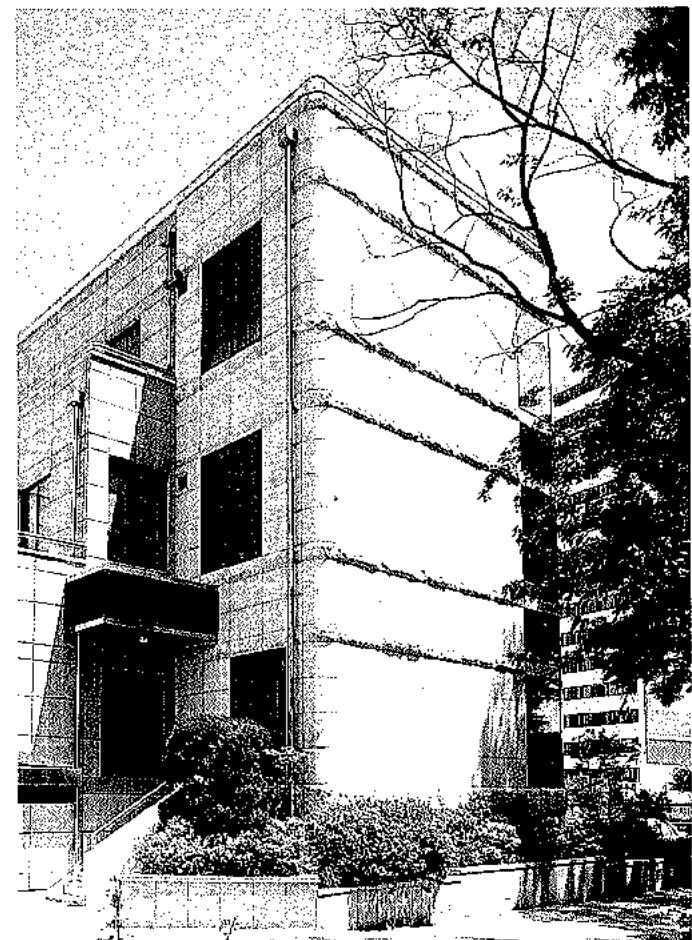
주출입구 측면 전경



동측 벽면 상세



서측 벽면 상세



북서측 벽면 상세

경북 의성읍 의성중학교 남쪽부지에 위치확정된 계획지를 접하고 철거해야 할 건물을 조사하면서 언뜻 외부 Mass에 대한 Design 요소가 손에 잡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것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기존 의성중학교 씨름부 합숙소를 이 건물의 착공에 앞서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씨름의 고장 의성, 민속씨름의 술한 장사들을 배출한 바로 그 터에 의성교육 행정의 산실인 교육청사가 자리한다는 것은 그 터가 지닌 의미를 건축적인 형태로 이어가야겠다는 맘을 간직한다.

원형 모래판의 원을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고 연장선으로 하는 원을 후면으로 감는 형태로 계획하였다.

계획 협의 과정에서 Mass 이미지 도입시 가시적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발전적인 Point 이미지의 효과의 유도를 위하여 후면의 원은 제외한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요구 면적보다 초과되어 당초 제외한 3층 서측의 공간은 정면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채웠고
- 장래 증축공간은 후면 2, 3층으로 여유를 두었으며
 - 지하 직원 휴게·체육실의 채광 환기 확보를 위하여 Sunken으로 처리 하였으며
 - 로비 훌의 공간성을 위하여 2층까지 Open으로 계획하였다.

당시설계 중 부지 남쪽에 고층 Apt 사업승인 시설을 알아 3m의 아파트 옹벽 노출 부분의 극복을 위한 적벽돌 다단식 화단 계획과 휴게공간의 처리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였다.

지방자치시대에 읍단위의 일선 교육 행정 기관의 외부형태가 권위가 아닌 유기적인 공간구성에 시간을 함께 해 준 정수열 시설계장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3층 회의실 전경



주출입구 정면 전경



주출입구에서 본 파고라

서울대 삼성 컨벤션센터

Samsung Convention Center in Seoul National Univ.

오홍세+김관중 / (주)삼우설계

Designed by Oh Heung-Seh & Kim Kwan-Joong



전경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 4-1, 239-1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지구

대지면적 / 3,890.56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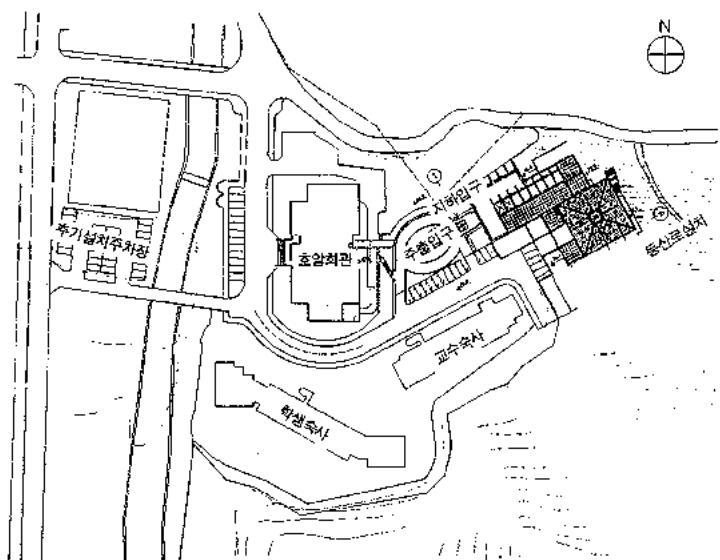
건축면적/1232.98m²

연면적 / 2,491.96

용도 / 교육연구시설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위자재 / 청비도 + 허가서 베니그라



배치도



2층 컨벤션홀



주출입구 전경

Location / 4-1, 239-1, Pongcheon-dong,
Kwanak-gu, Seoul

District / Green

Site Area / 3,890.56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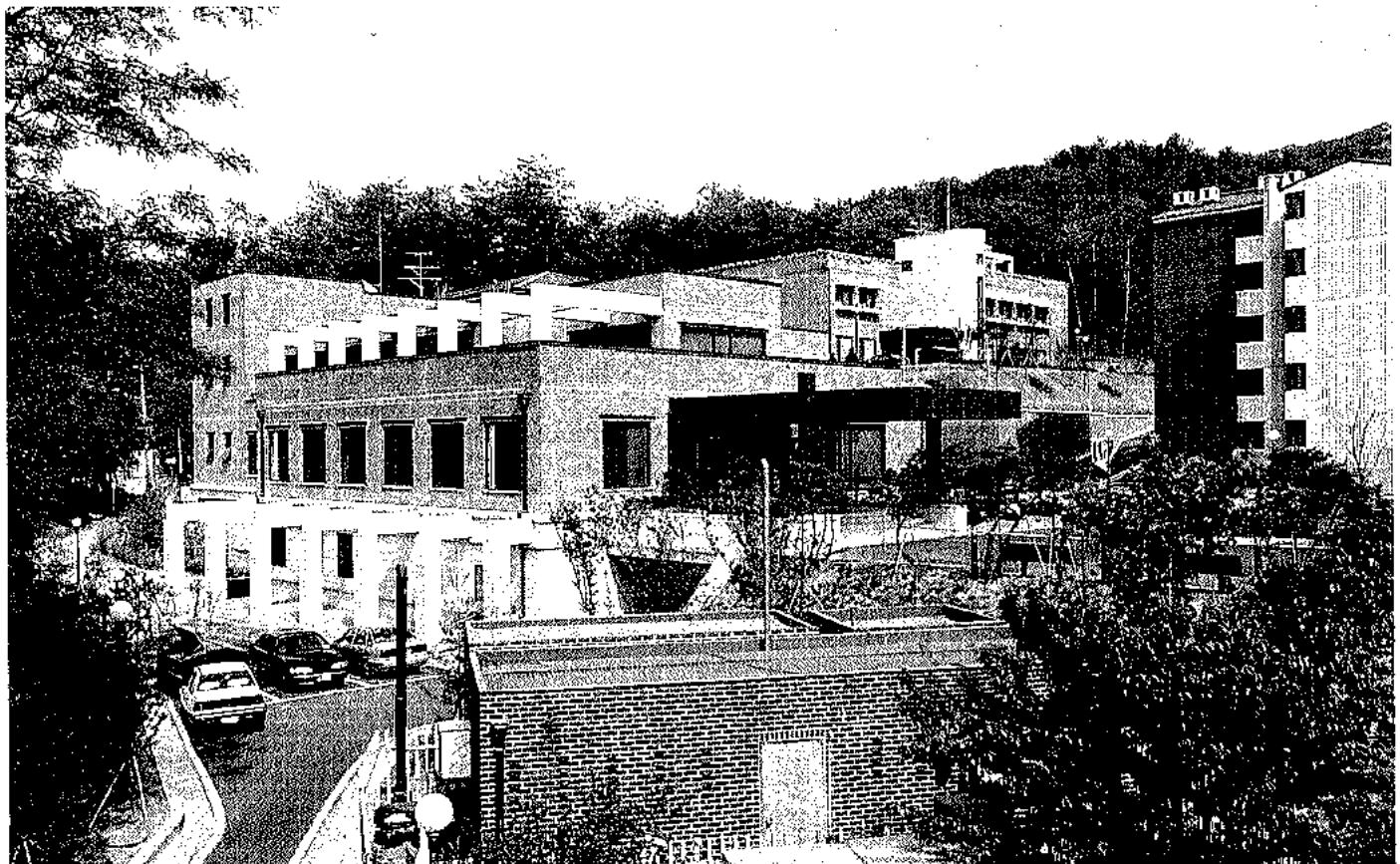
Bldg. Area / 1,232.98m²

Gross Floor Area / 2,491.96m²

Ues / Education & Research

Bidg. Scale / 1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Exterior Finish / Red Brick, Granite



북서측 전경



1층 중세미나실



1층 대회의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기존 호암회관의 각종 국제적인 학술회의 및 행사에 따른 시설 확충 요구와, 삼성전자의 산학협동 지원에 대한 경영의지가 맞물려 시작되었다.

봉천동 낙성대쪽의 서울대 후문을 지나 기숙사 촌 입구에 다다르면, 붉은색 벽돌조의 호암회관과 학생, 교수숙사 너머로, 관악산 지류의 한 봉우리를 背山으로 하고 이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호암회관, 교수숙사, 학생숙사의 부정형 배치는 포크레인에 의한 절토로 산세를 흐트려 끄리고 계획되어질 수 있는 건축가의 욕심이 절제된 것을 보

여주고 있으며, 컨벤션센터의 배치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하였다.

25석 규모수용의 소세미나실을 $6.6m \times 6.6m$ 기본모듈로, 중세미나실, 대회의실, 컨벤션홀을 구성하되 평면의 확장에 따른 공간 볼륨을 지형의 흐름에 맞춰 단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공간전이가 제한된 부분은 일면구성의 보조수단으로 장식기둥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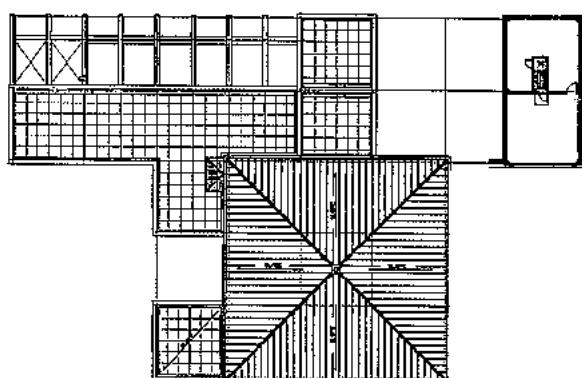
산세가 매스의 흐름을 아끌고 있다면, 탁트인 전망은 내부공간구성을 결정하는 계획들이었는데, 기계·전기실, 주방, 대회의실, 컨벤션홀 등의 전

망요구가 적은 실들을 구릉쪽으로 식당, 파티겸용의 리셉션홀, 세미나 등을 봉천로 쪽으로 배치하여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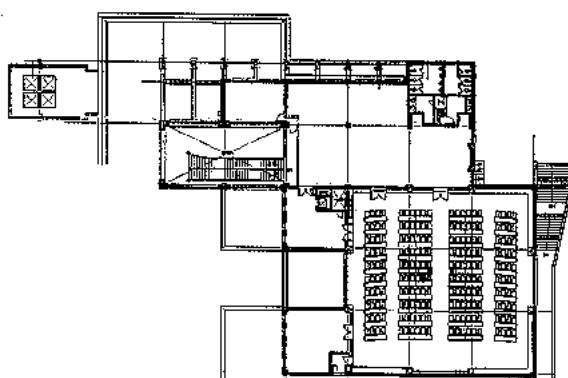
주변건물들과의 context를 염두에 두기도 하였지만, 적벽돌조가 주는 자연과의 친화력 덕택에 의장은 쉽게 결정되었으며, 적벽돌을 떠받치고 있는 저층부의 흑강석 마감과, 내부의 주라마블, 그리고 녹색칠의 철제 인방은 7년전에 준공된 호암회관과 대비된 시간의 흐름이 목격되어지기를 바라는 건축가의 욕심의 발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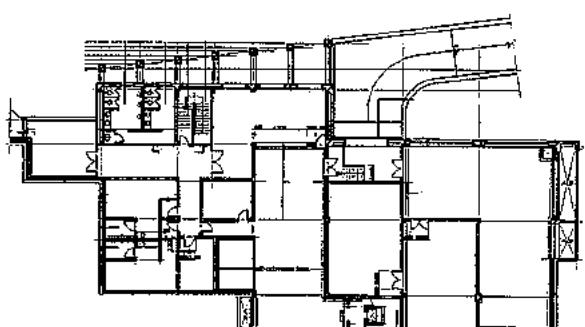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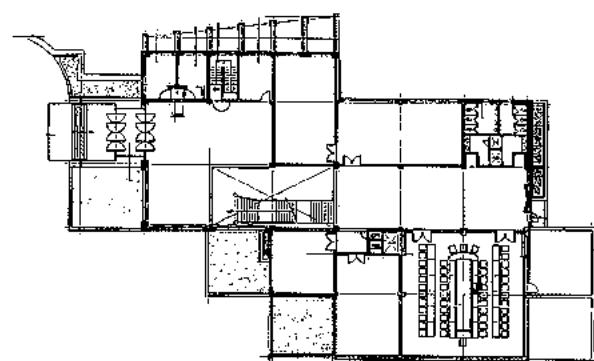
지하1층



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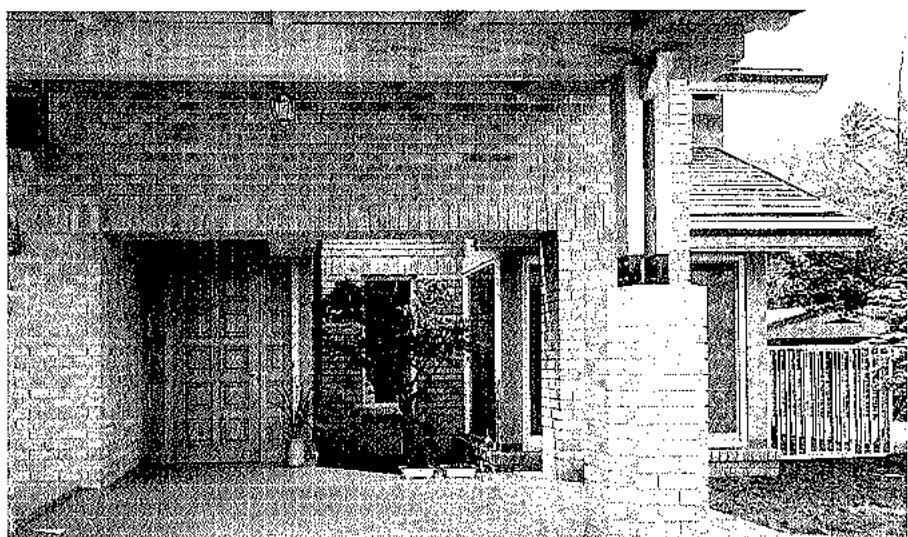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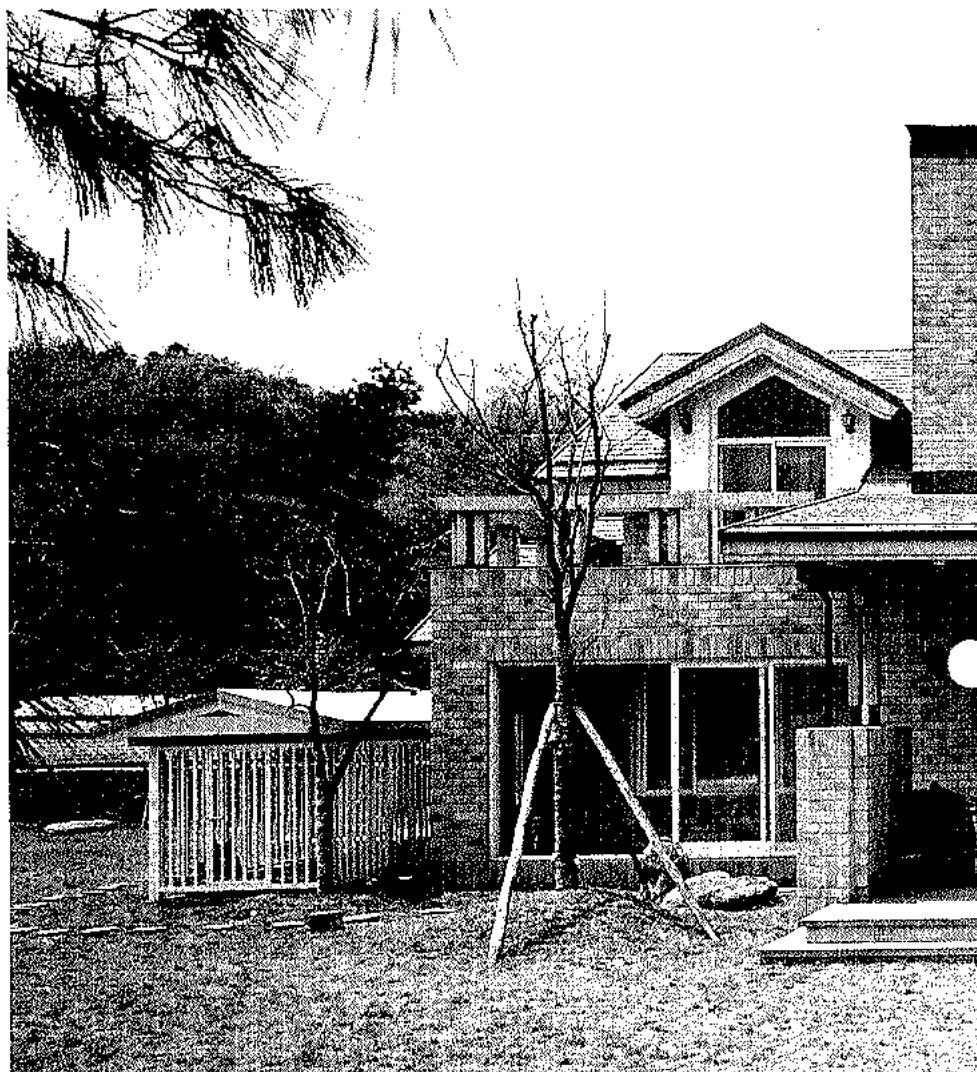
화인제

Hwain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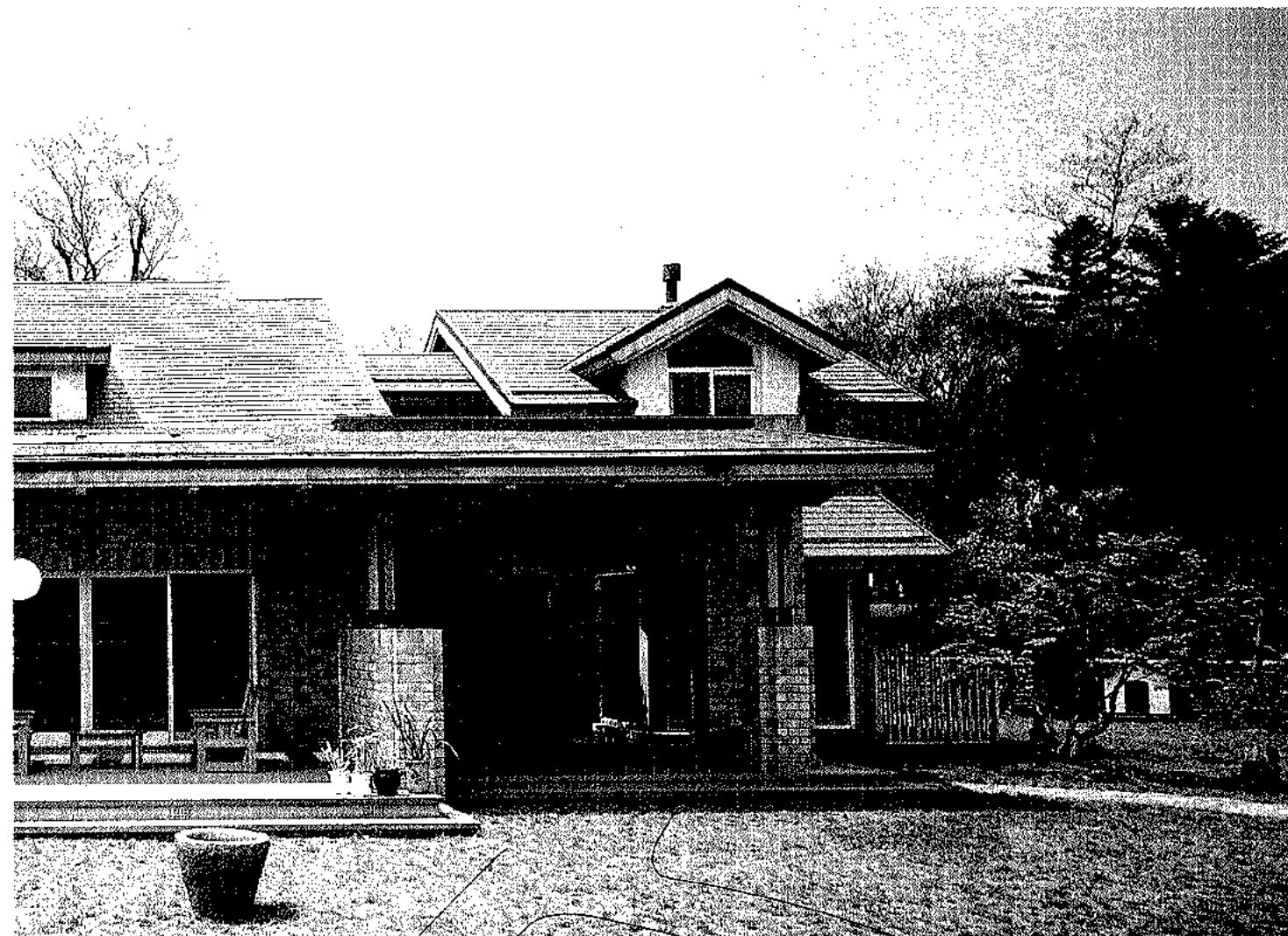
이명규 / 건축사사무소 에터
Designed by Lee Myoung-Kyu

위치 /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영장리
지역 · 지구 / 도시계획구역
대지면적 / 1,170㎡
건축면적 / 189.23㎡
연면적 / 328.11㎡
건폐율 / 16.17%
용적률 / 28.04%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조적조+목조
외부마감 / 치장벽돌쌓기, 동판상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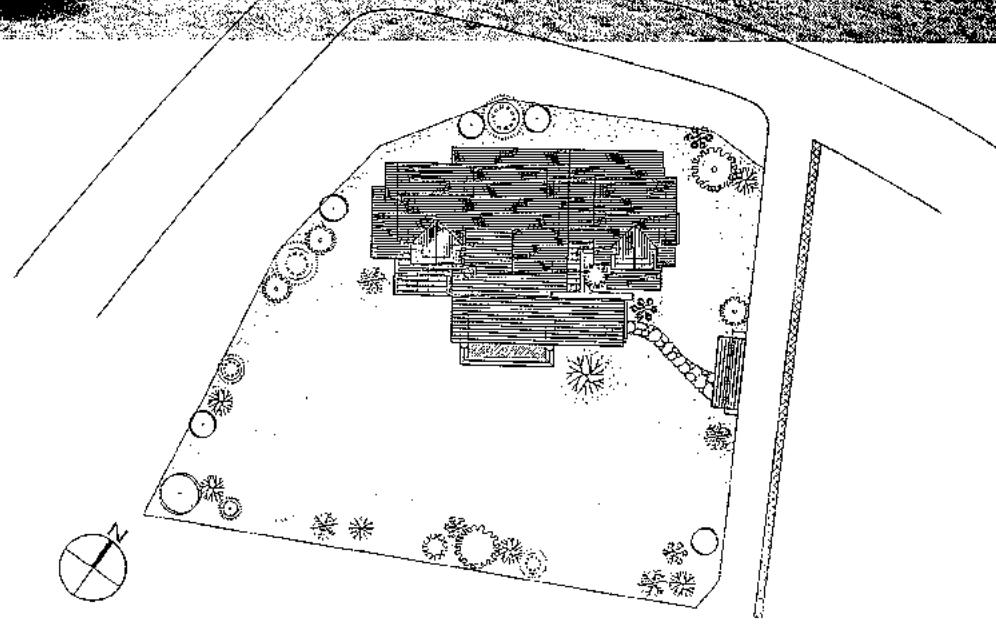
Location / Yeongjang-ri, Kwangtan-Myeon,
Paju-gun, Gyeonggi-do
District / Urban Planning
Site Area / 1,170㎡
Bldg. Area / 189.23㎡
Gross Floor Area / 328.11㎡
Bldg. Coverage Ratio / 16.17%
Gross Floor Ratio / 28.04%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Masonry+Wood
Exterior Finish / Fair-faced Brickwork



주출입구 전경



정면 전경



배치도

입지조건

서울시내권에서 파주쪽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대지는 장흥유원지와 기산리 저수
지를 둘러싼 초가집, 기와집, 통나무집 등으로 구
성된 학동 과거마을 미을로 지정된 곳이다.

사골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행락객들이 오가는 생동감 있고 다소 이채롭기도 한 곳이다.

기꺼운 곳에 적지 않은 레저타운이 있어 가끔은 기족과 함께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도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완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전원주택 입지로서는 매우 적합한 곳이라 볼 수 있다.

마을의 한쪽편에 자리한 Site는 전면으로는 넓은 전원이 훤히 펼쳐져 있어 일조간이 양호하며 후면 진입부쪽으로는 소령원이라는 왕비의 능이 있다.

어 수백년 자란 고목이 울창하게 자리잡고 있어 주변 경관 모두가 수려한 곳이다.

설계의 방향

먼저 밝은 색조와 표면질감이 있는 벽돌과 무게 구조를 처리한 것이 부드러운 처마의 선과 서까래의 디테일로 정감을 느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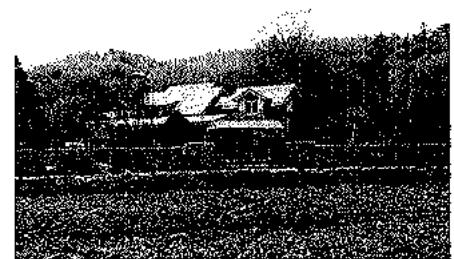
상부 오픈된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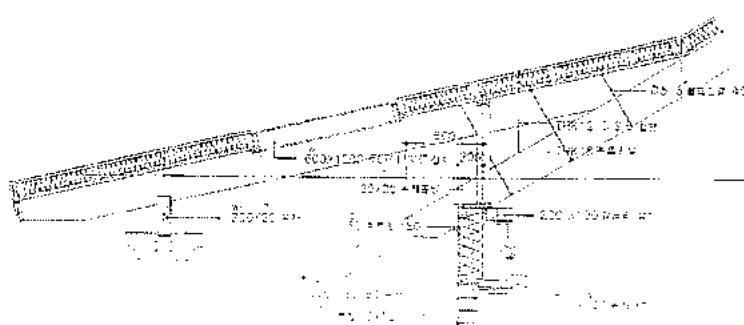
동측 대문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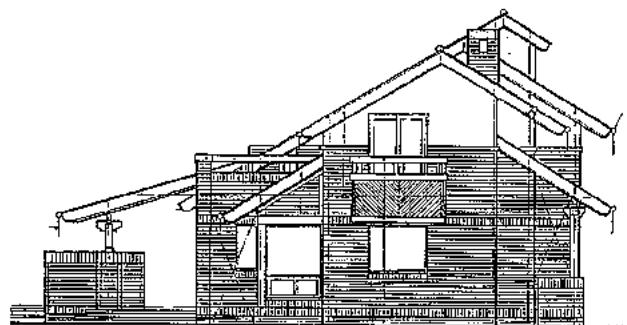
북동족 전경



원경



캐노피 상세



우측면도

실내의 천정 마감도 별도의 시공없이 부드러운 나무질감의 경사면으로 장식적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울러 자연스러운 디락방 분위기를 주어 주거 문화의 향수를 경험하게 하였다.

주택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그 모양을 크게 좌우 한다. 2층의 기능을 1층 치마 끝에서 전체를 지붕 으로 덮어보면 보다 더 큰 지붕을 얻게되고 부분적

인 돌충창·처마·글뚝 등의 조합으로 변화를 유 도하였다.

공간기능의 분리로 독자적 공간활용을 꾀하고 각 공간의 연결되는 완충공간은 유기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각 기능의 공간상호성을 늘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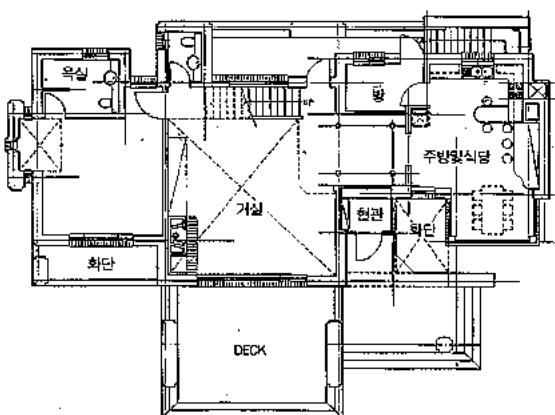
테라스공간의 지붕처리로 전원에서의 자연과 접

한 생활을 재창조 시켜주며 특히 처마의 깊이있는 공간은 흔히 볼 수 있는 베타적인 공간에서 탈피하여 흡입력있는 친근한 공간을 연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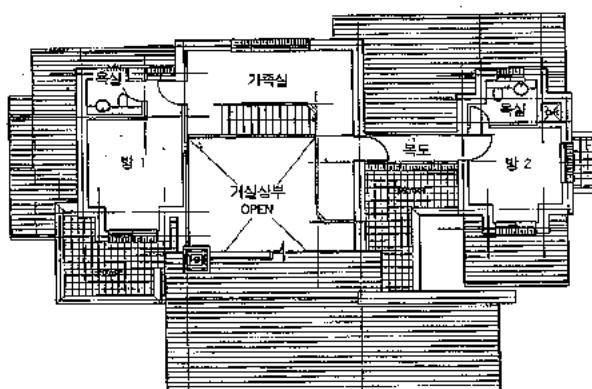
건물의 색채 조화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표현됨이 보다 더 정감이 가는 주택으로 발전할 것이다.



남측 전경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국민연금 대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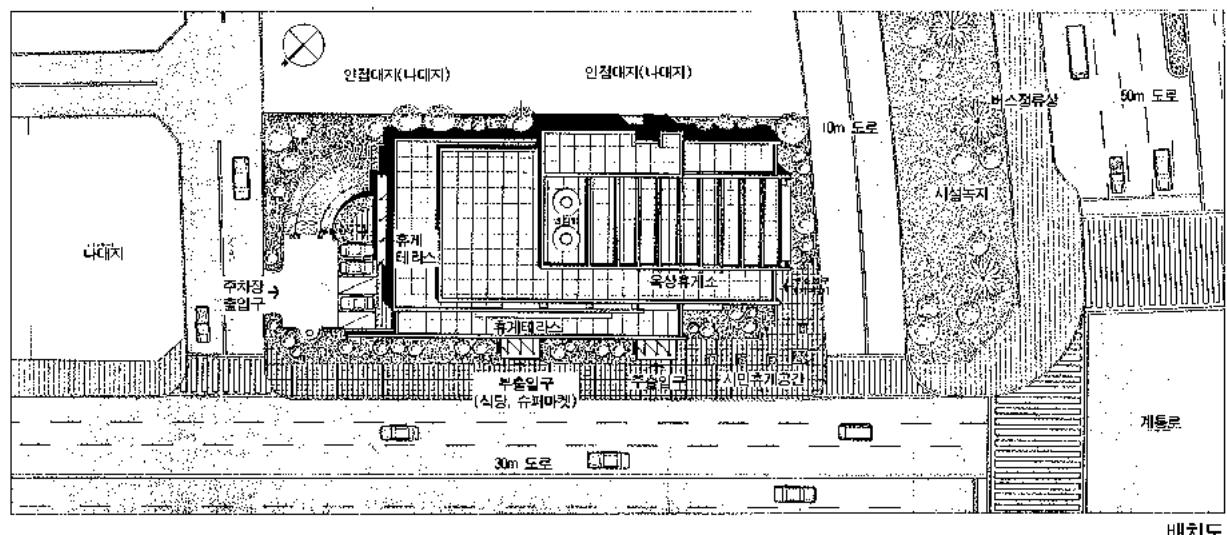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Taejeon Branch

조대희+이광인 / (주)인터플랜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Dae-Hee & Lee Kwan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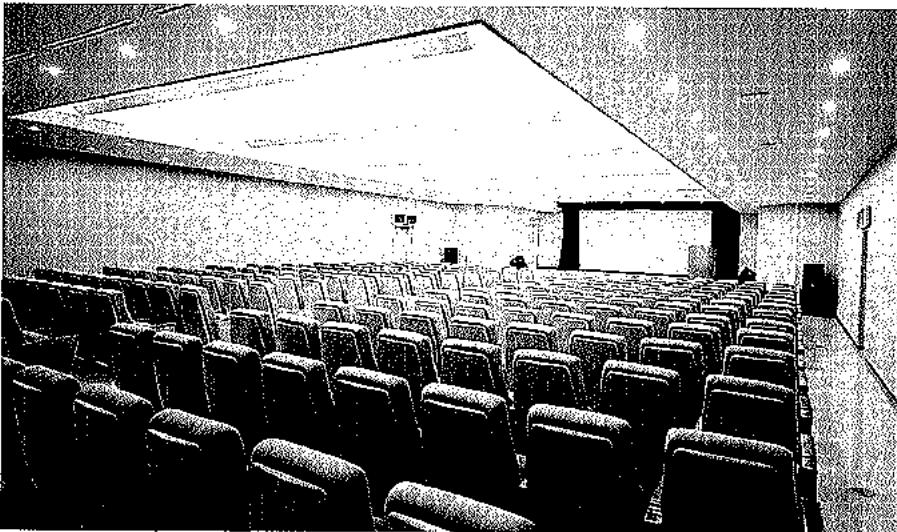


서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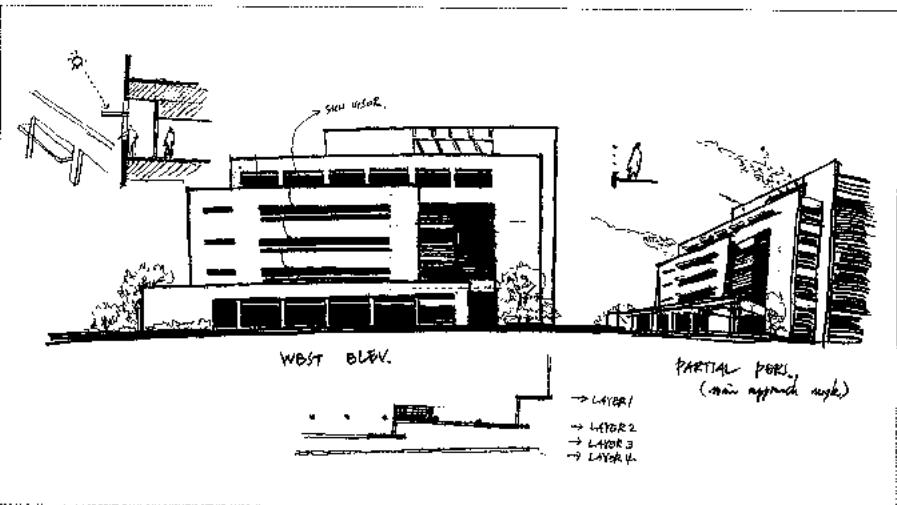




1층 로비



2층 강당



스케치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08, 609

지역 · 지구 / 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2,304.60m²

건축면적 / 1,252.92m²

연면적 / 9,106.74m²

건폐율 / 54.37%

용적률 / 235.94%

조경면적 / 462.90m²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비 / F.C.U+공기조화방식

외부마감 / 자봉 광스리브위 도막방수

벽·회강석, AL 커튼월

실시설계 / 강관일, 김경원, 김춘수,

원경환, 김태형, 강현숙

구조설계 / 민우구조

전기설비 / 한얼 기술사 사무소

기계설비 / 세학설비기술(주)

시공자 / 청구개발(주)

설계기간 / 1993. 11~1994. 5

시공기간 / 1994. 6~ 1996. 6

Location / 608-609, Tanbang-dong, Seo-gu,
Taejeon-shi

District / Urban Design

Use / Business, Neighborhood

Site Area / 2,304.60m²

Bldg. Area / 1,252.92m²

Gross Floor Area / 9,106.74m²

Bldg. Coverage Ratio / 54.37%

Gross Floor Ratio / 235.94%

Landscaping Area / 462.90m²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Facilities / F.C.U+Air Conditioning

Exterior Finish / Roof-Slate

Wall-Granite

Project Team / Kang Kwan-il, Kim Kyeong-Won,

Kim Chun-Soo, Won Kyeong-

Hwan, Kim Tae-Hyeong &

Kang Hyeon-S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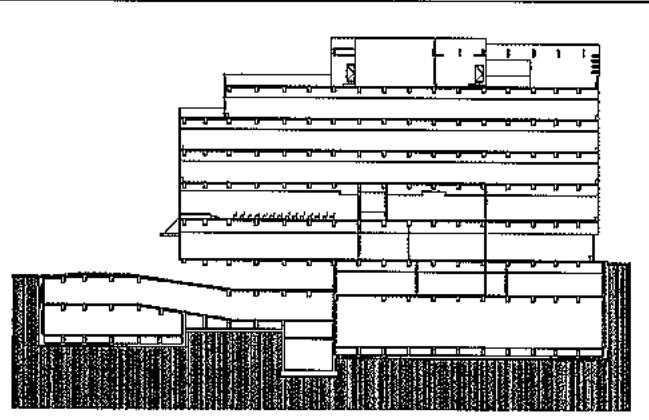
Structural Design / Mirwoo

Design Term / 1993. 11~199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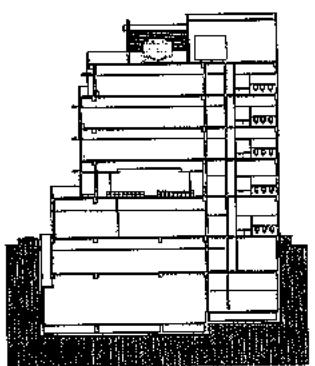
Construction Term / 1994. 6~ 199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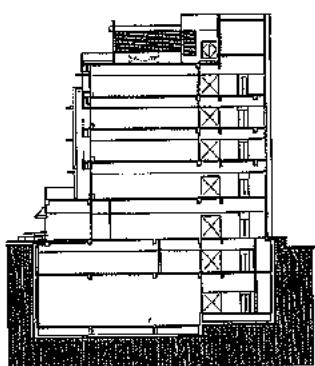
상세 면적 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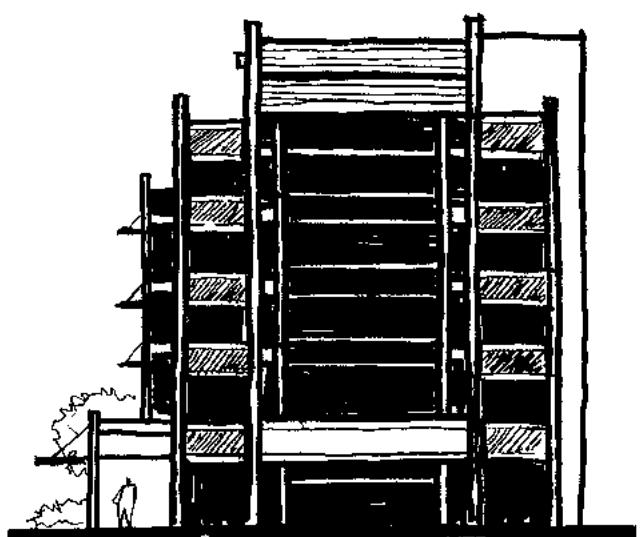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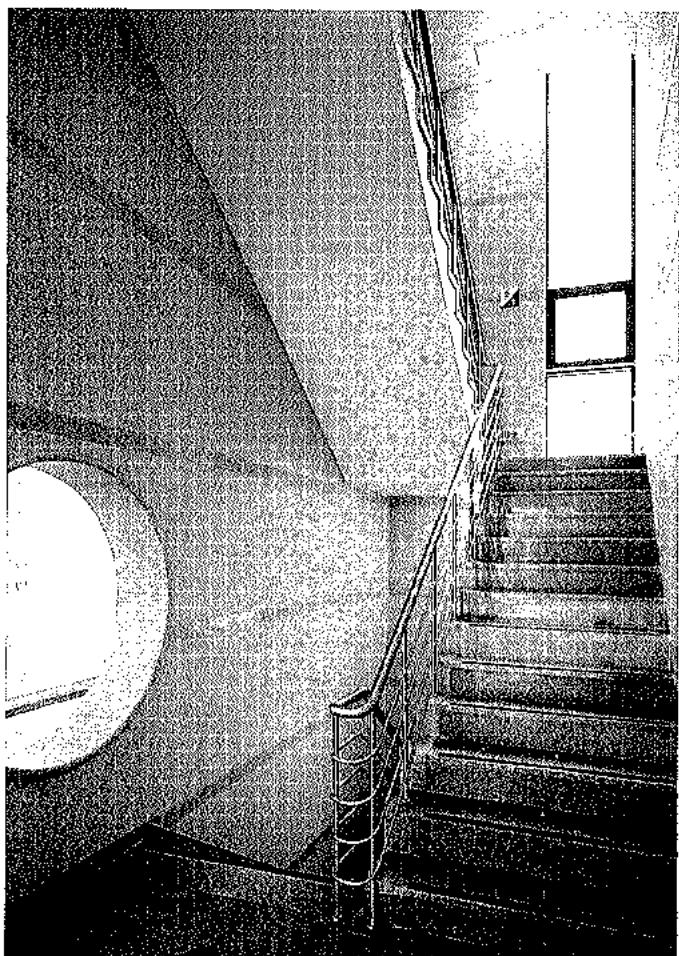
주단면도 3



입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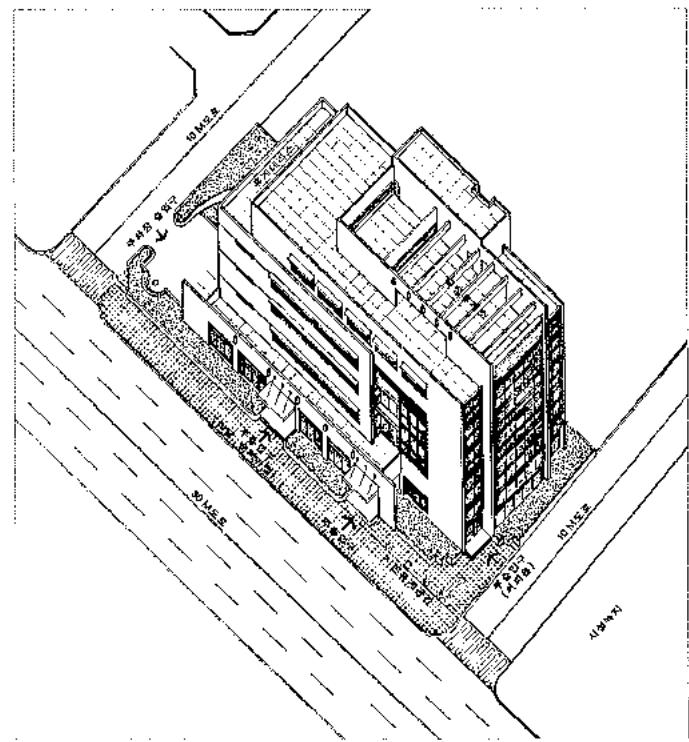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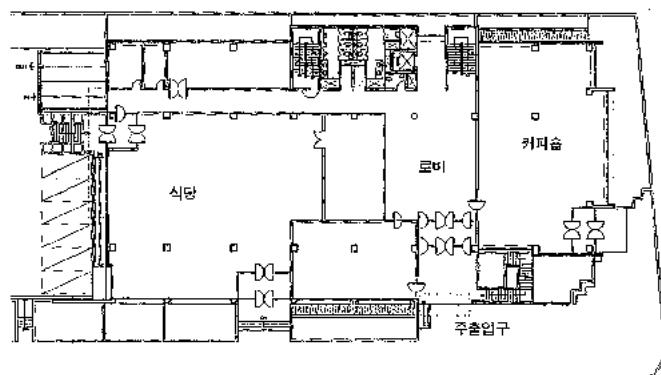
내부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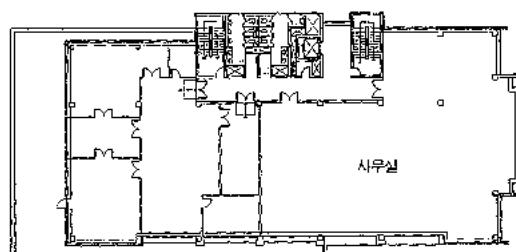
북동측 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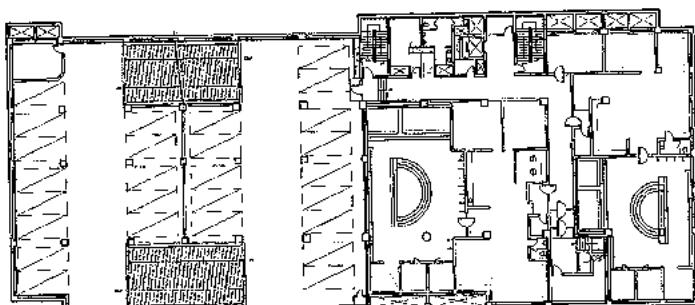
통각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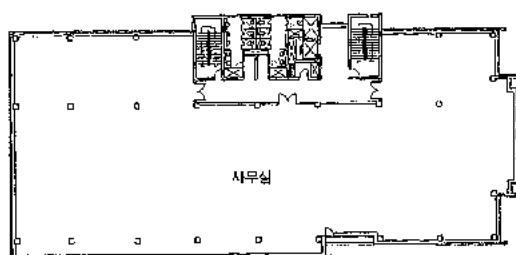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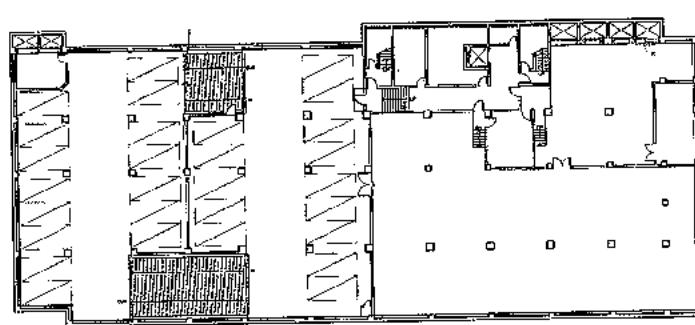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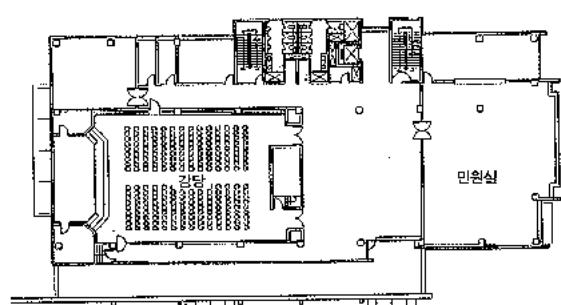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3·4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북측 전경

평면 및 구조계획

—주요 SPAN

사무 공간의 융통성(Flexibility) 확보와 대공간 수용(강당)을 위하여 「6.0m × 12.9m」를 기본 모듈로 채택하였고, 12.9m Span은 Post Tension 구조로 하여 보축을 절약함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하였다.

—편측 CORE형식 채택

폭이 좁은 대지에서 융통성 있는 공간을 얻기 위하여 동측 배면 방향에 CORE를 배치하였다.

—층별 기능 배치

- 다수인의 사용이 빈번한 정도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 층에 배치하고, 휴욕실의 경우 이용 시간대의 구분을 고려 관리상 편리하도록 지하층에 배치하였다.
- 강당과 식당은 다목적 접회 공간으로 혼석할 수 있으며, 접회(결혼식 등) 후 식당 이용이 용이하도록 근접층에 배치하였다.

입 · 단면 계획

—매스(MASS)계획 개념

- 대지가 두개의 주요도로(폭 50m 및 30m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임을 고려 양방향에서 전면성을 부여하였고
- 저층부 판매기능과 상층부 사무기능이 구분되도록 매스를 처리하였다.
- 4개 매스의 결합형상으로 처리하여 건물의 자루함을 탈피하고 계단식 Sky-Line을 형성하였다.

—현대적이고 인정적인 의장계획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를 결구시키는 입면 구성으로 외부설계재료의 안정감과 현대적 감각의 유리재료와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였다.

—루버(LOUVER)를 도입한 일사조절

외벽창호 상부에 치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알미늄 루버를 부착하여 하절기 오후 서측 전면 도로의 직사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동선계획

—보행동선의 부드러운 처리

교차로측 대지 모서리 부분을 보행공간으로 처리하여 보행시민의 부드러운 동선을 유도하며 출입구 부분에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출입동선의 유기적 연계

2개의 전면도로(50m도로, 30m도로)와 후면 주차장으로부터의 동선이 내부홀에서 연결되어, 이용객이 많고 빈번한 저층부기능에 전용출입구를 두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이용객 동선과 물품 반입동선의 분리

물품 반입, 반출 동선을 별도처리하여 이용상의 편의성과 함께 관리 및 미관증진에 기여도록 고려하였다.

—원활한 차량동선 체계

인식이 용이하고 안전한 경사로 처리와 효율성이 높은 직각 주차방식을 도입하였다.

Works

회원작품

대한 교원공제회 경남회관

The Korea Teacher's Mutual Fund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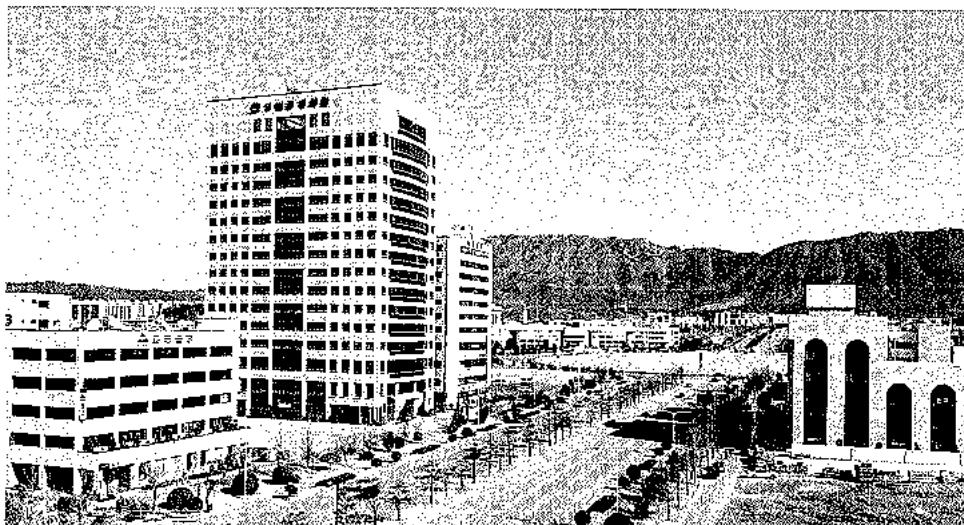
위치 / 경남 창원시 중앙동 93-2
 지역 · 지구 / 중심상업지구, 1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3,052.3㎡
 건축면적 / 1,364.8㎡
 연면적 / 28,957.27㎡
 건폐율 / 44.71%
 용적률 / 671.71%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규모 / 지하 4층, 지상 15층, 옥탑 2층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 벽-THK 30mm 화강석버너이, 물갈이
 지붕-평슬리브위 도막방수
 창호-THK 20mm 앤비사복층유리

Location / 93-2, Chung-ang-dong,
 Changwon-shi,
 Kyeongsangnam-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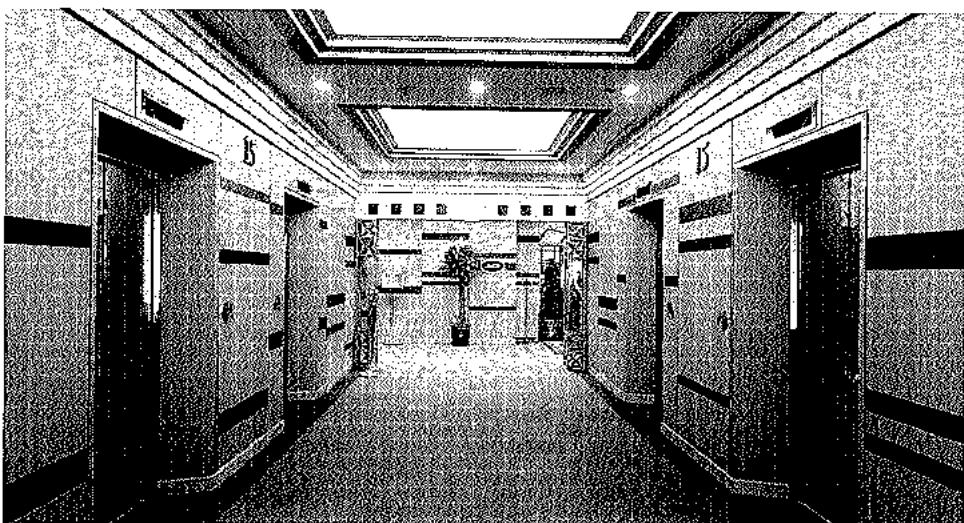
District / Commercial
 Site Area / 3,052.3㎡
 Bldg. Area / 1,364.8㎡
 Gross Floor Area / 28,957.27㎡
 Bldg. Coverage Ratio / 44.71%
 Gross Floor Ratio / 671.71%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15 Stories Above Ground,
 2 Stories Penthouse
 Use / Business, Neighborhood
 Exterior Finish / Granite

평면개념

- 편심 코아를 중심으로 D자 형태의 사무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서, 최대의 사무 면적과 사무실에 적정 깊이인 12~15m를 취하였고 사무실 4면이 개방되어 있어 폐쇄된 사무공간을 최하도록 하였다.
- 건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코아는 화장실 및 ELEV.홀에도 자연채광이 됨으로써 밝고 쾌적한 휴식 및 실내공간을 취하도록 하였다.
- 평면의 기본 모듈인 3m×3m는 가동 칸막이 설치, 조명, 공조, 방재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15층은 장차 Sky Lounge 등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하도록 층고 확보 및 설비계획을 고려 하였다.



원경



엘리베이터 홀



지하층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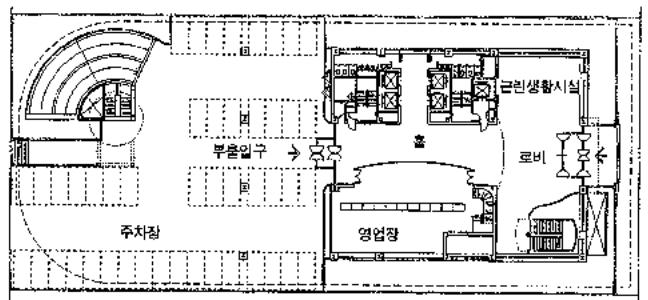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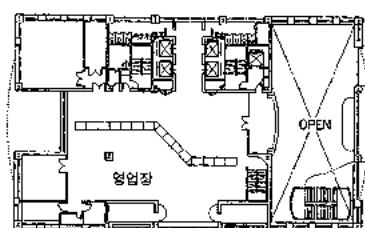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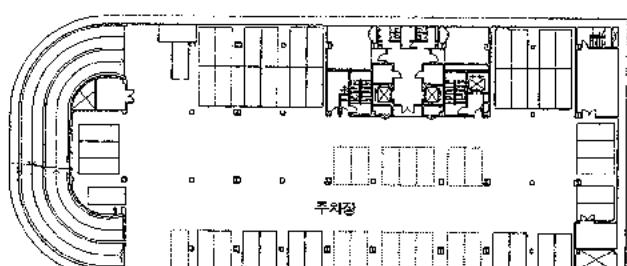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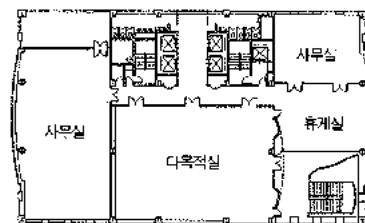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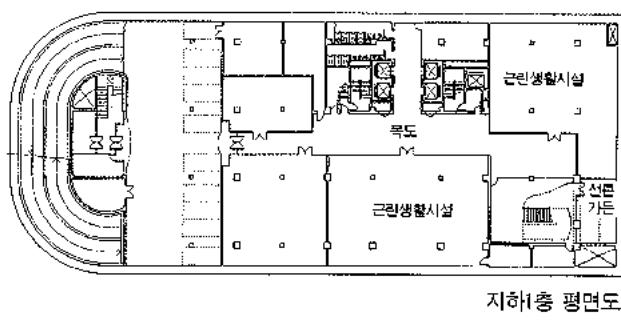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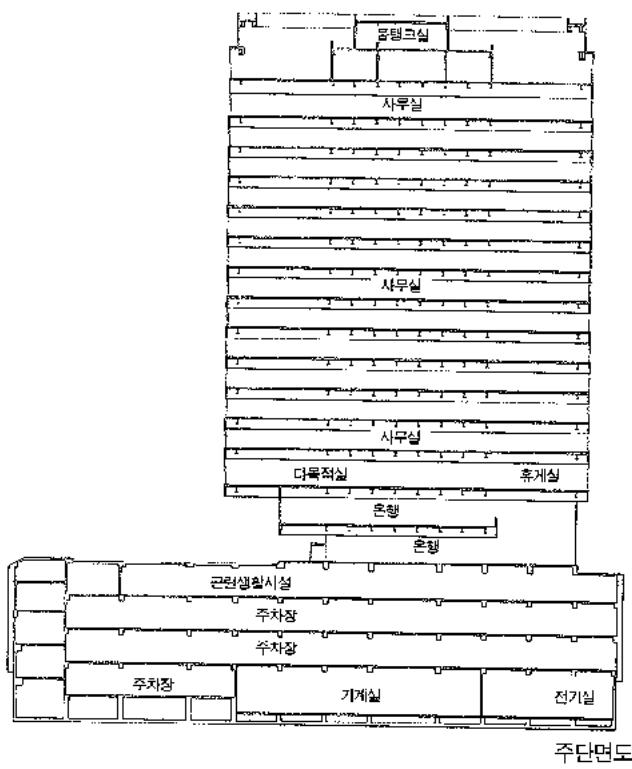
정면



주출입구 벽면 상세



1층 로비



Works

회원작품

규수당 문화센터

Kyusudang Culture Center

이용호+안병목 / 행림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o & Ahn Byeong-M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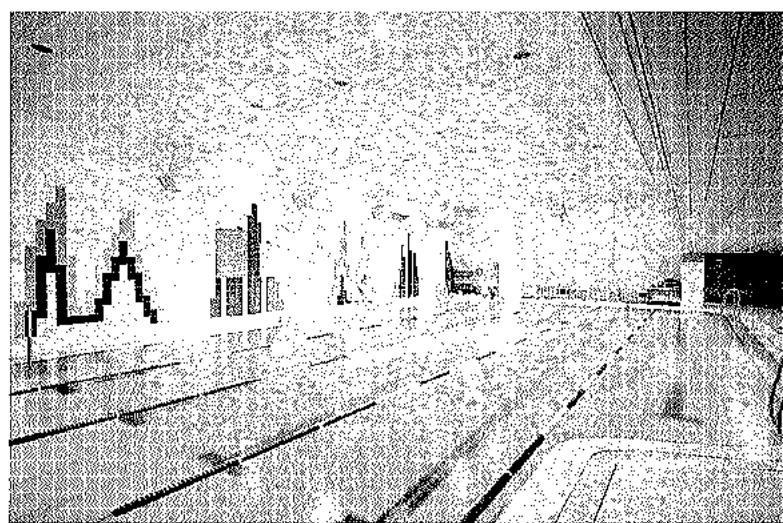
동측전경



엘리베이터 홀



예약실



수영장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1-10

지역 / 일반주거지역

용도 / 문동, 근린생활, 업무, 관람전회, 전시시설

대지면적 / 2,030.10m²

건축면적 / 1,273.04m²

연면적 / 14,159.10m²

건폐율 / 62.70%

용적률 / 378.52%

조경면적 / 337.43m²

주차대수 / 115대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3층, 지상10층

외부마감 / 알미늄페넬(하나콤), 드라이비트 단열판

Location / 371-10, Seogyo-dong, Mapo-gu, Seoul

District / Houses

Use / Sports, Neighborhood, Business, Exhibition

Site Area / 2,030.10m²

Bldg. Area / 1,273.04 m²

Gross Floor Area / 14,159.10m²

Bldg. Coverage Ratio / 62.70%

Gross Floor Ratio / 378.52%

Land Scaping Area / 337.4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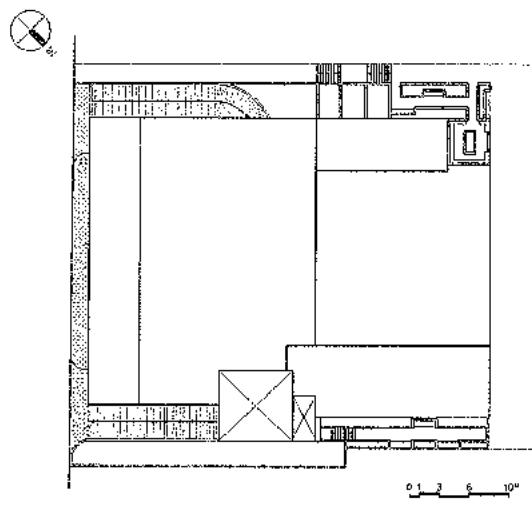
Parking / 115 Cars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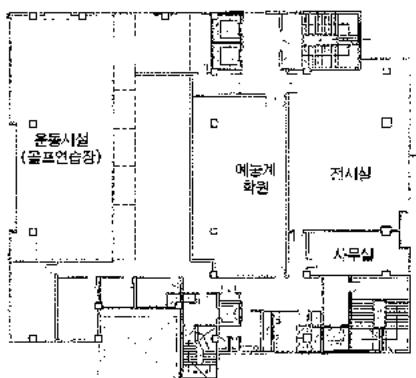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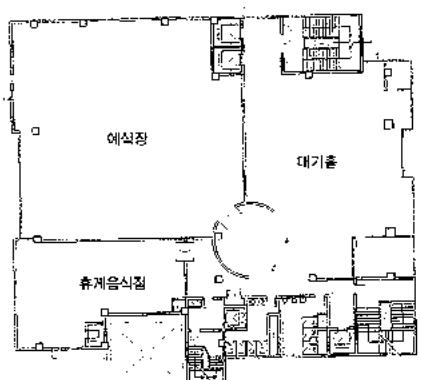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Aluminium Panel, Dryv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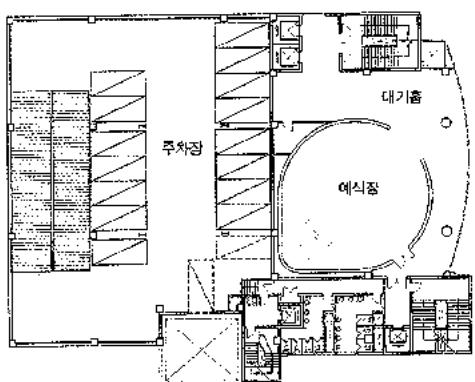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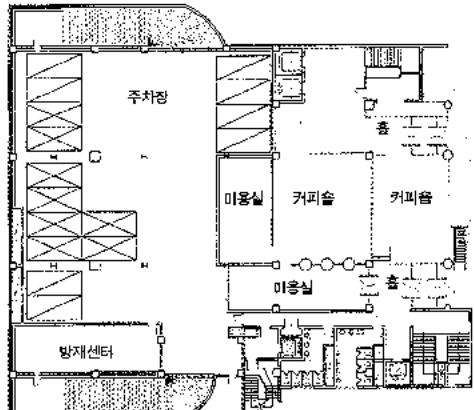
9층 평면도



6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1 2 3 4 5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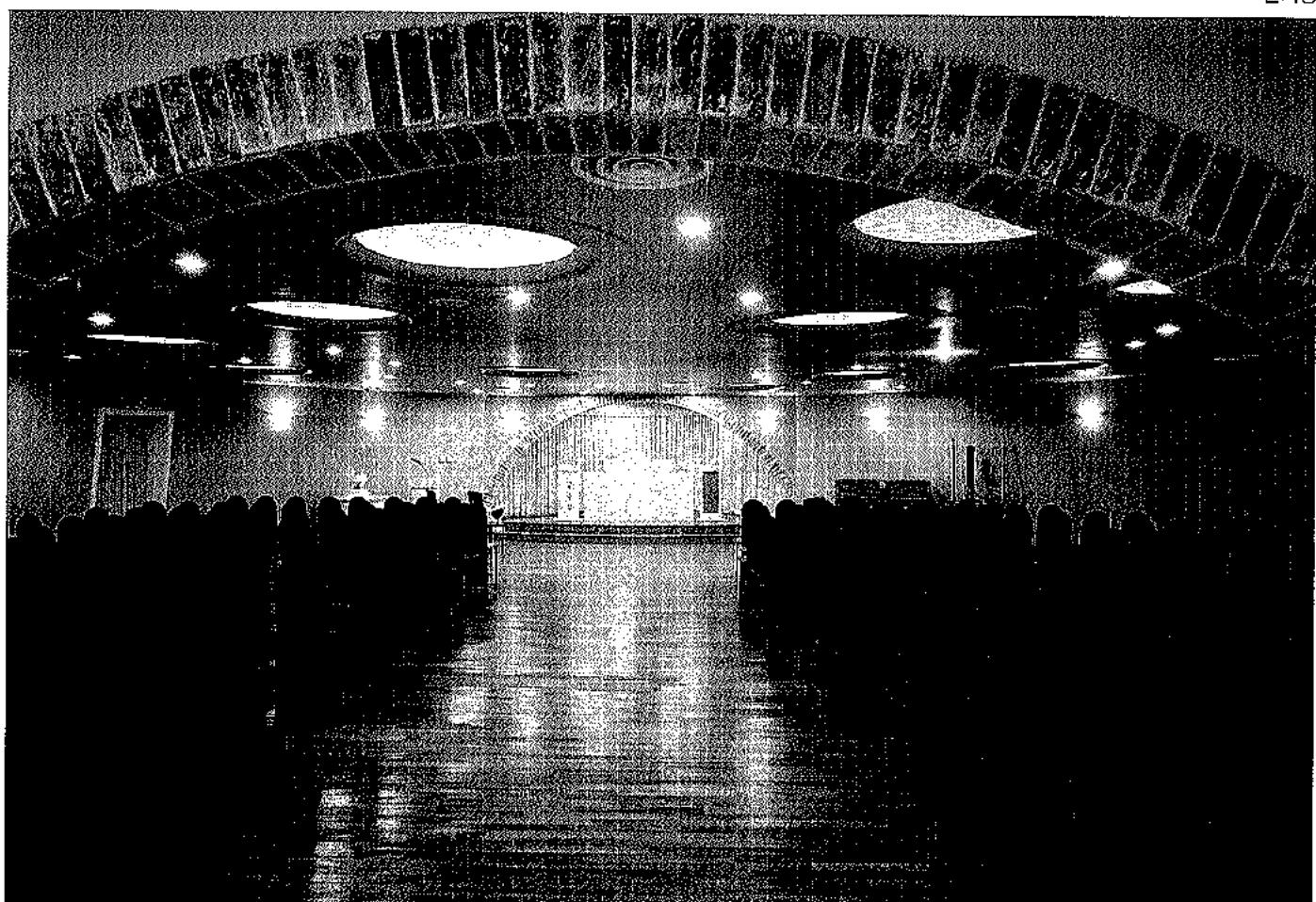
북측전경



주출입구 전경



연회장



예식 훌

Works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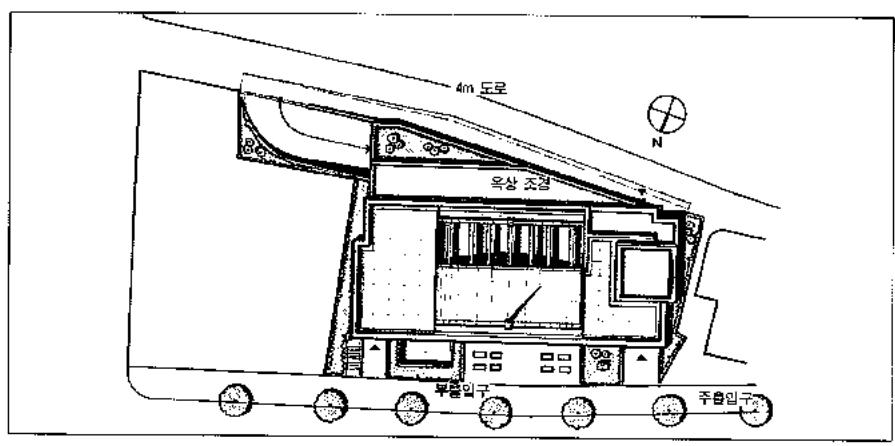
성창빌딩

Sungchang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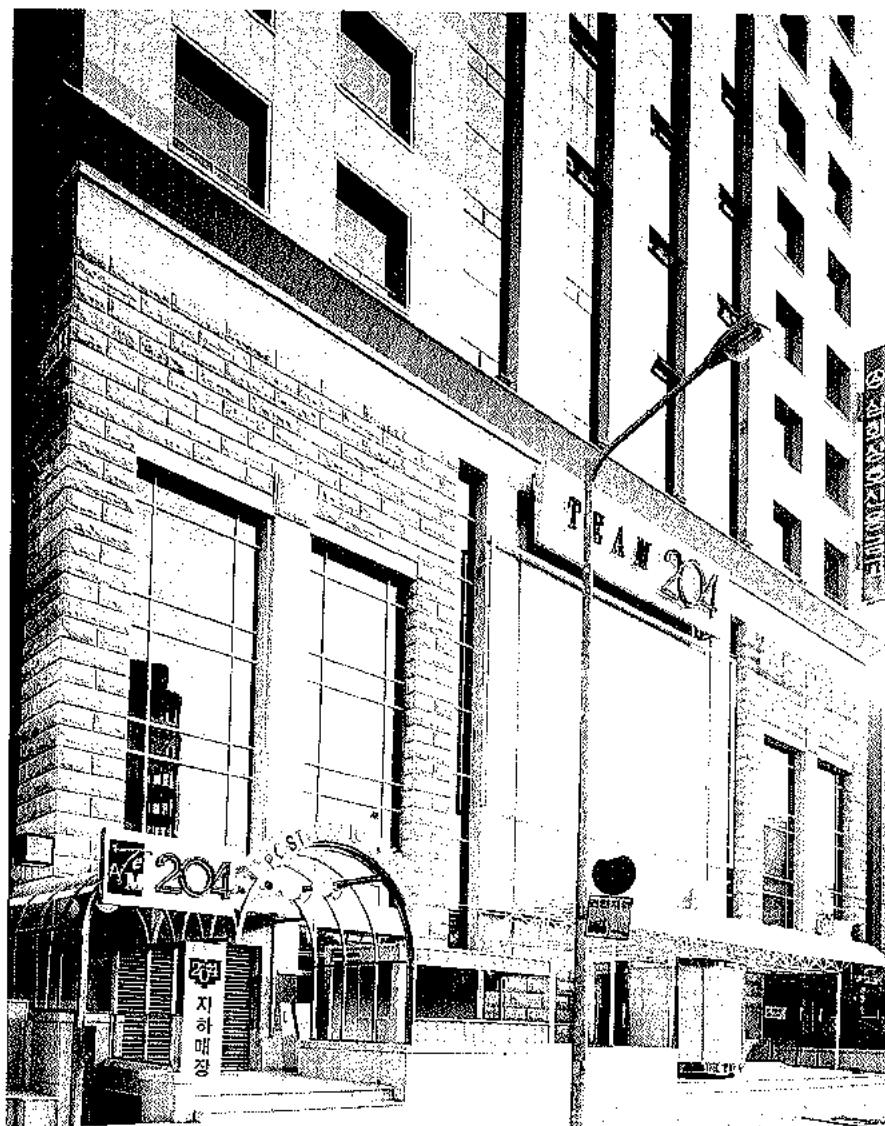
민경재+김창대 / 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in Kyoung-Jae & Kim Chang-Dae



전경



배치도



주출입구 전경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당동 204-48번지 외
3필지

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지역 · 지구 / 협동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021.97m²

건축면적 / 607.49m²

건폐율 / 59.44%

연면적 / 9,907.77m²

용적률 / 730.18%

규모 / 지하4층, 지상15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회강석 베너구이+아이소 코트+18mm, 24

㎜컬러 복층유리

주차대수 / 92대

건축계획 / 이재홍

구조설계 / 민우구조기술사사무소 김종호

전기설계 / 대화기술단 장우창

설비설계 / (주)유진기술사사무소 윤하진

설계기간 / 94. 9~94. 11

공사기간 / 94. 12~96. 6

Location / 204-48, Shindang-dong,
Chung-gu, Seoul

Use / Business

District / Commercial

Site Area / 1,021.97m²

Bldg. Area / 607.49m²

Bldg. Coverage Ratio / 59.44%

Gross Floor Area / 9,907.77m²

Gross Floor Ratio / 730.18%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1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18mm Color Double
Grazing

Parking / 92 Cars

Building Planning / Lee Chae-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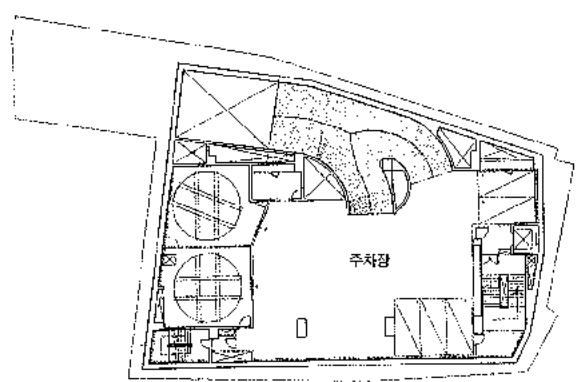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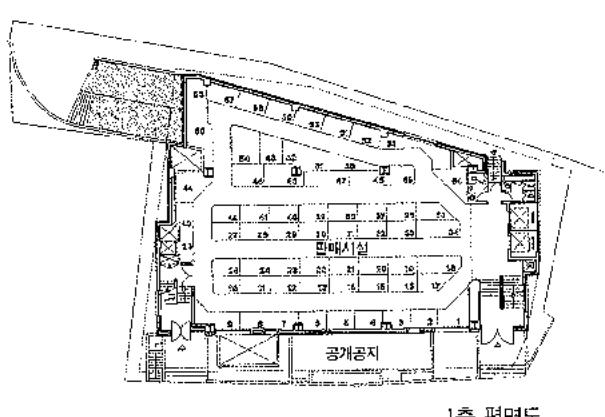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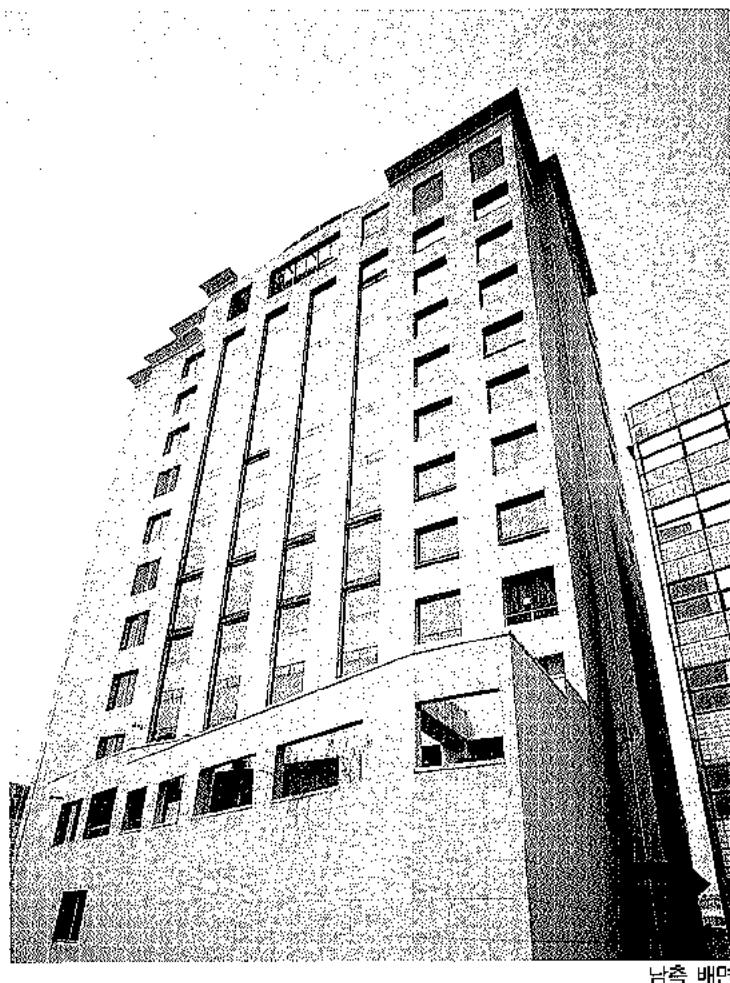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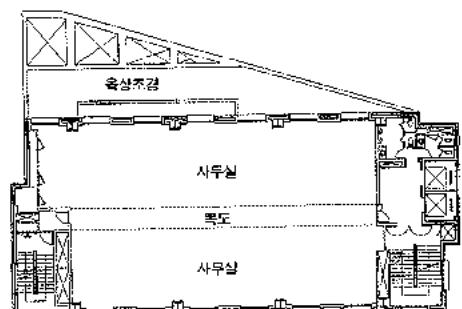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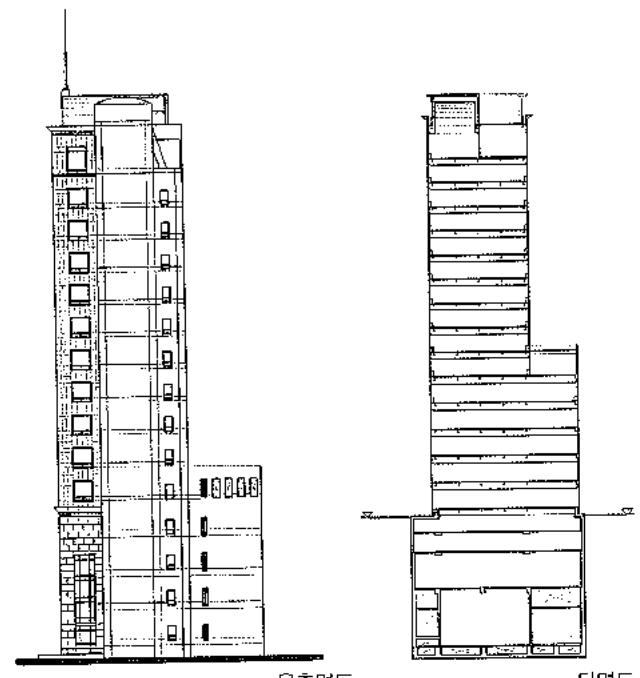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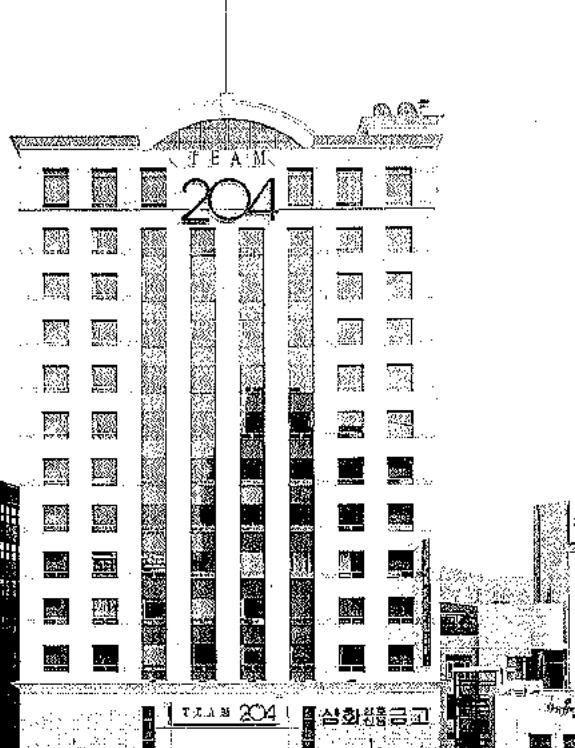
Structural Design / Kim Ch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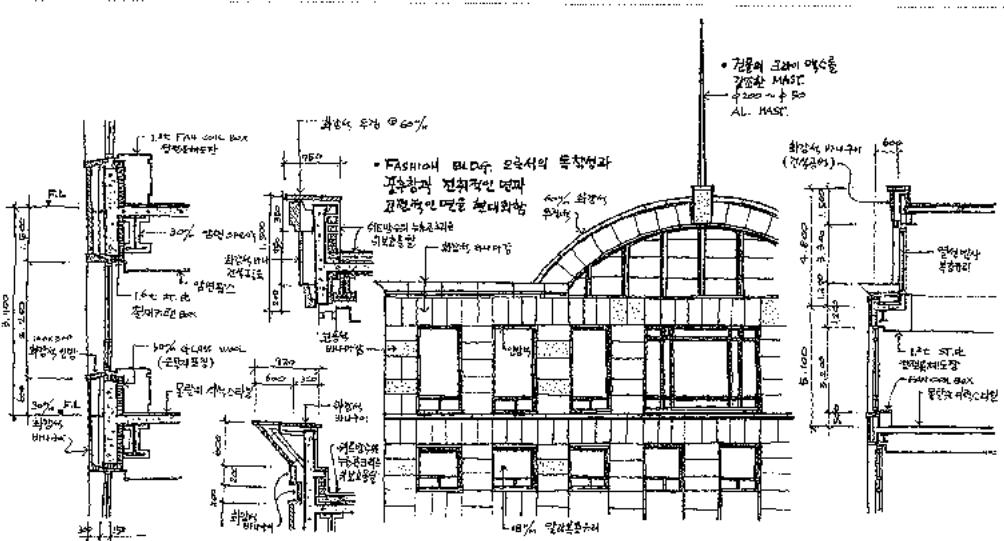
Electrical Installation / Jang Woo-Chang

Mechanical Services / Yoon Ha-Jin

Design Term / 94. 9~94. 11

Construction Term / 94. 12~96. 6





스케치



5층 사무실



스카이리운지

70년대 이후 강남지역의 비약적 발전과 강북지역의 상대적인 침체 그리고 국가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을 간직한 동대문일대의 상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서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형태의 판매업체들이 강하게 거부되고 이제는 상품자체의 고품질화 뿐 아니라 상가형태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동대문 일대의 종합적 재건축 계획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우리 사무소에서도 이미 일대에 덕수빌딩, 혜양 빌딩 등 고층의 Complex 빌딩을 계획하고 이미 착공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완공된 성창빌딩은 앞으로의 동대문 일대 상가군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동대문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전부터 우리나라 섬유와 의류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낡은 저층형 상가들로 인하여 퇴락한 Street Facade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지에 있어서 상업 건축으로서의 지나친 회려함은 오히려 거리의 이미지를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석재를 이용한 단아한 형태를 계획의 주안점으로 삼아 주위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향후 주변의 상업건축물을 사이에서 도 독특한 Identity를 자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Complex건축물에서 혼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동선의 혼란은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주 사용 시간대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으로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대지의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음을
김안하여 주차는 건물지하의 기계주
차로 한정하고 주차장의 입구를 건물
의 배면에 두어 전면도로로부터의 도
보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금동 28-8

Kum-dong Residence 28-8

이충기+박명협 / 한메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Kee, Park Myung-Hyup

대지위치 / 전북 군산시 금동 28-8

대지면적 / 602m²

건축면적 / 217.72m²

연면적 / 320.07m²

건폐율 / 34.5%

용적률 / 53.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 / Sand Stone+노출 콘크리트

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용도 / 단독주택

Location / 28-8, Kum-dong, Kunsan-shi,
Cheollabuk-do

Site Area / 602m²

Bldg. Area / 217.72m²

Gross Floor Area / 320.07m²

Bldg. Coverage Ratio /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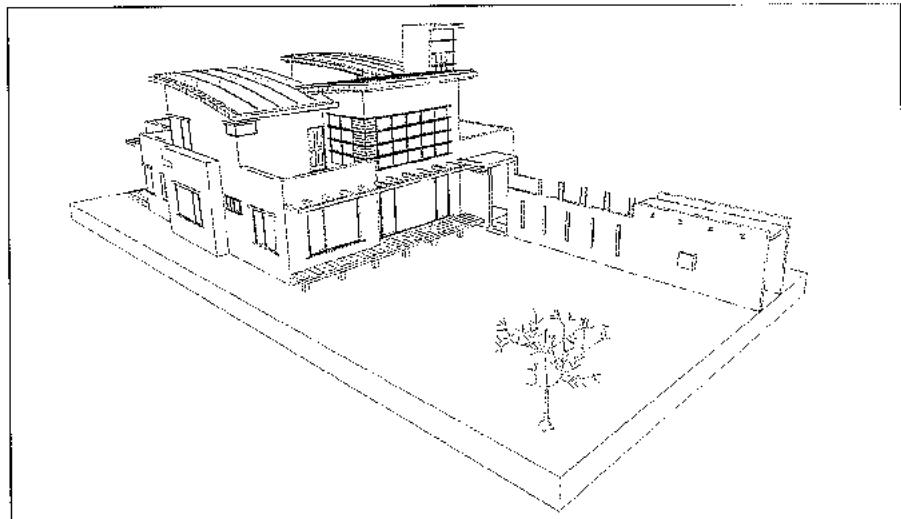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53.2%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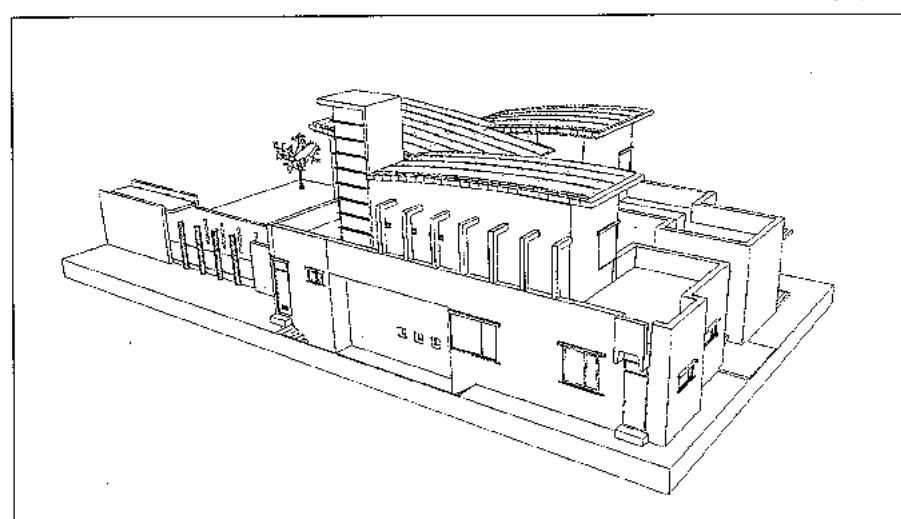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Sand Stone, Expose Concrete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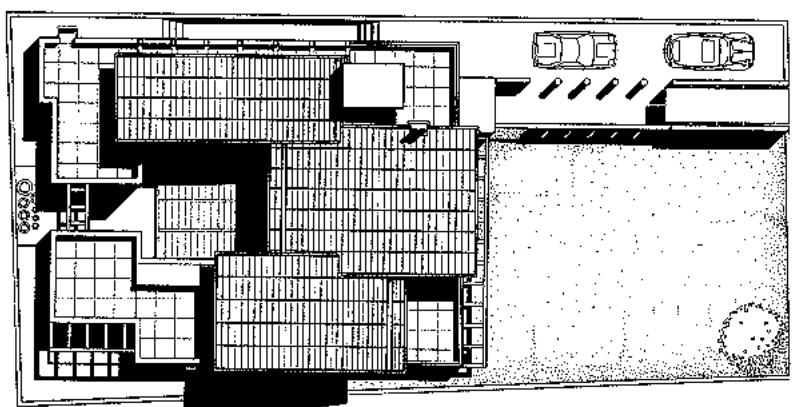
Use / Detached Dwelling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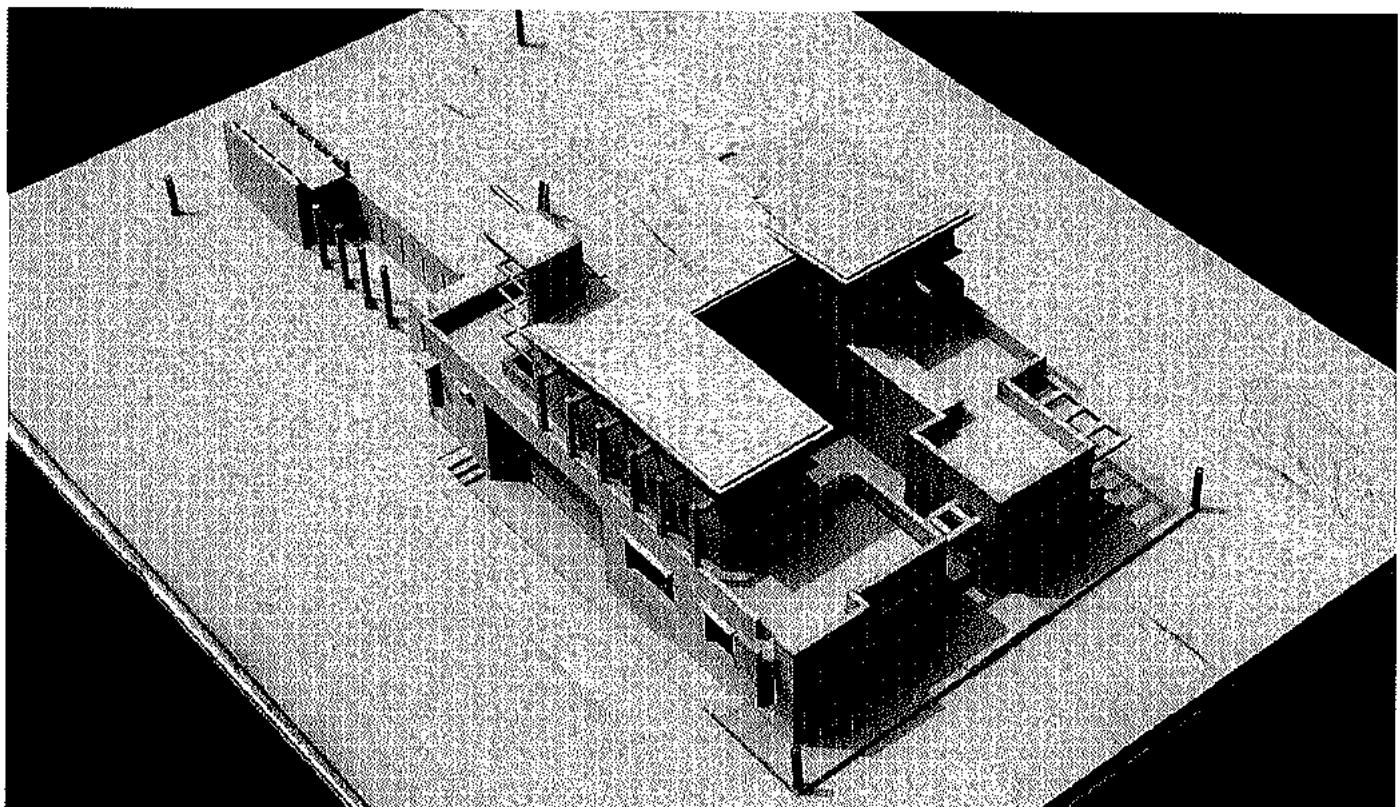
투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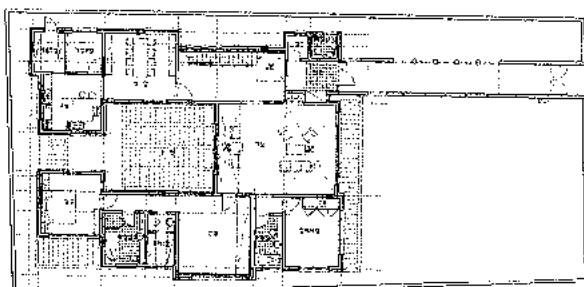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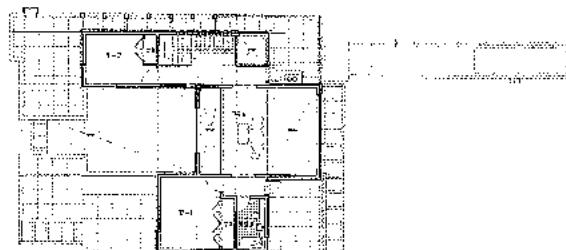
일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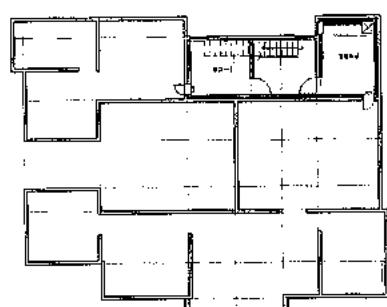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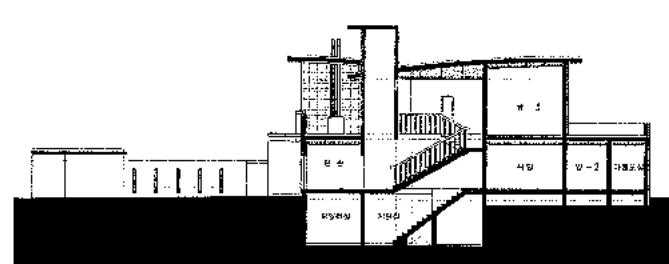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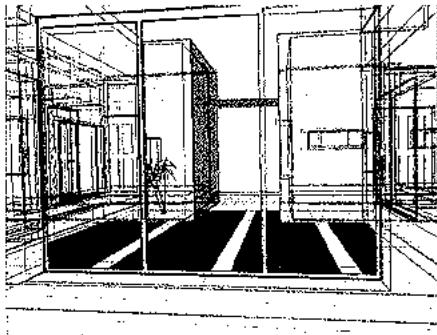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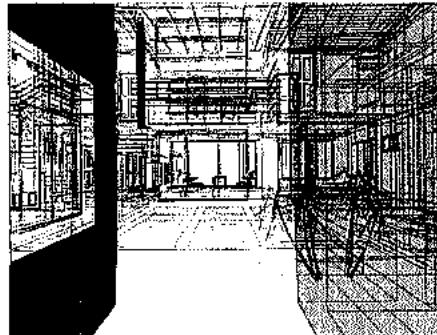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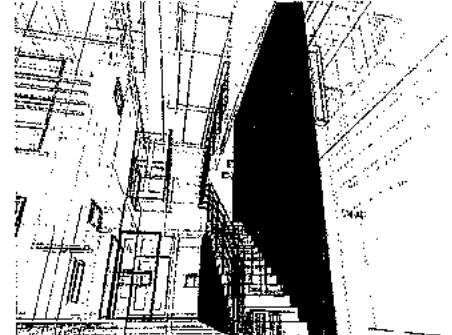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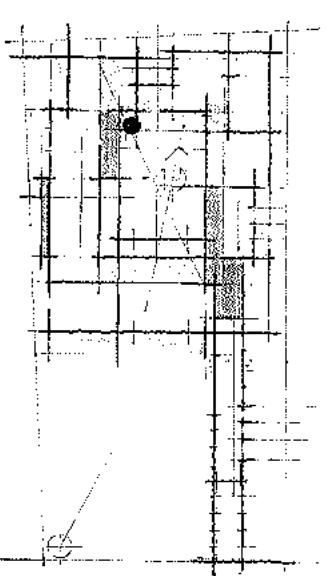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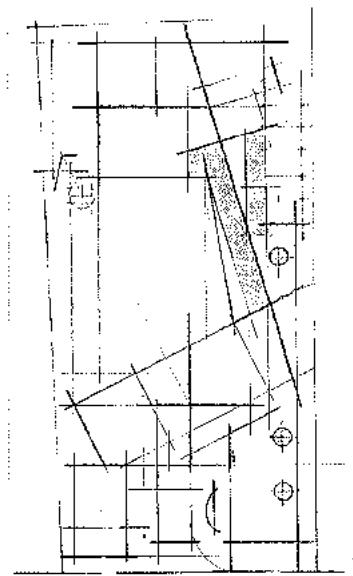
실내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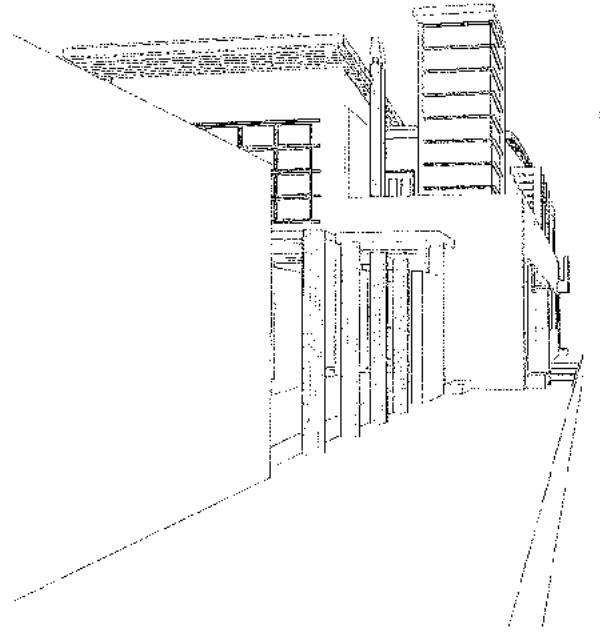
실내 투시도 2



실내 투시도 3



Line 이미지 스케치



부분 투시도

슈특하우젠과 매일 새롭게 발명해야 하는 학교

슈특하우젠은 피아노곡 제11번(Klavierstück XI)을 커다란 악보에 여러가지 악구를 제시해 놓고 연주자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구성해 놓았다.

연주자는 미리 제시된 악구들중 하나 하나를 몽티주 하듯 이어 나가며 연주해야하므로 연주할 때마다 곡이 달라지게 되어 폭 넓게 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기회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도는 이탈리아의 카리카스대학 건축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학과의 강의 실벽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학생들은 매일매일 벽을 움직여 건물의 내부구조를 각자의 의도대로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날의 강의 주제에 따라 건물 용도가 주어지면 가장 적절한 형태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체험적 강의를 한다하여 붙여진 별명이 “매일 새롭게 발명해야 하는 학교”였던 것이다.

매일 새로 지을 수 있는 집?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새롭게 설계하여 새로 짓고 싶은 건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 주

택을 꼽는데 크게 주저하지 않을듯 싶다. 그만큼 주택은 설계와 시공이 까다롭기에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각각의 어려움과 불만족으로 디가선다. 설계자의 만족한 의도가 시공자에겐 시공의 문제로 건축주에게도 입주후 불만족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흔히 보았기에 “매일 새롭게 구조를 변경해가며 생활할 수 있는 집은 없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것이다. 사실 만족스럽고 완벽한 집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설계자는 꿈寐임없는 노력으로 완벽하도록 노력할 뿐이다. 가능하면 건축주가 벽을 움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이다.

건축가와 영화감독

그래서 나는 건축기는 영화에서의 감독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좋은 영화(건축)를 만들기 위해 영화감독(건축가)은 완벽한 시나리오(설계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머리속에 넣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장면 한장면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위치, 배경이 되는 Set와 소도구의 위치, 조명의 위치와 밝기, 카메라의 앵글, 배경음악까지 혼연 일체된 일관성의 흐름속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가지고 촬영(설계)에 임해야 하는 것

이다. 각 장면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감독(설계자)이 엄청난 시나리오와 엄청난 촬영기법으로, 어설프게 연출하고 편집한다면 영화(건축)는 엄청하기 짹이 없어지고 관객(건축주, 방문자)은 저질영화를 육하듯 “혹시나”하고 들어갔다가 “역시나”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설계자도 미망히 영화에서의 감독과 같이 완벽한 설계의도를 가지고, 감독이 관객에게 무엇을 보여줄것인지를 고민하듯 건축주를 비롯한 방문자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공간적 사건을 통해 방문자를 매료시켜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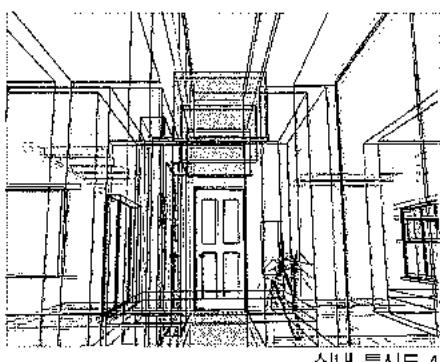
사실 영화에서의 연출기법에서 쓰이는 요소는 건축에서의 요소와 일치하는 것이 많다.

빛에 대한 연출이 그렇고 카메라 앵글에 대한 기법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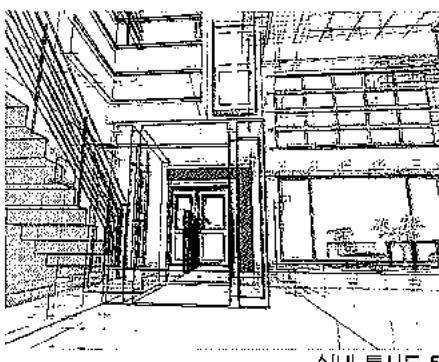
그래서 영화속에 건축물이 배경이 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영화와 건축은 상호관계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주택 금동 28-2은 같은 건축주의 다른 프로젝트를 협의하던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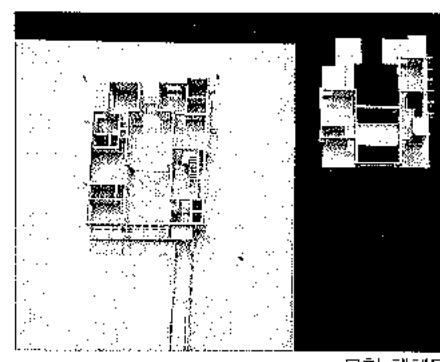
“저아 뭘 압니까? 제가 이리쿵 저리쿵 말이 많아지면 설계가 잘되질 않을테니 전문가가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그러나 건축주는 외국유학까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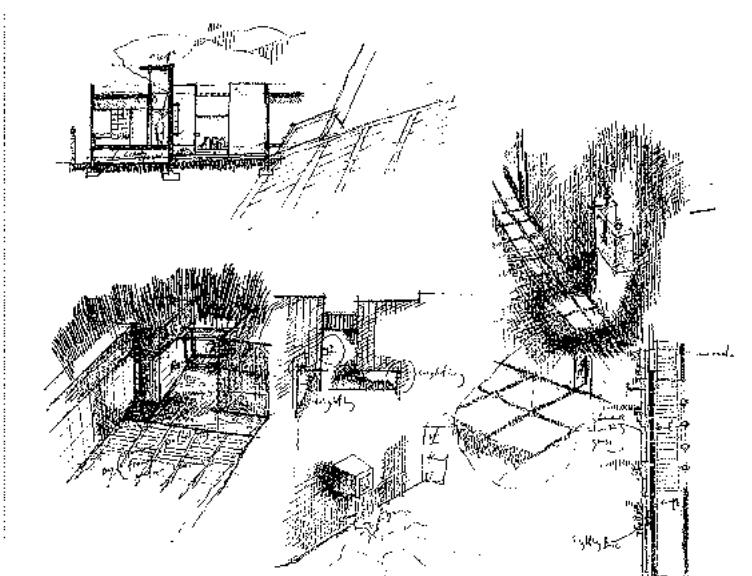
실내 투시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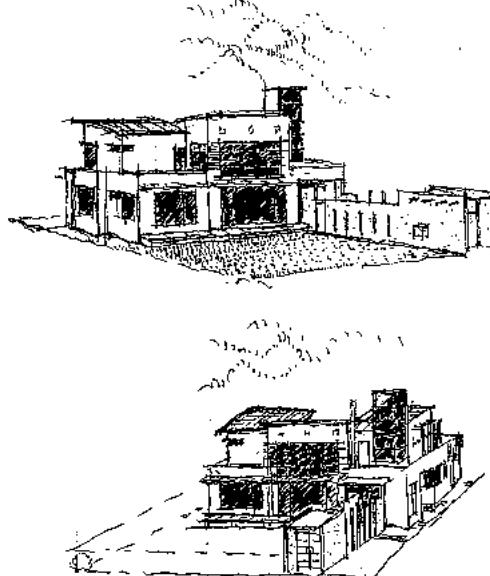
실내 투시도 5



모형 해체도



부분 스케치



스케치

감각있는 인테리어였다. 겸손속에 뼈를 물어서 한 얘기였을 뿐이었고 즉시 나는 소중한 건축주를 위한, 그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할 공간을 위한 Scenario를 만들기 시작했다.

1996년 이충기+박명협의 주택

금동 28-8주택의 진입은 대지 우측에 위치한 노출 콘크리트의 벽과 얇은 캐노피 판으로 된 어두운 상자 밑을 통과하면서 시작된다. 위로 좌우벽과 캐노피 사이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느끼면서 좌측의 벽이 엔트ランス 홀로 거칠없이 터어 박히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방문자는 노출콘크리트의 벽 틈새로 들어온 빛과 기둥의 반복적 리듬감을 맛보면서 빨려들어간다.

현관은 어둡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식당 그리고 거실로 연결되는 엔트ランス홀은 아주 밝다.

왼쪽으로 옮겨 거실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우드텍으로 된 중정이 보인다. 이내 방문자의 시선은 중정 대각선 모서리에 위치한 깨끗한 대리석위의 학사한 꽃 한무더기와 수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찰랑이는 수공간이 보인다. 이 수공간에 구름이 담은 하늘이 떠 있다. 다시 그너머 중정의 좁혀진 숨통사이로 장독대와 담, 그너머 월명산… 여기서는

잠시 앉아서 쉬고싶다 관조하고 싶은 자리다.

그런데 마당은 없나? 하고 돌아서는 순간 파랗게 깔라진다가 한그루의 나무를 밟치고서 웃는다.

마당이다. 진입측인 벽으로 거실에 와서야 볼 수 있도록 마당을 가려놓은 것이다.

다시 중정으로 내려선다. 벽으로 둘러싸인 중정은 월명산쪽으로 숨통이 트였고, 뒷집, 벽과 마당이 가로막는다. 그래서 장독대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하늘을 본다. 갖한 공간에서의 하늘은 참으로 귀하다.

거실에서 좌측은 할머니방, 주인안방 침실, 우측은 계단, 식당, 주방을 배치하여 퍼블릭한 공간과 프라이빗한 공간을 분리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부의 각공간에서 중정을 바라보는 느낌은 모두 다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지붕을 뚫고 솟은 빛 우물을 통해 쏟아지는 빛아래서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계단은 어둡게 느껴지지만 상부의 작은 창의 빛은 염숙하다. 2층으로 올라서면 빛우물을 통해 들어온 빛 천정면을 반사면으로 삼아 들어오고 우측으로 돌려 가족실로 들어서면 1층에서 보았던 장면이 미당과 중정으로 순서를 달리하여 다시 눈에 들어온다. Level을 달리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가족실은 1층거실 위를 가로지르는

브릿지형태로 되어있고 좌우측 모두 테라스로 연결된다. 테라스로 나와서 하늘을 본다. 그리고 뒤 돌아서 움직여 산을 본다.

그리고 중정을 다시 내려본다. 그리고…

나는 금동 28-8에서 밝음(빛)과 어둠(그림자), 단힘과 열림, 연결과 단절, 높음과 낮음 등의 요소를 가지고 방문자를 속도감있게 공간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하나를 들통이게 하자면 그 배경은 당연히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해야한다. 이를테면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종류를 만들어야하고 그렇게 해야 그 빛이 소중하고 엄숙하고 부드럽고 강한 빛으로 종류를 달리하여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적 성격 요소를 교차시켜 나간 것이다.

방문자는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속도감, 리듬감, 여러가지 공간 지각(공간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간 공사단계에서 불안한 조짐이 엿보인다.

건축주에 대한 나의 의무감이 시험대에 오를참이라 올 하반기는 현장에서 나의 고함 소리와 애원(?)이 막치소리에 묻힐지라도 실컷 욕이라도 해야 할성 싶다.

연세정형외과

Yonsei Orthopedic Hospital

심우근 / 건축사사무소 도울건축
Designed by Shim Woo-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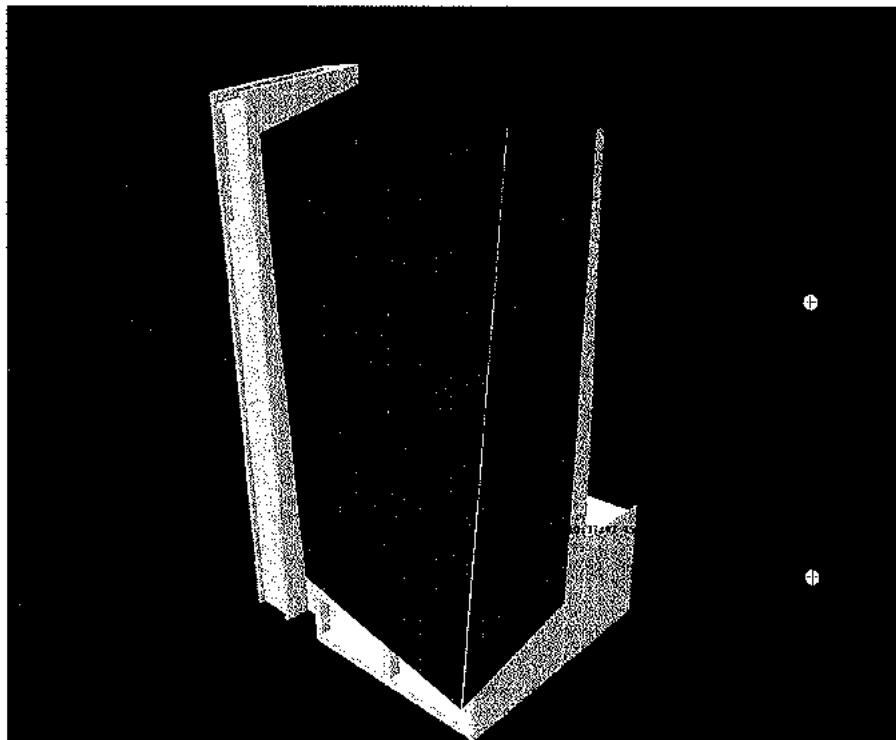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61-2
대지면적 / 524.2㎡
지역 · 지구 / 알빈주거, 2층 미관지구, 수평고도, 도
시설계, 주차장 정비지구
규모 / 지하2층, 지상9층
건축면적 / 233.9㎡
연면적 / 2,295.0㎡
건폐율 / 44.6%
용적률 / 321.8%
용도 / 근린 생활시설(병원)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 / 23대
마감 / THK 18밀리 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희강석

Location / 661-2, Teungchon-dong, Kangseo-
gu, Seoul
Site Area / 524.2m²
District / Houses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9 Stories Above Ground
Bldg. Area / 233.9m²
Gross Floor Area / 2,295.0m²
Bldg. Coverage Ratio / 44.6%
Gross Floor Ratio / 321.8%
Use / Neighborhood(Clinic)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Parking / 23 Cars
Exterior Finish / THK 18mm Color Double
Grazing,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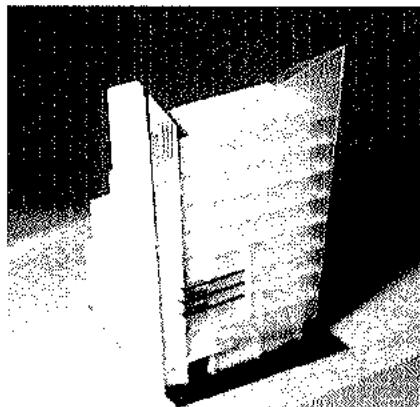
88체육관과 마주하고 있는 대지로 전면
에 40m도로와, 후면에 8m도로를 끼고 있
으며 미관지구로 인한 3m 건축선후퇴와
정북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받는
다.

건물은 김포가도에서의 인지도를 고려,
전면에 수직적 상승감이 강조된 부정형의
반투명 Mass를 사용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의장요소를 부가해 불안정한 수직성을 다
소 감쇄시키는 효과를 꾀하였다. 배면에서
는 단계적인 구조노출을 통해 저층부와 고
층부의 마감을 달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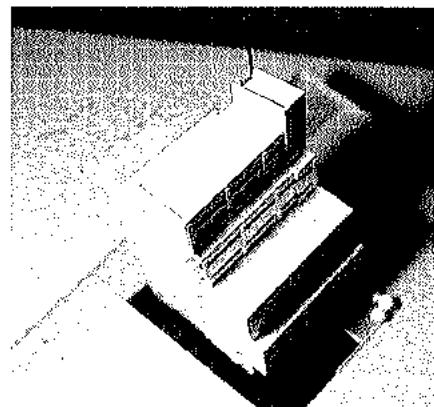
저층부는 병원으로 사용하며 상층부는
임대의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었
다. 주차는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후면의
4m도로를 이용하여 지하에 기계식 주차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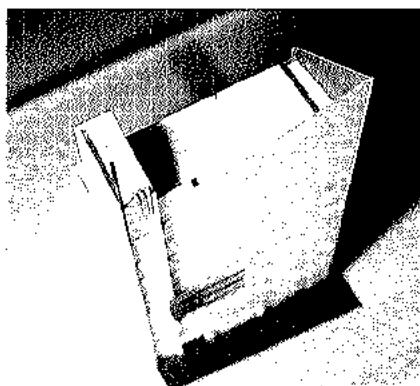
기본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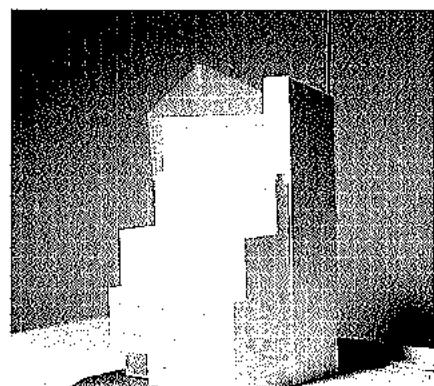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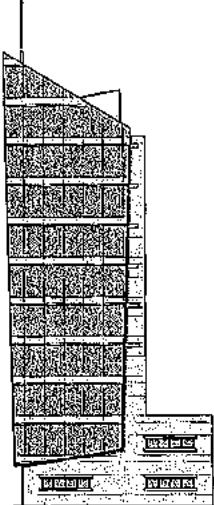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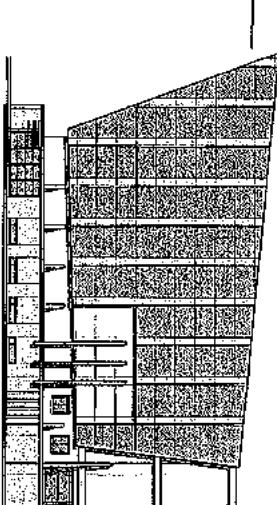
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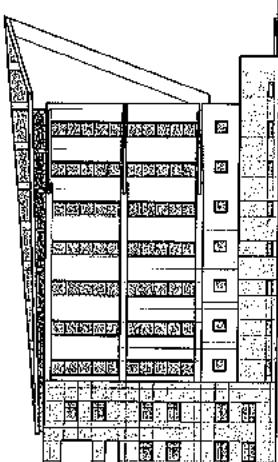
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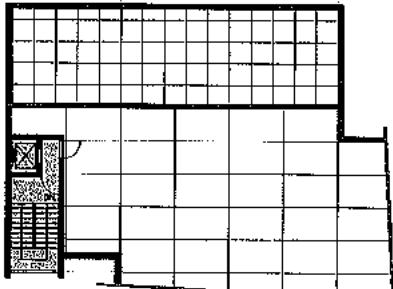
우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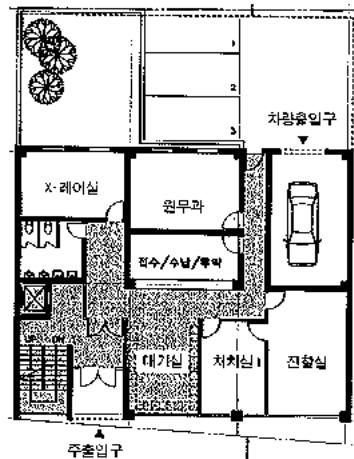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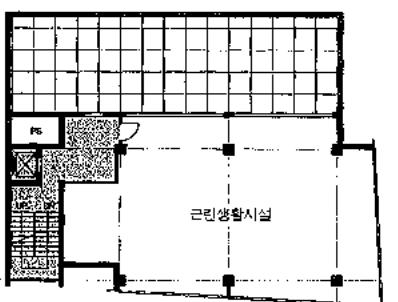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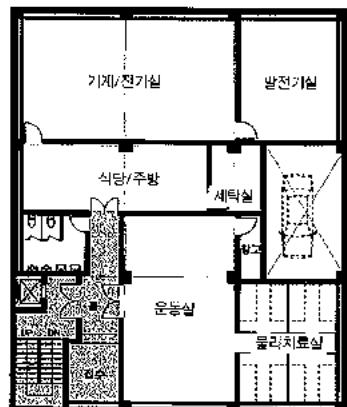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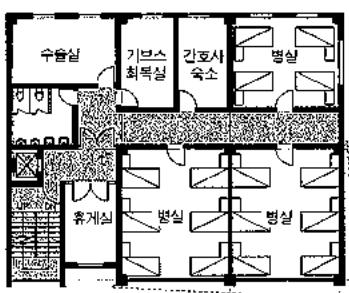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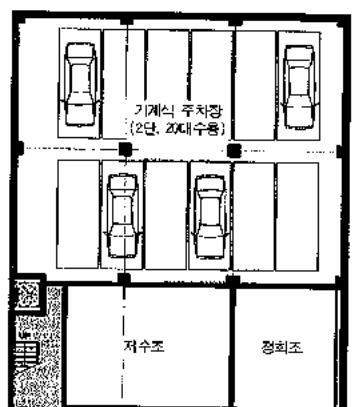
3~9층 평면도



지하 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K동 다목적 회관

K Multi-Purpose Hall

박영준 / 건축사사무소 으반(다전)
Designed by Park Young-Jun

대지면적 / 1,443.00m²
지역 · 지구 / 자연 녹지 지역내 개발제한 구역
건축면적 / 483.71m²
연면적 / 1,990.51m²
건폐율 / 33.52%
용적률 / 102.48%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터스(일부)
외장재료 / TNK 30mm 화강석 베니규이, 물갈이
TNK 18mm 칼라 복층유리
주차대수 / 옥외주차 23대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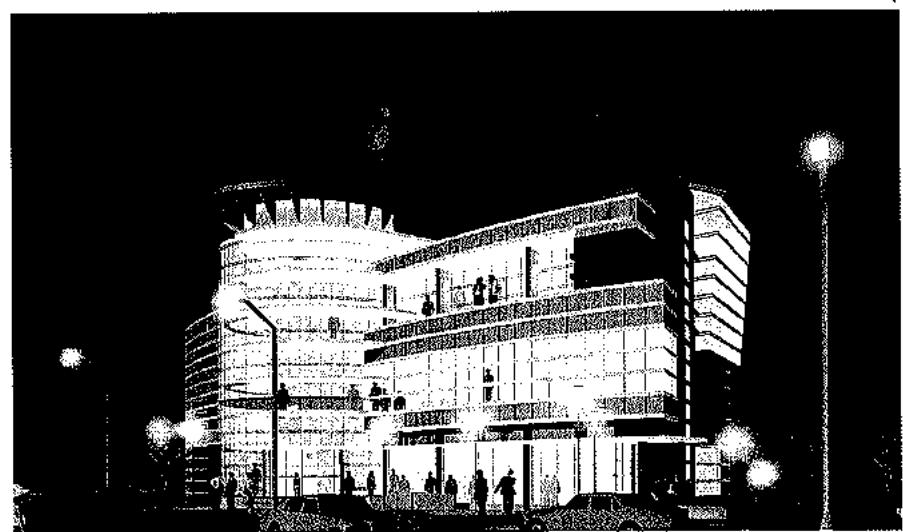
- 토지 이용 계획
 - 주변의 동사무소와 상호 왕래가 가능하도록 배치
 - 건물 주위에 옥외주차장을 두었으며 주민 휴게공간, 녹지(조경) 시설 배치
- 동선계획
 - 전 · 후면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 스런 접근성 유도
 - 차량의 In, Out의 분리
 - 통행인과 차량의 분리 및 자연스런 유도
 - 각층의 기능적 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 계획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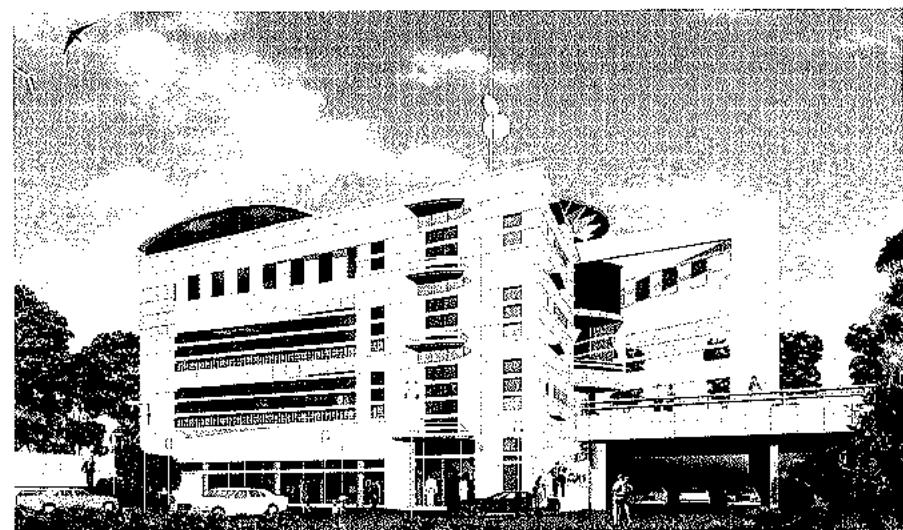
- 다목적회관의 공간을 수용하는 평면 계획으로 공간의 융통성(Flexibility)을 확보하여 시설 변경에 따른 건축 공간의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구성
-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을 고려한 여유 있는 휴게 및 로비 공간과 복도등을 고려하며, 1층에는 전시 · 홍보 공간 구성
- 장애인을 위한 Ramp 및 엘리베이터 설치
- 집중Core계획으로 수직동선의 간결화와 내부공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
- 계단실 및 남녀 화장실의 분리계획으로 피난계획과 프라이버시를 확보, 통행인과 차량의 분리 및 자연스런 유도
- 경제적인 구조 Span계획으로 기둥 및 단면 설계에 유리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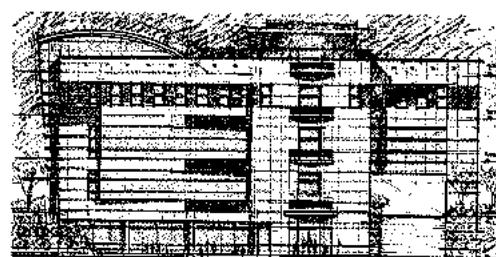
투시도 2(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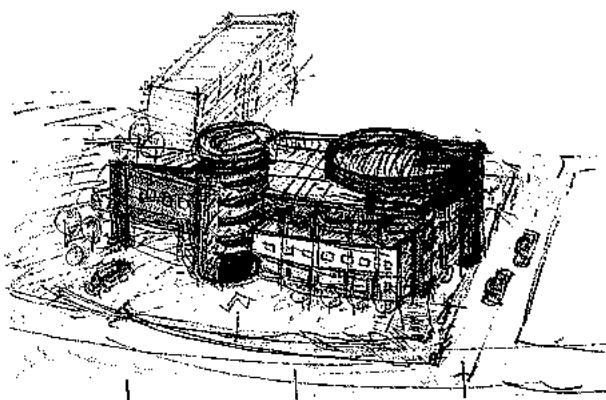
투시도 3(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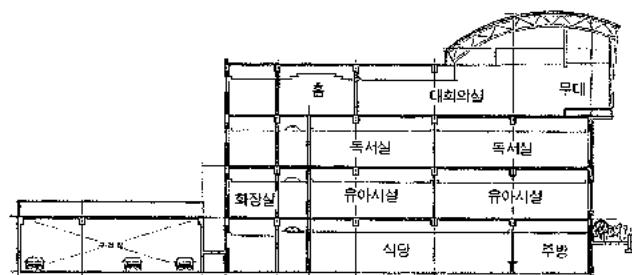
일면 스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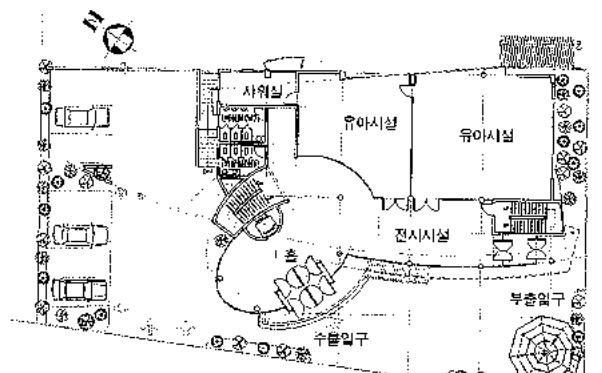
일면 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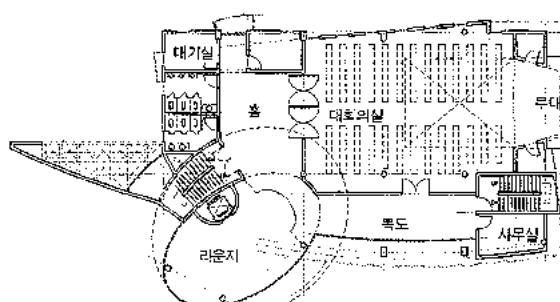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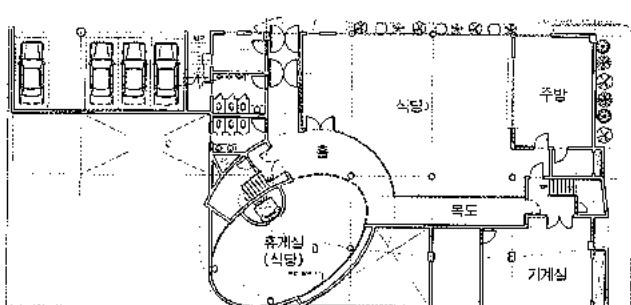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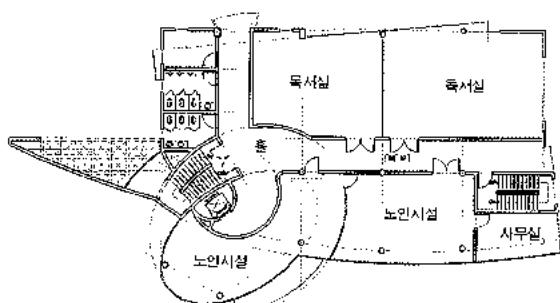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건축가는 다방면에서 깊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어느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재능을 가져야 한다고 선배들이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글재주가 없다.

물론 학창시절엔 글솜씨를 발휘하여 몇번의 수상경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경력(?)일 것이다.

어느 한가지만 잘하면 입학할 수 있는 일본의 어느 대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매우 뜻깊게 생각되어지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대학을 나와야,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다. 김매고 추수하는 농사일은 농사일에 오랫동안 전념하고 땀흘리며 노력한 농부가 제일 질해낼 터인데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농사를 잘짓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건축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건축에 얼마나 빠져드느냐, 노력하는냐, 고민하는가,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맡기는가 하는 것이 훌륭한 건축가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일게다. 물론 그외의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겠지만 …

그러나 건축을 사랑하고 투자하기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조금이라도 설계비를 낮추려는 건축주, 어쨌거나 빠른 시일내에 적당히 시공해서 시공비 챙기고 떠나려는 건축시공자, 그러면서도 최고의 건물 운운하는 사람들. 또한 시간이 없다며 재촉하는 장사꾼들. 공장에서 고무신 찍어내듯 척척 만들어 내길 기대하는 상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건축을 해보려는 순정파 젊은 건축가들을 억누르는 지배자 역할을 참 잘도 수행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위를 모자이크하는 건축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나의 작업은 두려운 내일, 두려운 작업의 연속이다.

많은 잡지와 인쇄물을 통하여 쏟아지는 건축작품들을 본다. 비평하는 이나 건축가나 왜 그리 스스로 세련된 사람들이 많은건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난언은 왜 그리 많이 사용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건축은 쉬워야 한다.

건축은 갑작적인 작업이고 즉흥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인간에게 가

건축은 고민하는 작업이다

Architecture is Work in Agony

이성인 /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의
by Lee Seong-in

장 가까이 있는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시인이 필요해서 집을 짓듯이, 비를 피하기 위해 지붕을 덮듯이 건축자체는 쉽고 편안한 것이어야 한다.

잡지사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완성된 작품의 스케치 작업을 왜 새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

건축 초년생 시절 상사가 요구하는 것에 단하나라도 나의 것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시절들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투쟁인지 나의 아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제는 그런 고민이 아닌 건축가의 길과 사업가의 길에서 방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낭하고 있다. 직원들 봉급 걱정, 일에 대한 수주 허가권자와의 관계유지… 이런 걱정없이 건축에만 몰두할 수는 없을까?(이 이야기에 대해 서울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상의 문제점이 있다.)

몇년전 부산 O-O호텔 계획중 건축팀, 설비팀, 구조팀 등등이 함께 모여 계획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 도중 건축팀장이 “이곳은 국제적 관광지 이므로 욕실을 크게 하고 특히 욕조는 2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변경하자”라고 말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그말이 농담같이 들렸는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나는 그 팀장의 말에 깊이 동감했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 할수 없었다.

건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시절 어느 교수님 말씀이 떠오른다

지오퐁티의 「건축예찬」을 대학시절에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그중 건축과 종교라는 글에서 비문화적이고 화가도 아니며 예술가도 아닌 농촌의 농부들이 예배당의 벽화를 손질한 기적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농부들의 깊은 신앙과 열정·헌신이 원래 그림을 그린 삶의 열정과 같았기에 그결과 똑같이 아름다운 벽화를 재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신앙의 문세이며 결코 기적은 아니나 리는 생각은 저자와 같은 것이었다.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작업행위도 마찬가지 아닐까? 건축에 대한 열정, 신앙심(?) 절대자에 대한 겹히함 같이 건축행위

앞에서 피조물과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축은 쉬워야 한다. 깊은 겨울, 늙은 잔디밭에 눈이 하얗게 쌓이고 아침이 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다.

어느 일정한 지점을 오가는 행인의 발길은 직선이 제일 가까운 길일텐데 결코 직선을 이루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 이것을 슬라롬이라 한다. 길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걷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물에서 그곳을 올라가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멀리 바다가 보고 싶다면 벽면을 개방하고 전망시설을 만들고 쉬고 싶은 욕망이 든다면 휴식공간을 만들어여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작품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나의 대답은 늘상 똑같다 “아직 내 작품은 없습니다”

사실이다. 아직은 나의 작품이라고 할만한 것은 전혀 없다. 이제까지의 작업들의 결과는 부끄러운 산물일 뿐이다. 내나이 약 50대쯤이면 내작품이라고 할만한 것이 생길까? 다행이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아직 시공중이거나 시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승효상씨의 작품인 수출당이 참좋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미술평론가인 건축주 유홍준씨의 건축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았고 건축을 보는 눈,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가를 알아주는 모습이 좋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건축가와 훌륭한 건축주의 만남이라고 본다.

건축은 고민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공부며 정답도 없고 완성도 없다.

그래서 건축은 매력있으며 해볼만한 일이다.

그 매력에 빼해 오늘도 늦은밤 나의 작업실은 불이 밝다.

한국의 건축가—박동진

Korean Architects - Park Dong-Jin

생애와 작품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l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생애에 대하여

박동진은 1899년 4월 29일 平北 定州에서 출생하였다. 1915년 3월 定州 五山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17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에 입학하였다. 이 당시 건축학을 택하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거의 그 러하였듯이 박동진도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없이 上京하였다가 선배들의 충고가 진로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본래 선비집안의 출신이었으며, 중학교 졸업후 문학을 선택하여 일본의 대학에 유학을 갈 예정으로 입학원서를 내 놓고 渡日途中에 서울을 들렀다. 서울에서 만난 선배들에게 도일유학 준비중이며, 고학을 해서라도 문학을 공부하려한다고 상의하자, 선배들은 이제부터는 기술전공이 시내적 요청이며 평소에 미술을 좋아했으니 서울에 새로 생긴 경성공업 전문학교의 건축과에 진학해 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한다. 우선 시험을 보고 합격했으나, 원래 계획했던 것과 위낙 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고민하다가 주위의 권유로 입학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건축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이걸 공부하면 장래에 짐짓는 工人이 된다는 막연한 추측만을 가지고

있었다한다. 나만 그를 건축과에 자망하도록 하는 테에 유일하게 큰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중학시절에 배웠던 역사에서 미켈란젤로도 미술가인 동시에 위대한 건축가라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건축가가 되어서 모든 건물을 설계도 하고 시공에 참여도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서 지내는데 材料強弱時間에 '밴딩모우멘트'의 해설을 들었다. 이 단어부터가 어찌나 인상적이었던지 班友끼리 만나서 '밴딩모우멘트', '밴딩모우멘트'하고 인사 대신 '조우크'를 했던 기억도 새롭거나 또 意匠學時間에 '심메트리'라는 단어를 배우고는 역시 이 단어에 매혹되어 班友였던 金世演君과 같이 만나면서 '심메트리', '심메트리'하고 웃으면서 '조우크'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조우크'로만 여길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문에 대한 각각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론은 지식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

그의 학창시절의 마지막 해가 되었어야 할 1919년에 3.1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는 이 운동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앞장섰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반년을 지냈고, 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감하였다. 이어 그는 만주와 시베리아로 방랑 길을 떠났다가 1년 반 이 흐른 후, 배움을 다시 시작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귀국하여 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가 朝鮮總督府諸學校官制에 따라 학교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에 재입학하여 건축과를 다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1년을 보낸 후 1926년 3월 20일에 졸업을 하였다. 어찌 보면 박길용 보다 1년



박동진(1899년~1980년)

늦게 입학하여 경성고등업학교를 제2회로 졸업하여 초창기의 졸업생으로서 역할을 해 내었을텐데, 식민지의 청년으로서 펍박과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건축계의 일선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때 나이 27세로 순조롭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면, 경력 8년의 중견 실무자였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그는 졸업 후, 조선총독부 회계과의 기수로 취업하게 되었다. 졸업할 당시부터 건축가로서 커가는 자신의 모습과 심경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표1〉 박동진의 작품리스트

작 품	연 도
普成全文學校本館(現 高麗大本館)	1933~34年
朝鮮日報社社屋(現無, 現코리아나 호텔 자리)	1934~35年
雅敘園(現無)	1934年
普成全文學校圖書館	1935~37年
五山中學校本館(平北定州)	1935年
五山中學校大講堂	1936年
五山中學校科學館	1936年
中央中學校本館	1936年
中央中學校大講堂	1937年
明新中學校教本館(軼寧)	1937年
明新中學校大講堂	1938年
明新中學校寄宿舍	1939年
大田地方法院廳舍	1939年
平安工業學校本館	1940年
普成中學校別館教室	1940年
平安工業學校大講堂	1941年
京紡南川工場(南川)	1942年
李聖鳳小兒科醫院	1942年
白麟濟外手術室	1944年
榮樂教會	1948年
南大門教會	1954年
高麗大學校早午建物	1955~196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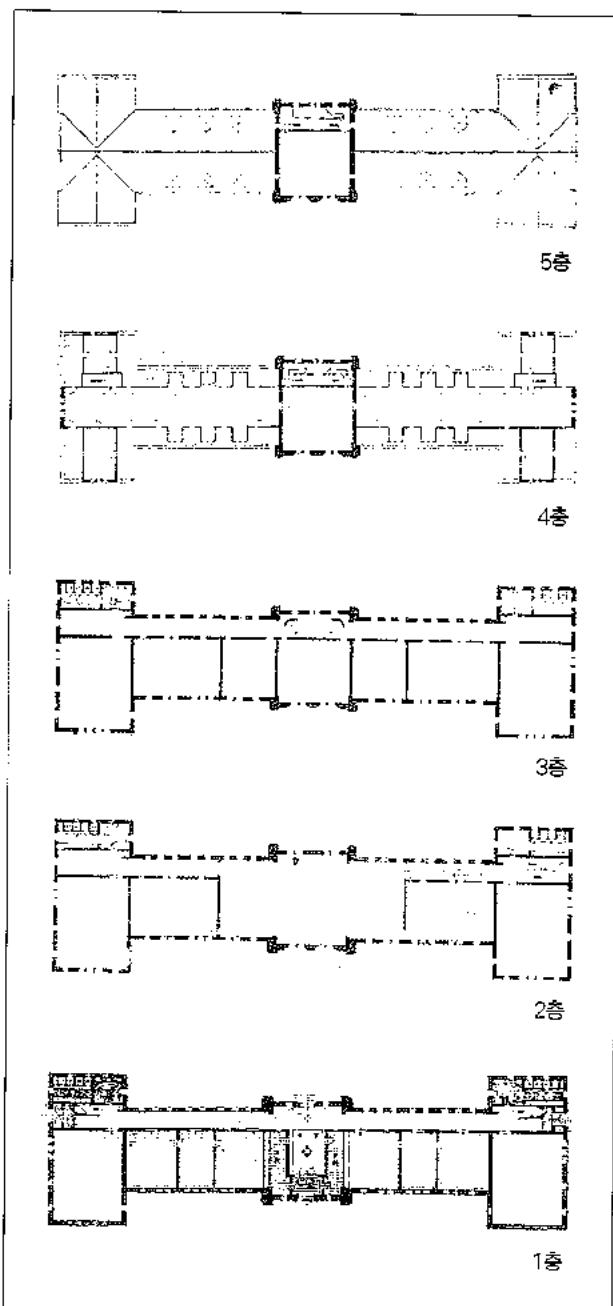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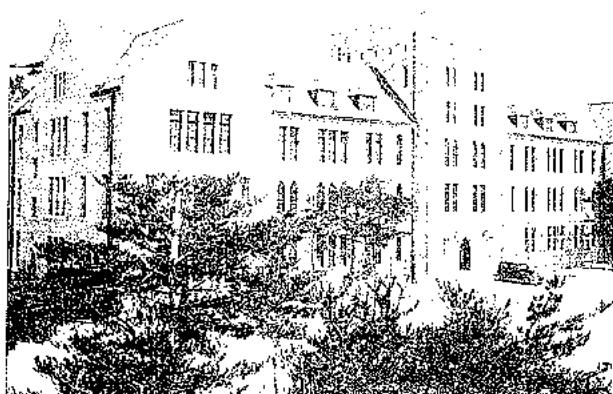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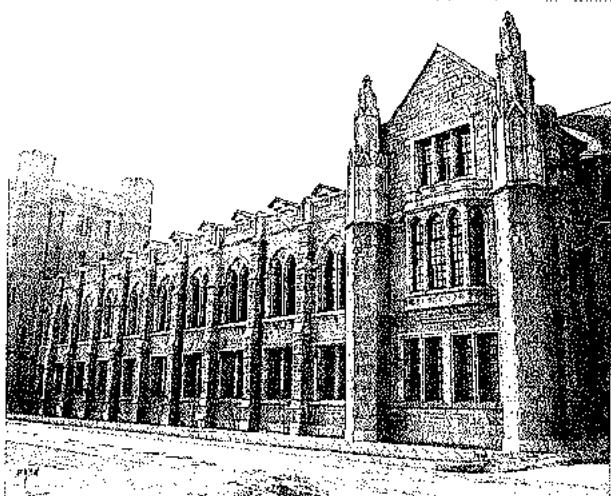


그림 1. 보성전문학교 평면도



보성전문학교 본관(1935)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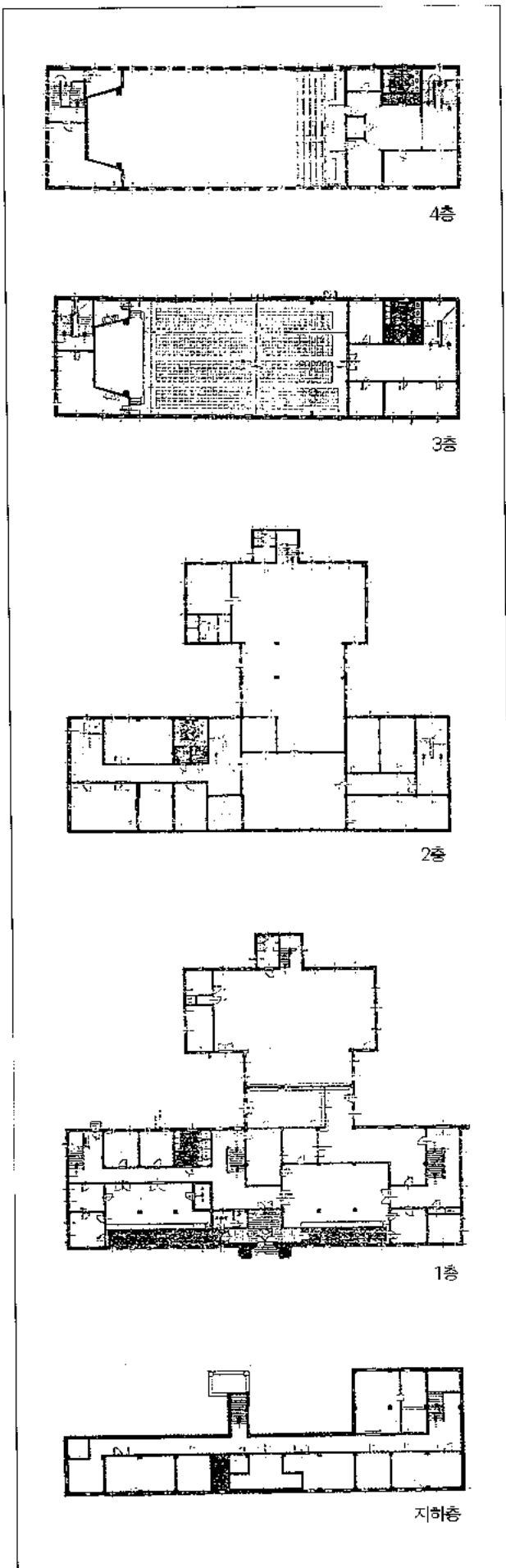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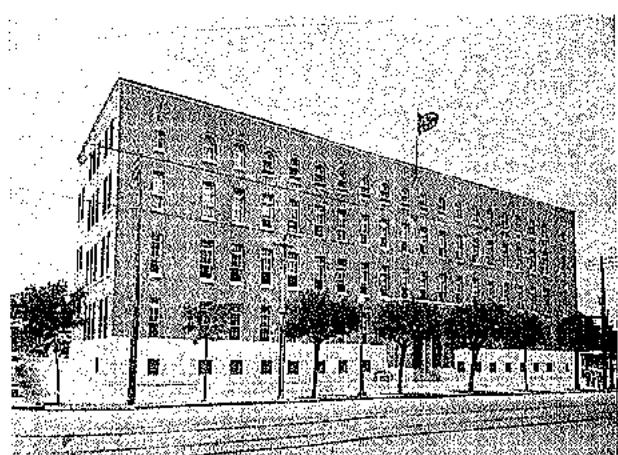


그림 2. 조선일보사옥 평면도

… 어느덧 나머지 1년도 끝나고 졸업시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하게 된다는 것도 몰랐다.

… 학교 당국의 韓旋으로 총독부 建築課에 취직이 되었다. 이렇게 졸업이라고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건축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정의조차 파악치 못한채 그런 대로 취업이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직업인이 되어 생활수단도 해결이 된 것이다. 이것들도 예기치 않던 현상이었다. 이제 나는 현실에 충실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동료가 된 그들(일본인-필자 주)의 집무태도를 배웠다. 십년을 두고 실무 즉 설계도 배우고 시공법도 배웠다. 이러는 동안에 건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터득했다고 생각하고 건축가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1936년 4월에 기사로 승진하고 1938년 4월에 총독부를 사직할 때까지 그는 실질적인 건축수업을 총독부에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총독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많은 프로젝트에 관여하였을 것이나, 이 기간 중에 박동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본관과 도서관을 설계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의 한인 사회의 건축전문인으로서 과외의 일을 통하여 민족을 위해 이바지했다고 여겨진다. 즉 <표1>에서 보다시피 총독부에 재직하고 있던 1938년 이전에 관여하였던 작품이 그 이후 시기의 (광복전 것만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작품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작품은 민족교육을 실현하던 학교건축이 대부분이며 더구나 고향을 중심으로 한 지연과 한인들 사이의 연고에 의해 연결된 일들을 주로하였다. 이는 공직에 있으면서 난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문인으로서 민족을 위한 봉사로 행한 일들이라 생각된다. 1938년 5월, 대평건물주식회사를 창립하여 건설사업에 손을 대었다.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고향 정주에 토지를 수만평 구입하여 노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1945년 8월, 46세때 광복을 맞았으나 38선 이북에 속해 버린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6.25를 겪으면서 혼란을 겪었다. 광복 다음해인 1946년 5월에 박동진 건축연구소를 자영하고, 1951년 3월부터



조선일보 사옥(1935년)

는 대구에서 개교한 청구대학 토건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였다. 그 후, 1961년 당시의 젊은 후배들과 함께 純新建築研究所를 개설하여 대표직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초에 그는 약 1년간 구미 각국을 돌아보고 귀국하였는데, 국내의 모든 정세가 변해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후배들에게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1975년에는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작품상을 수상받았고, 80세때인 1979년 봄에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가 1980년 5월 30일 향년 81세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타계하였다.

작품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총독부에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관여하였던 작품들 중, 당시의 한국인들이 설립한 민족 학교들이 대다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성전문학교 본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그의 부친과 친교가 있는 仁村 金性洙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 보성전문학교 교사를 설계하게 되었다. 중앙학원을 인수, 안암동 일대에 70여만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보성전문 교장에 취임한 지 1년반에 인촌은 보성전문의 신교사 본관을 계획하고 한국인 건축가 박동진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을 박동진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33년 늦은 가을 어떤 날, 내가 맡아 감독하고 있던 某親友의 주택건축 현장에 (인촌)선생이 나타나셨다. 매일 같이 오셔서 구경을 하고 가시곤 하였다. 여기에 현상윤(당시 중앙중학교 교장-필자주)씨가 나오셔서 나를 소개해 주어 선생을 알게 되고, 그 후부터 주고 받은 회화가 지속된 것인데, 그 당시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아신 모양이었고, 또 나로서도 선생의 胸中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도 해 보지 못하였다.. …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나는 나도 모르게 선생의 사고방식에 합치되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취하지 않기로 하자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견실하자는 것, 무계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基地로서 70만여坪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생의 의도하에 모두다 성취된 것이다.

석조건물이 아니고는 고려대학교의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선생의 持論이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론과 그 기획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 일찌기 저 본관과 도서관이 완성 되었을 적에, 일본인이 선생을 찾아오면 기필코 안암동으로 끌고 나와서 이 건물들을 보여 주시곤 하시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이 '설계자는 누구인가' 물으면 '이것은 조선인 某가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상대방이 혹 의아한 표정을 하는 때에는 선생의 心中에 폐재를 부르시곤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양인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상대방이 물어 보지도 않는 말을, '이것은 한국사람의 손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자진설명을 하시던 것은 선생으로서는 최고 만족표시의 나이었었다. … ('인촌 김성수'에서 제인용)

그리고 또 한군데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 우선 본관부터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다. 선생이 구비 각국을 歷訪하시면서 얻으신 腹案은 우선 석조건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만해도 서울에 석조건물이라고는 옛 조선총독부(원문에 '현 중앙청'이라 쓴 것을 편의상 고침-필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던 때였다. 나는 석조건축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탐색하고 연구했다. 우선 재료의 적절한 용법과 구조의 合理 등은 물론이려니와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더욱 맘서린 점도 많았다. 내가 최종 결정짓고 실설계에 착수했는데 선생의 의견도 많았다. 여러 면으로 절충해서 案出한 것이 현 고려대학교 본관이었다. 건물과 자연의 조화와 그 구조와 재료미의 일치의 형식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외관상 態口의 배열이라든가 평면에 억지가 있는 것은 선생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나는 지금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만 싶다. 그 후 고대 도서관이라든가 여타 건물들의 석조건축에 대해서는 선생께서도 설계면에 일절 간섭을 하지 않으셨고 나도 자신을 얻게 되었다....

(대한건축학회지 '특집 : 30년회고 "중에서")

선각자 인촌은 이처럼 보성전문학교 본관설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관여하였다. 어찌보면 절반 정도는 건축주의 설계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33년 본관 신축을



중앙중학교 본관



영락교회(1948년)

마음먹은 인촌은 민족 건축가가 보성전문의 건물을 설계 해야한다고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박동진을 자신의 자택 신관 2층에 起居케 해놓고 약 두달동안 침식을 같이 하였다. 건축에 남다른 취미와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인촌은 구미여행중에 찍어온 각국의 대학건물의 슬라이드 사진을 가지고 토론했고, 박동진과 의견이 추돌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어떤 때에는 화가 난 박동진이 “그럼 선생님이 설계를 하십시오”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었다.

박동진의 작품은 조선일보사옥(1935년 作)과 같이 모년한 건물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석조건축물이었다. 양식적으로도 보성전문학교 본관에서부터 비롯된 네오 고딕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향인 평북 정주 의 오산중학교 각교사와 보성전문과 같은 재단의 중앙중학교의 새로운 본관(구 본관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헤이 의 설계로 빨간벽돌 건물이었으나, 화재로 소실된 후 박동진설계로 석조건물이 건립되었다)에서도 일정한 스타일의 설계안들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건축물들은 광복후에도 계속되어 영락교회, 남대문교회에서 그의 특기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작품 경향, 특히 학교건축에서 고딕양식의 석조건축이라는 공식이 폐나 오랫동안 이 나라의 교육기관의 건축문화를 이끌었다. 광복전후에 세워지는 학교건물중, 일본계의 관립학교들은 빨간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나, 민족 자본으로 세워지는 학교들은 석조로 세워지는 것들이 많았음은 보성전문과 그 설계자 박동진의 영향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무리

박동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사옥과 보성전문학교의 건축개요가 나란히 실려 있는 朝鮮と建築의 1935년 9월호에는 두 건물의 주요 사진과 도면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朝鮮總督府施政 25周年記念 博物館建築設計圖案 懸賞募集'의 안내문이 들어 있다. 그 대지는 명성황후의 시해장소인 경복궁 내의 북쪽끝이며, 현상설계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중 '건

물의 양식은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하여 동양취미를 가미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경복궁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라는 것 보다, 당시 대동아공영권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이 그들의 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만주)과 조선에서 건축적으로 공들여 이론적 작업을 해오던 '제관양식' (합리주의적 현대식 건물에 자봉만 기와지붕을 얹어 동양적인 기분을 내는 디자인)의 건물 한 개를 식민지배 4반세기를 기념하면서 조선의 궁내에 세우려한 것이다. 결국 당선자는 일본인이었고, 그들의 전쟁수행 때문에 전체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건설하였다. 현재 경복궁내의 북쪽 끝에 있는 '민속박물관'이 바로 그 건물이다.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내놓기 시작한 때에 '시정 25주년', '동양취미 윤운' 하며 조선의 궁을 다시 한번 유린하는 일인들의 지배를 경험하며, 그는 대한건축학회 30주년에 후배들에게 '우선 모든 아론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야를 넓혀서 많은 작품에 접촉해서 豐實한 아이디어를 길러 둘 것', '문화의 자주성을 찾아, 차원 높은 견해로써 국제정체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충고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다며 건축가들이 솔선해서 이런 방면에 앞장서서 愛護運動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서거한 다음달인 1980년 6월에, 당시 대한건축학회장이던 윤장섭교수는 학회지의 추모란을 통하여 '박 선생님이 자주 되풀이 하시던 이야기중 "건축가는 항상 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의 인자하고 은유하며 조용한 가정적인 생활태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정진하려는 건축가로서의 의욕이 불타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분의 인생행적은 우리 후배건축인들의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애도하고 있다.

(본문의 인용은 : "인촌 김성수"-인촌기념사업회 刊(1976), '대한건축학회지 75년 8월호' "특집 : 30년회고", "대한건축학회지 80년 6월호", "고 박동진 참여이사를 추모함" 등을 참조함)

1. “마당”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마당의 始作
그것은 마당의 끝이다.

마당은 모두의 가슴에 살아있다. 그 마당은 그리움으로, 추억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남아 여전히 숨 쉬고 있다. 우리가 자라면서 마당을 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마당을 지날 때 맨발에 다가오는 그 바닥(흙)의 감촉이 더욱 좋았다는 소중한 기억도 지금까지 갖고 있다. 또한 사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마당은 그때 그때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집안의 대소사로 인한 마당의 역할과 기능은 그 자체가 인생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마당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다. 지금 우리의 마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만 과거의 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남게 되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기 까지에 이르렀다. 이제 – 그렇게 좋았던 마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모두는 알고 있다.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구성원리 (1)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1.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2. 마당의 개념

2-1. 마당의 정의

2-2. 채와 마당의 문화

2-3. 마당의 분류

3. 전통주거 마당의 주거원리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4-1. 마당의 유형분석

4-2. 마당의 형태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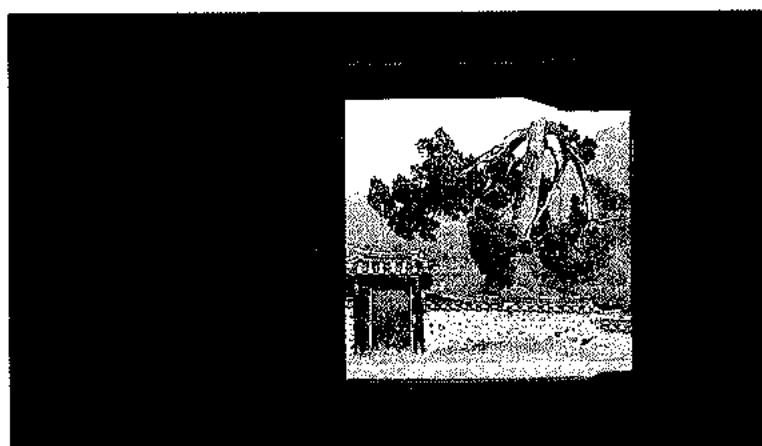
4-3. 마당의 규모

맺음말

비어있음의 마당- 傳統住居의 마당은 비어있기 때문에 存在한다. 그 빈공간은 여백으로 남겨져 있으나 곧 채워짐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마당(안마당)으로써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빈 부분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당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채와 어우러지는 마당- 마당은 (빈)채와 더불어 (빈)마당의 공간이 함께 존재한다. 그것은 한쌍을 이룬다. 채는 마당보다 먼저 생긴다. 마당은 채의 문화로 인하여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은 나중에 자리 잡는다. 채와 함께하는 마당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켜를 갖는 마당- 마당은 중간에 하나의 켜를 갖고서 빈 공간들 사이<(안)마당과 대청과 (뒷)마당의 3개 領域>를 貫通한다. 이 빈 것은 공간의 흐름(氣)을 물고가는 “휘모리 空間性”을 갖는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열린공간이 되게 한다. 흙의 마당 - 전통주거의 마당은 결국 “빈것과 自然”이 하나로 만난다. 이 둘은 모두 비어있다.

이 빈공간성은 마당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흐물고 간후에 다시 마당으로 되돌아온다. 이 정신적인 공간의 맥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전통주거의 마당은 “있는 것”(存在)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황단의 사랑마당. 안마당에서 사랑마당으로서의 열린 공간은 사간에 사랑대청의 켜를 갖고 있다. 그 열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的 의미일 것이다.

것”(所有와 存在)이다. 그래서 흙의 바닥을 가지고 있다. 그 땅은 생명을 의미 한다.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의 포장은 땅의 숨을 끊어지게 한다. 흙은 대지이고, 그 흙을 가진 마당은 작지만 작지 않은 땅으로서 어머니의 품을 닮기도 한 우리의 고향이다. 흙은 처음에 우리가 나온 곳이고 나중에 돌아갈 곳으로서 남게된다.

(1) 연구의 목적

韓國 傳統住居空間 考察의 시작은 대체로 한반도의 新石器 時代인 B.C. 3,000년경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이 시점으로 본다면 유적지로 나타나는 半地下 積穴住居의 터로서, 내부에는 원형에 가까운 平面을 갖는 構造가 될 것이다. 보통 집의 바닥은 지표면 아래 30~100cm로서 형성되었으며 이 당시는 외부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寒署나 風雨를 피하기 위하여 민감한 准備를 하여야 하였다. 中央에 火爐를 두어서 취사와 난방에 사용하였으며 그 주변은 저장 구멍을 만들었고, 공간의 구성은 單室이었으며 이런 농경 생활은 점차 불편함에 따른 기능을 구분¹⁾하는 공간 분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 주거사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기능 분리(단실 주거 속에서도)는 건축 胎動이란 면에서 空間의 “작은 分化”라는 의미로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문화의 出發은 그후에 채(棟)의 분화라는 한국 전통건축의 독자적인 마당 構成으로 까지 連結 되었음을 볼 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채와 마당의 구성은 하나의 같은 틀로서 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채와 마당을 별도로 보아서는 안돼는 한국적인 固有한 特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대건축 속에서의 마당과 채와의 개념은 서로 둘러어진 것이 아닌 함께 구성(채 앞에 마당)해야 하는 설계 방법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대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당은 대체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의 공간의 내용이, 마당과 정원의 불분명한 혼합된 상태이거나, 포장된 주차장이나 일부의 식재로서 대치되고 있는 모호한 내용으로서 처리되는 것이 그 현실이다. 마당의 그 기능상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마당의 성질을 폐쇄적인 공간 처리의 한 산물로만 취급해서는²⁾ 안될 것이다.

마당을 論하는 것은 곧 채(棟)를 指稱하는 것으로써, 안마당은 “안채와 안마당”을 말하며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사랑마당”을, 행랑마당은 “행랑채와 행랑마당”을 일컫는 것이었다. 마당은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다. 채와 더불어 채의 분화에 의해서 마당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본 연구에서 마당의 개념은 채와 더불어 구성되기 때문에, 안채와 함께 동반되는 □자형 平面의 마당은 당연히 안마당으로 하여 중정과는 구별하였다. 현대건축의 住居에서도 마당은 필연적인 것이며 應用해야 할 必要 不可缺한 要素임에 틀림 없다. 전통마당의 原理構造는 대단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요소들을 構成原理의 側面에서 마당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背景을 통하여 本 主題는 그 空間性과 構造的 秩序에 나타난 “마당의 構成原理”와 “形態原理”를 찾아내어 現代建



향단의 앞마당에서 본 하늘. 마당이 비어있음은 하늘도 비어있음이다.



연경당의 앞마당. 안마당은 치장하지 않은 흙의 바닥이다.

築에 應用할 한 方法論의 들을 마련함에 그 焦點을 맞추면서

1) 마당의 구성원리 가운데에서 마당의 특성을 分析하고 구조적 원리 파악은 물론 6마당이 갖는 의미와 그 形式 그리고 채와 마당이 갖고 있는 關聯性을 통하여 각 각의 마당이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여러 가지 類型分析을 통하여 그 구성의 기본적인 形式을 알아보며

2) 마당의 규모는 물론 그 型을 분석하여 각 채에 의한 마당이 어떤 유형을 갖게 되는지를 알아본 후, 그 마당들의 원형을 제시하며 어떤 원리를 갖고 형태 구성을 하게 되는지 그 범위를 抽出하고 마당의 적정한 크기를 算出하여 韓國 傳統住居空間의 마당 構成 原理를 파악하여 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한국 전통주거 마당의 事例 가운데에서 아직 유구의 상태가 좋아 分析의 진행에 문제가 없는 家屋중 조선시대의 傳統住居로 그 範圍를 정하였으며 또한 마당의 규모를 인지할 수 있는 주택(班家)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총체적인 범위로서의 住居 問題를 다루다 보면 채(棟)의 平面構成이나 구조적인 原理를 함께 다루어야

1) 朴彥坤, “韓國建築史講論”, 文蓮堂, 1993, 26쪽.

2) 鄭寅園, “韓國建築式樣論”一志社, 1991, 377쪽.

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되기 때문에 본 주제는 채와 등반되는 마당의 원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마당구성의 構造原理와 形態類型의 導出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대상 家屋은 현존해 있는 주택 마당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5세기의 孟氏杏壇을 시작으로 하여 김기용家屋의 1900년대 까지의 五白餘年에 걸쳐진 住居의 마당구성 원리에 관한 研究를 그 범주로 하였으며, 선별된 가옥은 朝鮮時代의 초기부터 16세기 말 이후 中期에 확립되었던 儒教思想의 영향권 아래에서의 주거로서 조선후기까지의 가옥이 꽂고루 분포되어 있다. 時代의 상황은 주거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禮의 重視을 통한 계급사회가 그 背景이 되었으며 특히 남녀 유별의 공간구분으로 나타나는 안채와 사랑채의 내외법으로 인한 채(棟)의 구별은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채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안마당이 중심이 되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형의 평면으로 □자형의 마당이 形成되었다.

〈표 1-1〉연구대상 가옥

No.	가옥명	건립시기	No.	가옥명	건립시기
01	孟氏杏壇	15세기	02	孫東萬家屋	1458년
03	醴泉權氏宗宅	15세기 말	04	南善당	15세기 말
05	이원용가옥	15세기 말	06	이희태 家屋	15세기 말
07	臨清閣	1515년	08	義城金氏大宗家	16세기
09	獨樂堂	16세기 초	10	觀稼亭	16세기 초
11	香壇	16세기 초	12	무첨당	16세기 초
13	忠孝堂	17세기 초	14	養貞堂	17세기 초
15	義城金氏小宗家	17세기 경	16	禮安李氏宗家	17세기 경
17	尹善道家屋	17세기	18	同春堂	17세기
19	齋月堂	18세기 초	20	寢室	18세기 초
21	朴槿家屋	1747년	22	尹拯古宅	1767년
23	雲島樓	1776년	24	金東澤家屋	1784년
25	金東周家屋	1786년	26	鄭在永家屋	18세기 중반
27	정병호가옥	18세기	28	秋史占宅	18세기 말
29	呂卿九家屋	18세기 말	30	金榮龜家屋	18세기 말
31	眞慶堂	1828년	32	船橋莊	19세기 초
33	臨贊堂	19세기 초	34	北村宅	19세기 중엽
35	김기용家屋	1900년대			

유교적 봉건사회의 질서가 해체되는 조선후기까지도 조선시대의 全 過程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儒教思想 때문에 모든 마당 구성 분석을 시대의 구분없이 같은 脈絡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研究 對象의 표본 家屋은 〈표 1-1〉에 나타난 35개 가옥으로 하였으며 마당의 원래의 모습이 변질된 것을 추

3) 徐有, 『林園經濟志』, 《應用志》, 민속원, 1991.

4) 朴彥坤, 『韓日佛苑造景共同研究叢書集』1992, 4쪽.

5) 分(의) 意味(『동아세계어사전』, 동아출판사)

1. 하나의 것이 진보 발달하여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이질적인 부분으로 살라지는 일.
2. 생물체의 조직이나 기관이 특수화의 방향으로 잘게 갈라져 발달하는 일.

사전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1과 2의 의미를 합친 “이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일”과 “특수화의 방향”的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종합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할것임.

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원형의 배치가 도면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가옥의 일부 채가 消失 되었어도, 그 터의 위치가 變形 또는 變質되지 않았다면 연구의 대상에 포함 시켰다. 특히 채의 구성에서 間의 모양이 바뀐 것은 본래의 도면을 참조하였다.

2. 마당의 개념

2-1. 마당의 정의

한국 傳統建築에서 마당의 정의는 徐有 (1784-1845)의 “林園經濟志” 16권으로 구성된 이 문헌의 9권인 섬용지(瞻用志)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住宅을 중심으로 하는 建築과 住居生活 도구 설치 제작법을 기록하고 있다.

庭除편에는 “三善”이라고 하여 마당의 機能과 형상을 잘 表現하고 있다. 그 原文³⁾을 보면 “凡治庭除, 有三善 三忌, 高下平正, 無凹凸仄窪, 易於水, 一善也. 嘴院不逼, 可以受日光, 列花盆, 二善也. 四隅平直, 無盃邪回曲, 三善也. 反於此者爲三忌.”라고 되어 있음을 (마당을 꾸미는데에는 3가지 좋은점과 3가지 괴해야 될 점이 있다. 일선으로는 높낮음이 편평하여 울퉁불퉁함이 없고 용덩이가 없어 물이 잘 스며야 한다. 이선으로는 채광을 받고 화분을 놓을수 있도록 마당과 담장이 가까우면 안된다. 삼선은 네거가 直角으로 직선이어야 하고 구부리지거나 곡선은 없어야 한다.) 알 수 있다.

한국 전통주거에서의 마당의 역할은 班家는 물론 民家까지도 주택의 내부공간과 함께 마당이 어우러짐으로서 그 特性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의 마당은 바닥을 전돌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돌 사용이 어려울 때는 자갈을 사용하여 무늬⁴⁾를 만들기도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韓國의 住居인 경우에는 채의 분화로 인한 각각의 고유한 마당을 소유하였고 마감은 치장이 아닌 흙마감으로 되어 있어 흙의 바닥이 되었다. 섬용지에 나타난 마당의 고유한 기능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動線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된다. 안마당을 통하여 안채를 출입해야 함은 물론 각 房의 출입은 마당이라는 空間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室들은 직접 외부와의 연결이라는 매우 특수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하여 마당은 반내부적 성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당은 연결동선의 역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흙마당은 편평한 땅이 되어야만 한다.

2) 作業과 生活空間의 마당이다. 앞마당은 물론 옆마당이나 뒷마당의 생활공간으로서 활용이 높아 마당은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수가 잘됨은 물론 물용덩이가 없어야 한다.

3) 適正한 크기로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우선 通風과 採光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알맞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마당은 너무 크거나 작아서도 안된다. 적당한 비례감을 가진 안마당의 크기에서 마당의 中心이 있다고 보았다.

4) 内모진 形態의 마당을 이룬다. 마당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폐쇄적인 안채의 안마당은 그

형태가 네모진 四角形의 마당을 構成해야 한다. 원형이나 타원형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상과 같이 庭除편에 나오는 三善의 定義는 마당의 가장 적정한 性格, 規模, 形態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2. 채와 마당의 분화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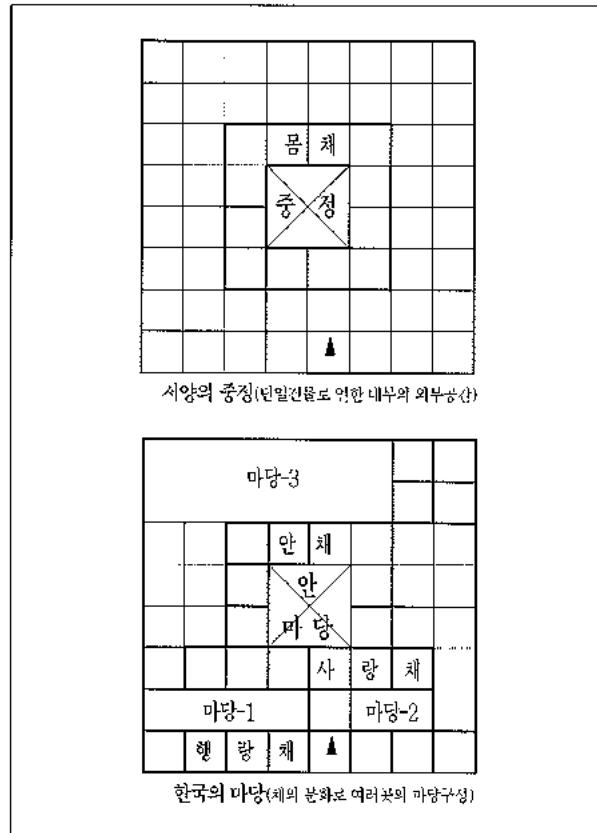
韓國傳統 住居의 채의 發生 과정에서는 青銅器 時代에 이미 공간의 分化가 이루어 졌음을 알수 있다. 역사적인 자료의 상태가 많이 남아있는 朝鮮時代 傳統주거에서는, 채가 완전하게 분화되어 그 과정의 모양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당과 채의 구조적인 원리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채와 마당의 분화 과정을 알아보면 채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안채와, 사랑채는 엄격한 內外法으로 독립된 채(또는 한몸체 속의 각채)를 구성하며 각각의 마당을 갖게 된다. 채의 中心이 되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의 주요 3채는 채(棟)가 분화될 때 棟구성 형식에 의해서 別棟형, 口字형, 혼합형⁷⁾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일체형이라고 할수 있는 口字型이 别棟型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여러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의 몸체에서 떨어져나와 분화되는 과정이 발생하여(조선중기 이후부터) 사랑채를 비롯하여 행랑채, 고방채, 별동채, 사당 등으로 채의 분화를 갖는다. 이것은 외부공간 구성 방법에서 서양건축이 단위 건물⁸⁾로 이루어져 空間을 갖는 것과는 달리, 한국 전통 건축의 住居空間에서는 채의 분화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마당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는 왜 분화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理由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채가 분화되는 시대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첫째는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間의 分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유교는 행동의 규범과 사회의 질서로서 인간관계 가운데 君臣間, 夫婦間, 父子間 등의 모든 근본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禮를 지키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였다. 이런 유교의 精神이 토대가 되어 孝의思想으로서 間의 分化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유교의 도입이 언제부터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국시대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단히 역사가 깊은 思想임에는 분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으며, 조선시대의 사회윤리로서 지배 계층에서 일반 민중에 걸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건축 공간의 구조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채의 구조는 禮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매우 규칙적인 평면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西洋(메소포타미아, 중세 이슬람, 이

〈표 2-1〉 階級의 分化에 의한 마당 位置

空間의 分類	채(동)의 濱分	出入口	階級	마당
上의 空間	안채, 사랑채	솟을대문	上位階級으로 지배적인 지위	안마당, 사랑마당
中의 空間	중문채	중문	中間階級으로 上下의連結	중문마당
下의 空間	행랑채	행랑문	下位階급	행랑마당



(그림 2-1) 韓國과 西洋의 外部空間(마당과 중정) 構成體系

집트, 그리스, 로마 등의 중정주택¹⁰⁾의 중정과는 달리, 전통마당은 채의 분화라는 과정속에서 마당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는 男女空間이 나누어지는 性의 分化가 이루어졌다. 이 시대 주택은 승유정책에 의한 커다란 영향 아래 男女間의 성의 구별에 의한 공간이 분화되어,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 여성의 공간인 안채를 다르게 하였다. 이런 엄격한 內外法으로 한 家族이 사용하는 축간도 남성은 외측 여성은 내측을 사용하였다. 사랑채와 안채의 출입문은 솟을대문과 평대문으로 하여 男女 구별을 위한 男尊女卑思想을 심하게 나타내었으며, 또한 서민의 경우에도 안방과 사랑방으로 그 거처를 디리하게 하여 남녀의 유별을 심하게 하였다. 이러한 구별은 결국 공간의 분화와 아울러 채를 분화시키는 요인을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로는 계급의 分化이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계급 사회의 규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신분의 계층과 지위의 高下에 따라서 주거의 규모 제한이 있어서 법전에서는 그 제한을 두었다. 또한 공간체를 두는 것은 그 地域에서 경제적으로 지배적 지위¹¹⁾를 나타내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6) 崔 堃, 朝鮮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 博論, 1989, 39쪽.

7) 朴彥坤, 앞책, 6쪽.

8) 崔榮基, 楼教思想이 住居空間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95, 4, 185쪽.

9) 鄭寅國, 앞책, 373쪽.

또한 같은 주거내에서도 上·下位 계급의 分明한 秩序가 유지 되었다. 즉 안채 사랑채는 상의 공간으로서 上位계급이며, 행랑채는 下位계급 그리고 중문간 행랑채는 中間계급으로 上下를 연결하였다.

채와 마당의 분화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要因 등으로 건축 주거공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전통주거 속에 한 획을 긋는 “채와 마당의 분화”라고 하는 고유한 전통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2-3. 마당의 分類

전통 주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당은 각 채에서 분화된 間(房)에서 직접 外部로 연결되기 때문에 “動線의 기능과 作業공간의 역할”로서 그 要諦를 이루고 있다. 班家의 마당은 “內部空間으로서의 外部空間” 성격을 갖고 있는, 안에서 다하지 못한 일을 밖에서 해야하는 뜻을 갖기 때문에 현대적인 마당의 屬成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수 있다. 마당이 편평해야 하는 까닭은 그 속성-동선의 통로와 작업의 편리함-이 갖는 고유한 意味이며, 각각의 마당은 이렇게 확실한 기능을 소유하며 마당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채와 더불어 함께 存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당이 흙바닥이어야 됨은 마당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작업공간으로서 용도가 포장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마당은 마당의 중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象徵性을 가지며 동시에 外部空間의 기능을 충족 시키는 場所라는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마당은 사실 대단히 많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유교사상에 의한 가족제도에 따른 많은 채(棟)의 요구, 내외법의 공간구분, 신분제도, 조상승배의 사당 공간 필요, 외부 공간 기능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마당의 수효와 종류는 이렇게 많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었다.

마당의 종류를 채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6채(안채, 사랑채, 행랑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 중 첫 번째 행랑채領域에서 행랑채는 1) 바깥마당, 2) 행랑마당, 곳간채에는 3) 곳간마당, 중문채에 4) 중문마당이 있고, 두 번째 사랑채영역에는 5) 사랑마당, 6) 사랑옆마당, 7) 사랑뒷마당, 8) 셋마당, 9) 정원 등이 있으며, 셋째로 안채영역은 10) 안마당, 11) 옆마당, 12) 뒷마당, 13) 후원 등이 자리하며, 네 번째의 고방채 영역은 14) 고방마당이 있고, 다섯 번째로 별당채는 15) 별당마당과 16) 정자가,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사당채에 17) 사당마당이 있다.

즉 마당의 종류는 17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으며, 채로 구분하면(주택의 경계 영역으로 볼때) 여섯채에 의한 여섯마당 속에 다시 16개의 마당이 분류된다. 이와 같이 마당은 그 채에 따른 기능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종류의 마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채(棟)의 分流에 의하면 마당의 위계와 領域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섯(6)채에 의한 16마당으로 그 종류를 分類하여 놓았다. 아울러 바깥마당은 주택 외부의 마당으로 보기 때문에 16마당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고 住宅外 마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밭재마당(선



윤선도 家屋의 바깥마당. 이 집의 시작이다.

교장)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붙여지는 마당의 종류는 예외의 마당 분류에 삽입하였다.

여섯(6)마당을 다시 領域별로 구분하면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도 여섯마당으로 하여 주거내의 마당구성 원리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당은 크게 주택 内·外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주택내의 마당에 여섯마당이 포함되며, 주택 외의 마당은 동네라는 마을의 범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내의 마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바깥마당의 범주로 주택 内外의 境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본研究에서는 주택 외의 마당으로 구분만 하기로 하였다. 주택외의 마당 분류로는 동네마당, 우물마당, 마을어귀 공동마당 등이 있다.

(1) 住宅外 마당

바깥마당은 주택 외의 空間으로서 다른 마당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영역(주택의 경계)의 認知공간이다. 마을에서 진입하여 주택으로 들어올 때 最初로 올타리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주택 외의 外部空間이다.

이 구역은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는 주택 内部에 속한 마당과는 그 성격이 다른 순수한 바깥 공간으로서, 주택내의 半內部的인 性格도 없는 곳이다. 이곳은 주택 내부를 内部가 아닌 外部에서 인식하는 바깥이 된다. 두 번째로는 주택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건물의 前面에 노출된 행랑채의 크기(길이)를 가지고 전체 주택의 규모를 가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선교장이나 김동수가옥, 임청각 등의 행랑채를 보고 그 앞에 나타난 입면으로 충분히 그 집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주택의 내용(채의 구성이나 마당의 범위)을 보는 한가지 방법으로 외부의 바깥마당에서 그 집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끝으로 주택 경계(내문과 연못, 나무 등)의 시작점이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축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깥마당에 있는 대문의 위치를 보고 그 집의 배치와 境界를 알아볼 수도 있다. 속을 대문이 경계의 시작을 알리는데 매우 좋은 表示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바깥마당은 대체적으로 가옥의 올타리를 인식케 하는 장치가 놓여져 있

〈표 2-2〉 6채(棟)와 마당영역(주택내 마당)의 關聯性

마당종류	채외구분	6채(棟)의 分類						비 고
		행랑채	사랑채	안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	
주택외마당	1	※바깥마당	●					
주택내마당	행랑 마당	행랑마당	●	●	●			
		곳간마당	●		●			
		중문마당	●		●			
		사랑마당	●					
	사랑 마당	사랑옆마당	●					
		사랑뒷마당	●					
		셋마당	●					
		*정원	●					
	안 마당	안마당		●	○			
		옆마당		●	○			
		뒷마당		●				
		*후원		●				
	고방 마당	고방마당		○	●			
		별당	●			●		
		마당	●			●		
	16	사당마당					●	

는 출발이 된다. 연경당에서 커다란 방지를 설치한 것은 바깥마당의 시작점이며 주택마당의 최초 출발점이 된다. 해남 운선도가옥의 느티나무도 이 집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2) 住宅內 마당

주택내의 마당으로서 여섯마당은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용도에 의한 마당도 있다.

첫번째(1)의 행랑마당의 영역에는 행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이 있는데, 주택 내의 마당으로 처음의 공간이 되는 마당으로서, 바깥마당을 통하여 (솟을) 大門을 들어서면 보통 행랑채 앞에 위치하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행랑마당이 된다. 행랑채가 보통 사역인들의 거처와 바구간 창고 등이 배치되기 때문에 주로 옥외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多目的 공간이 된다. 행랑채와 대문간, 담장 등에 둘러싸여 때로는 내객의 종자나 차마를 놓기도 하는 수납공간이 되기도 한다. 행랑채에는 장작광이 있기도 하는데 여기서 장작을 패기도 하며 안채 주위의 장작광으로 옮기기도 한다. 또한 행랑마당을 통해 사랑마당을 출입하는 연결 동선이 되기도 하는 완충역할을 하는데 선교장이나 충효당 같은 마당의 경우에는 사랑마당과 함께 분명한 공간의 구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곳간마당은 별동의 곳간채를 두는 경우로써, 慶州의 崔植氏家屋은 천석 곳간을 두고 있으며 이 마당은 행랑마당의 면적만 가지고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마당을 필요로 하여 넓은 곳간마당을 두고 있다. 끝으로 중문마당은 안채를 보호하는 차단공간으로써 보통 안채앞의 중문간채에 놓여 있어서 마당 속의 마당을 구성하는 주거 마당 속에 위치한다. 안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문마당을 거쳐서 진입하게 된다. 두 번째(2)의 사랑마당 영역은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 등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마당은 보통 전면부

사랑채의 앞에 위치하거나 행랑마당을 통해 접근하게 된다. 별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랑마당의 구성이 前後左右로 되어 꽤 많은 부분의 마당面積이 차지하게 된다. 안마당과는 달리 접객 공간이며, 물론 남성의 공간으로서 婚禮와 같은 큰일이 생겼을 때나 그 외 집안의 大小事가 있을 때에는 내부공간의 연장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며 차일 등을 쳐서 확장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造園공간으로서의 사랑마당은 주인의 격과 취향에 따라서 주위 환경을 꾸미는데, 담밀으로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석연지에 물을 담아 연을 키우기도 한다.

경북 묘동의 박황씨가(달성 三司宅)는 사랑채 앞에 3그루의 석류나무를 심어서 부귀를 가져 온다고도 하였다. 사랑마당의 옆이나 뒷부분은 사랑채가 별동으로 되는 경우에는 좌우 또는 후면에 반드시 여유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정원은 보통 사랑마당의 부근(앞, 옆 등)에 위치하며 마당의 영역과도 분명한 구획을 하여 나누고 있다. 정병호家屋 사랑마당, 셋마당은 명확한 구획(담이나 채에 의한)이 있다. 김기웅 가옥의 경우는 사랑채 뒤에 크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중심이 되기도 한다. 안마당과 사랑채로 통하는 완충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사이 공간으로서 뚜렷한 의미를 지닌다. 세번째(3) 안마



정병호 家屋의 사랑마당.



정병호 가옥의 사랑채는 전출한 구조로서
내려다 볼수있도록 造山을 만들었다.



재월당 안마당



김기용 가옥의 뒷마당. 은밀함과 여성의 전통적인
카타르시스적 공간이다.



동춘당 별당마당.

당 영역은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후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안마당은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마당의 중심이 되며 주택의 상징적인 중심부도 된다. 안채의 앞에 위치하며 보통 □자형태로 모양을 형성하고 안채와 연결되는 부분은 안채가 L자형태로 되고 일자의 공간체, 사랑채 후면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内外법에 따라서 안채는 외간 남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것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평면 자체가 비개방적인 空間을 구획을 한것으로서 알 수 있다.

안마당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안채의 각방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며 그動線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실들이 외부공간인 마당과 직접 면하기 때문에 곧바로 외부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안마당에 면하여 부엌이 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위한 작업과 활동공간이 된다. 셋째로는 의식과 집회공간이다. 혼인때에는 사랑마당과 함께 의식공간이 되며, 안내청은 안마당의 空間과 더불어서 集會場이 된다. 끝으로 안마당 내부의 형태적인 문제나(□자 평면의 경우) 공간의 깊이로 보아 통풍의 기능과 아울러 공기와 빛을 제공한다.

다음 옆마당은 보통 안마당의 옆으로 구성된, 부엌으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주부의 공간에 필요한 시설인 우물, 장독대 등이 놓여진다. 안마당과 더불어 가사 노동의 장소인 이 옆마당은 명절때면 떡을 치는 반석이 놓이기도 한다. 옆마당의 개념은 사랑마당의側面에 놓여있는 경우에 지칭하기도 하는데 사랑채의 옆을 통하여 사당으로 가는 通路의 역할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 다음 안마당의 영역인 뒷마당은 가장 은밀한部分으로 외부인의出入이 거의 쉽지않은 공간이다. 섬용지의 정의에서 나타난 “높낮음이 편평하여 울퉁불퉁함이 없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뒷마당은 보통은 경사지로서 築臺를 쌓아 단을 짓기도 하며 竹林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것은 自然과의 상호 濲透性을 고려한 것이다. 안마당이 無裝飾인데 반하여 뒷마당은 墓臺를 설치하거나 석불 수목 등으로 장식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장독대나 菜田 등을 놓기도 한다. 뒷마당과 안마당의 관계는 안내청의 열린공간을 통하여 서로 관통하는 영역으로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후원의 경우는 뒷마당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김기용 가옥의 경우에 뒷마당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 주로 휴식처로 사용되었으며 꽃과 과실수를 심었다. 후원은 마당이라고는 물론 할 수 없고 정원(사랑정원)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주택 内의 외부공간 영역으로는 포함되기 때문에 공간의 범주에는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4)의 고방마당은, 고방은 벼 및 보리 등의 곡물을 보관하는 수장공간¹⁰⁾의 부속사로서 안채와는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방마당은 별도의 고방채 앞에 놓이게 되는데 정재영 가옥의 행랑채 옆에 위치한 섬으로 보아 독립적인 마당의 역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방은 습기를 막기위해 지면으로부

10) 고영훈, 『慶南西浦地坡民家의 謂在研究』, 동대석문, 1979, 125쪽.



손동만 家屋 사당앞 전이공간. 경건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공간이 된다.

터 사이를 두며 마루 구조로 하고 벽체는 판벽으로 한다. 어떤 가옥은 고방을 실내에 설치하기도 하며, 골방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옆마당에 고방마당이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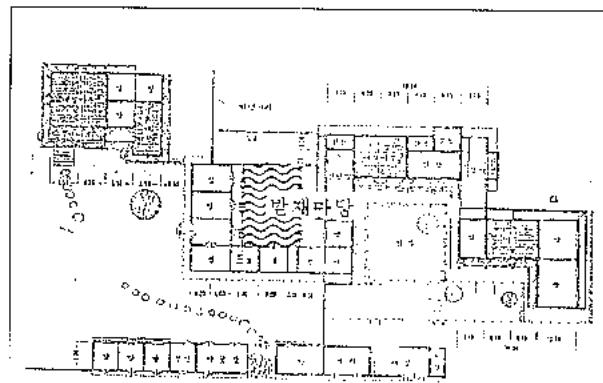
다섯번째(5) 별당마당 영역에는 별당마당과 정자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별당은 사랑채와 精舍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구분된다. 별당마당은 마당 空間의 의미보다는 전면에 方池를 만들어 그 가운데에는 봉래선산을 만들며 蓮을 키운다. 봉래선산은 도가에서 연유된 것으로 삼국사기 武王 35년조(634)에 연못을 構成하는 樣式이 나타난다.¹¹⁾ 별당은 “接客 讀書 閑遊 觀賞 등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택지는 항상 아래 알맞는 景勝地를 택하고 인공 蓮塘과 築山으로 環境을造成하기도 하였다.”¹²⁾

선교장의 活來亭은 정자로서 그 마당 공간은 방지와 봉래선산을 구성하여 形而上學的인 공간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자는 자연속에서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수양하는 空間¹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당 공간으로서의 주변환경은 자연과의 조화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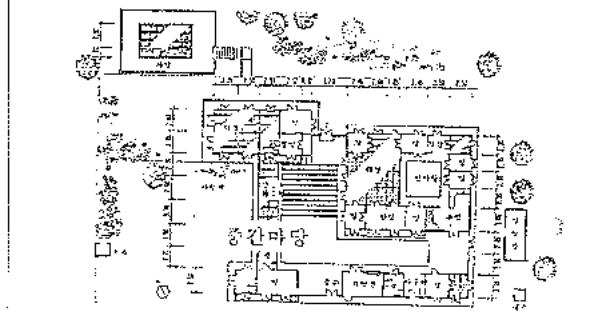
여섯번째(6) 사당마당은, 사당은 입지 자체가 본체보다도 위에 위치하며 전이공간인 중문앞에는 단차를 주어서 사당의 독자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후면은 보통 산이 되고 향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 시킨다. 사당은 口자형으로 담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四方이 달혀있는 공간이 된다.

(3) 특별 기능에 의한 마당의 종류

가) 밭재마당¹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당은 선교장의 서별당(지금은 현존하지 않음)앞에 위치한 것으로서 이곳에서는 밖에서 정리된 財產(금전이나 곡식)을 안으로 받아 들일 때 사용되던 마당으로 그 앞의 중문채는



〈도면 1〉 선교장의 밭재마당



〈도면 2〉 義城金氏大宗家 中間마당

L자형으로 공간이 면하여 있었다.

나) 中間마당¹⁵⁾은 의성 김씨대종가의 안채 대청앞과 사랑채 침방앞에 있는 곳으로서, 행랑마당을 지나 여유 공간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은 하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명쾌한 마당의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는原因是 채의 확실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로라고 하는 개념은 마당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당은 제각기 고유한 명칭을 채와 더불어 가지는 것을 본다면 이런 중간마당의 의미도 독특한 공간구성이 할 수 있다.

나) 전이공간¹⁶⁾의 마당

완충 영역에 있는 마당으로서 사당의 중문앞에 위치하며 생활공간인 “俗의 공간”과 사당공간의 “聖의 공간” 사이에서 中間의 성격을 갖으며 경건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예는 손동만 가옥의 경우에 사랑마당과 사당마당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 마당의 확실한 구분을 해주는 위치가 된다.

11)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1992, 247쪽.

12) 鄭寅國, “韓國建築意匠”, 一志社, 378쪽.

13) 朴彦坤, “韓國의 樓”, 대원사, 1993, 9쪽.

14) 李起乾, “江陵鮮裕莊”, 媛話堂, 1995, 75쪽.

15)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1994, 162쪽.

16) 趙重根, “韓國의 宗家建築”, 忠北大 博論, 1995, 110쪽.

노인주거의 설계기준(7)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 사례3(국외)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I.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I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I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1~3 (국외)

V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4 (국내)

1-3. 의존형 노인주거(시설주거형)

1-3-4. KUUSELAN PALVELUKOTI, Tampere, 핀란드

설계 : EGM Architecten bv Dordrecht

건축주 : Stads Vernieuwing Rotterdam

건축년도 : 1990년

건물 개요 :

가. 세대 수 : 43세대, 8세대(치매인 세대)

나. 총 수 : 4층

다. 배경 : 교외

라. Housing type(거주 형태) :

service house

마. 건물설계기본개념/모양 : 아트리

움

바. 세대 혼합 : 43세대(1침실형), 8세대(group home units)

사. 가장 일반적 세대 크기(평균) : 500sq ft (14.05평)

아. 코뮤니티 시설 : 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자.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 있음

차. 개설 연도 : 1990년

거주자 개요:

가. 평균 연령 : 76세

나. 거주 인원 : 57명

다. 부부/남자/여자 수 : 6쌍/독신남 7명/독신녀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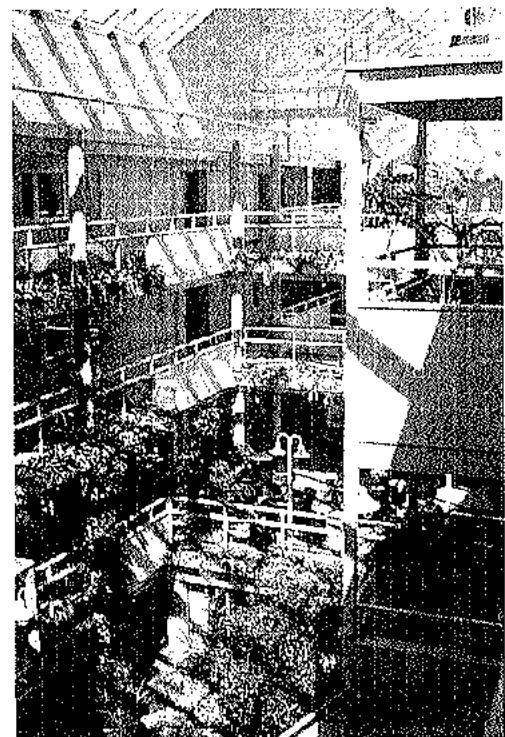
라. Bathing help (%) : 10%

마. Toileting help (%) : 14%

바. 휠체어 사용 (%) : 5%

사. 인지적 순상 (%) : 20%

핀란드 교외지 Tampere에 있는 이 4층 규모의 51세대 서비스 주거는 공기정화 및 보온 처리된 가든 아트리움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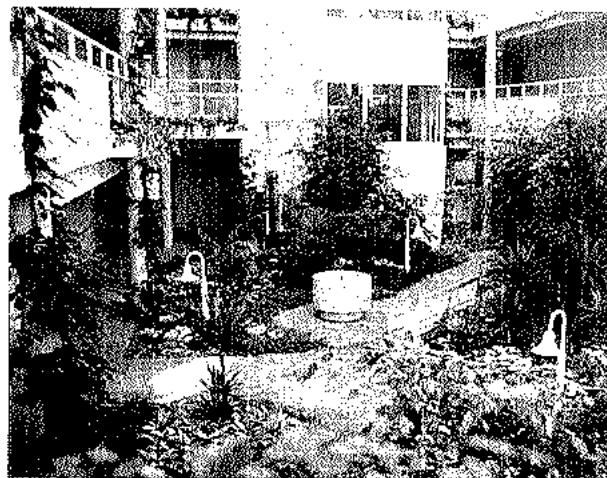


[사진 1]

Kuuselan Palvelukoti 아트리움식 정원은 발코니식 복도로 둘러싸여 있다. 복도 어떤 곳에는 사방을 볼 수 있도록 아트리움안으로 내밀어진 여러개의 소형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계획된 장소는 다양성이 보태져 소규모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적 장소로 이용된다.

개방된 발코니식 복도 주변에 있는 거주 단위세대들은 그 아래층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공간을 바라볼수 있게 되어 있다. 발코니 복도에 달린 소규모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은 아트리움 중앙을 향해 앞쪽으로 뻗어나오게 했다. 이 서비스 주거에는 거주인과 주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레스토랑, 요법 공간등 생활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meals-on-wheels 프로그램, 지역 “home health agency”, 그리고 긴급 응답센터는 이웃 주민들에게 대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하우스에서 가장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아트리움 한쪽 최상층에 위치한 치매인들을 위한 8세대 group home이다. 이 그룹홈은 중요한 기억상실을 겪은 거주인들이 이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친근한 분위기의 서비스 하우스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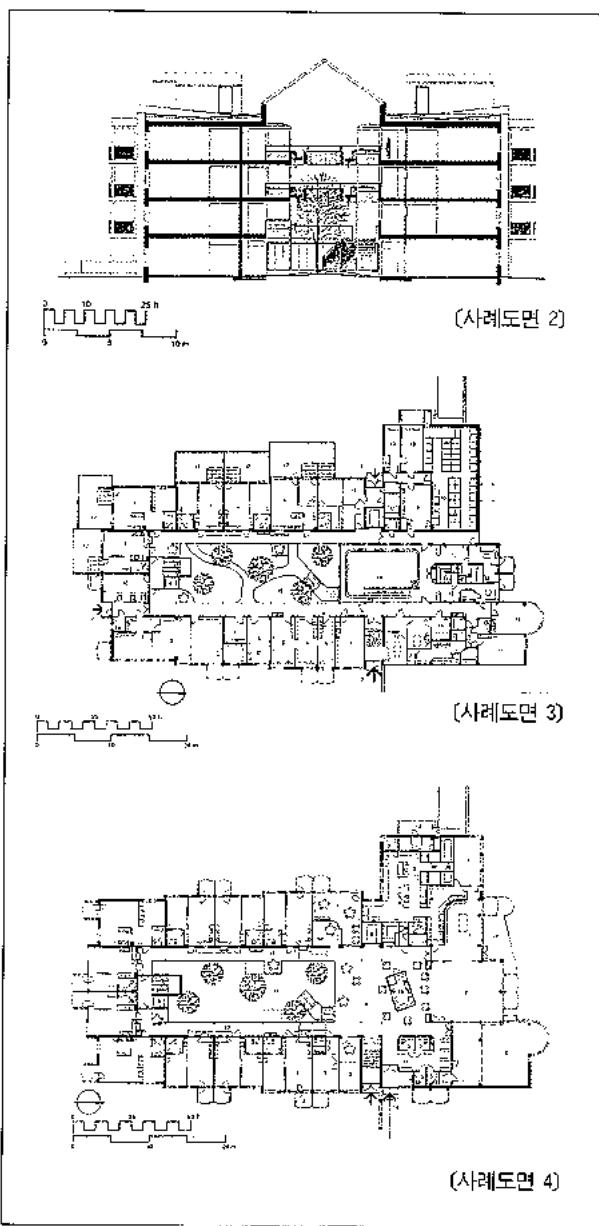
[사진 2] 아래 정원에는 열대 특유의 자연적 식물과 나무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콘크리트로 된 주변도보공간은 정원 벤치와 테이블을 옆에 둔 공간을 통하여 둘둘게 돌아나오게 되어있다. 그곳 한쪽 가장자리에 큰 새장이 있어 소리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사례도면 1] 배치도 : 건물은 Tampere시내와 인접한 호수의 전망을 즐げ하기 위하여 대지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시켰다. 이곳에 찾아오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대지의 동쪽 가장자리에도 적당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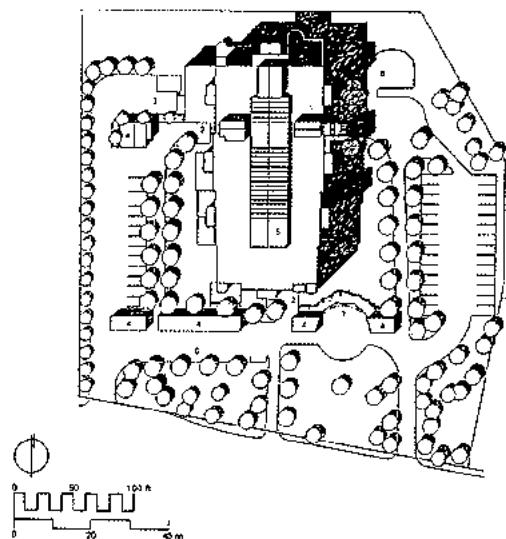
[사례도면 2] 단면도 : 가든 아트리움으로써 거주자들과 방문자들에게 매력적인 전경을 제공한다. 단위세대에 접근성을 주는 복도식 발코니는 아트리움 위쪽 공기중에 둘출되어 있는 “Perches”와 면해 역사 개방되어 있다.

[사례도면 3] 지층평면도(Ground Floor Plan) : 지면층에는 남쪽에 정원식 아트리움이 있고 북쪽에는 수영장·사우나가 있다. 정원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실들은 기술, 물리치료, 그리고 이·미용과 같은 공용 활동공간으로 사용된다.

[사례도면 4] 1층평면도(First-Floor Plan) : 주 공용진입구는 이 층에 있다.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회합실과 레스토랑은 경치를 전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영장 윗쪽에 있는 진입구 데크는 아래 가든 아트리움을 바라볼수 있게 되어 있다. “공중에 떠있는” Kiosk건물을 보라. 그 문제론적 취급과 비스듬히 위치시킨점이 이 번잡한 공간에 비정형적 성격을 증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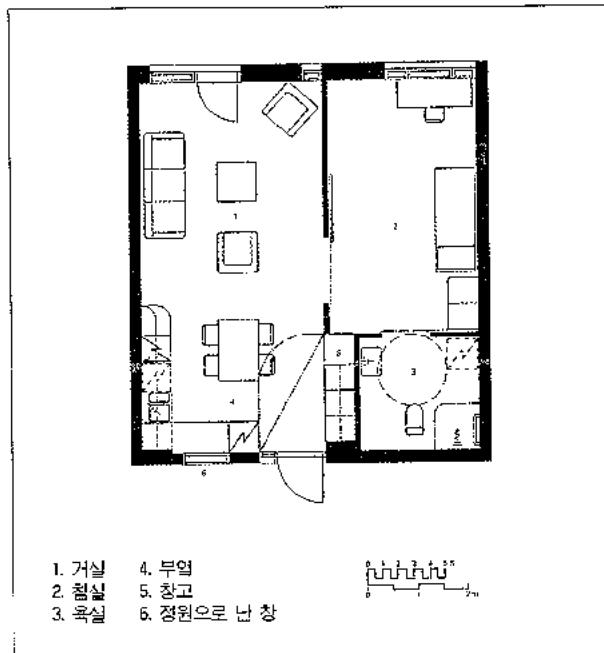


(사례도면 4)



(사례도면 1)

- | | | |
|-------------|---------|-----------|
| 1. 단위주거 | 7. 스튜디오 | 13. 의원 |
| 2. 현관 | 8. 승강기 | 14. 물리치료실 |
| 3. 클럽 | 9. 세탁실 | 15. 리운지 |
| 4. 은행 및 우체국 | 10. 창고 | 16. 아트리움 |
| 5. 이·미용소 | 11. 수영장 | 17. 정원 |
| 6. 작업실 | 12. 사우나 | |



[사례도면 5]

다. 호수를 바라보는 언덕 꼭대기의 위치는 극적이며 아름답다. 레스토랑은 이러한 전망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의 한쪽 끝에 두었다. 프로젝트에서 보면 연속적인 입구를 계획함으로써, 아트리움을 건너다보며 거주민들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안락한 "perches" 즉, 사회적 공간을 곁에 두고 걸어가게끔 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 위치한 kiosk(매점)처럼 생긴 건물에서는 스낵, 담배, 그리고 카드를 판다. 이것은 핀란드 도시공원에서 볼 수 있는 짙은 붉은 색의, 주석지붕이 씌워진 아이스크림 kiosk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스낵을 파는 장소로 제공된다가 보다는 진입데코에 기발한 접촉을 유도해내려고 한 것이다.

Kuuselan Palvelukoti 아트리움식 정원은 발코니식 복도로 둘러싸여 있다. 복도 어떤 곳에는 사방을 볼 수 있도록 아트리움안으로 내밀어진 여러개의 소형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계획된 장소는 다양성이 보태져 소규모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적 장소로 이용된다.

[사례도면 5] 단위세대 : L자 모양으로 부엌을 디자인 함으로써 세대에 가구를 배치시키는데 융통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부엌에서 아트리움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음을 잘 볼 것. 거실 및 욕실과 함께 침실이 미닫이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클로젯이라기 보단 불박이 이동식 옷장이 저장고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잘 볼 것.

[사진 3] Nybodergaarden 1층 아트리움은 여러가지 다양한 식사 및 사회화 공간들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진입구 근처에는 비형식적 사회화 공간이 있다. 사진 왼쪽에는 매일 오후마다 음료수와 소낵을 파는 bar가 있고, 아트리움 후방엔 dining room이 있다. 자연광이 건물 중앙을 관통하고 윗층에 혼자 앉을 수 있는 복도 공간에서 거주자들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넘겨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4] 주변 이웃 건물들은 수백년 동안 있어왔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새로이 시공되었지만 그 형태, 색조, 그리고 스케일은 주변 도시 패턴을 따왔다. 이 건물은 특별한 사용자 그룹을 위해서 보다 기능적인 주거 배치 형태로 창조적 방향으로 변형되어 있다.

1-3-5. NYBODERGAARDEN, Copenhagen, 덴마크

설계 : Ib and Jorgen Rasmussen Arkitekter DSB Station, 덴마크

건축주 : Nybodergaarden - 코펜하겐의 지방 자치체 당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독립형 nursing home

건축년도: 1977년

건물 개요:

가. 세대 수 : 54세대

나. 층 수 : 3+Bsmt

다. 배 경 : 도시

라. Housing type(거주 형태) : plegehj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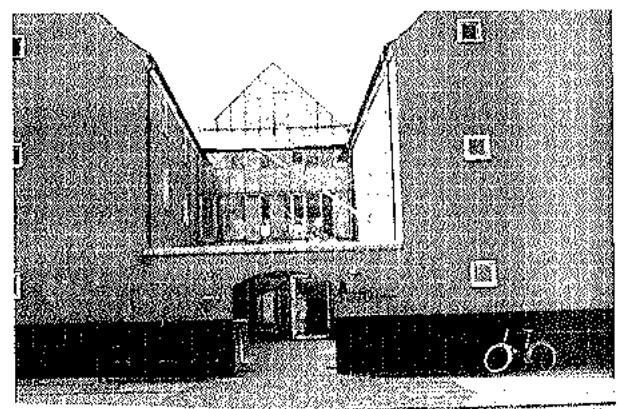
마. 건물설계기본개념/모양 : 아트리움(활동)

바. 세대 혼합 : 48스튜디오, 6개 주거 유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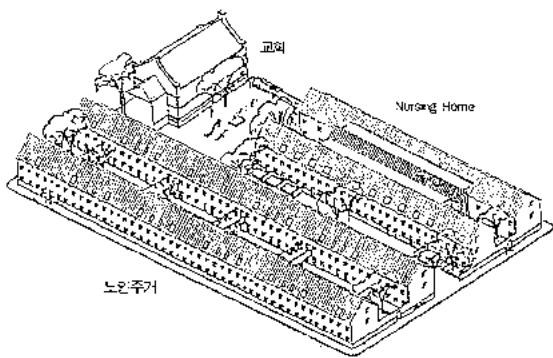
사. 가장 일반적 세대 크기(평균) : 260sq ft (7.31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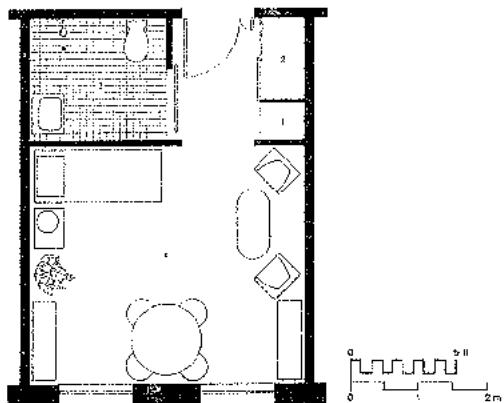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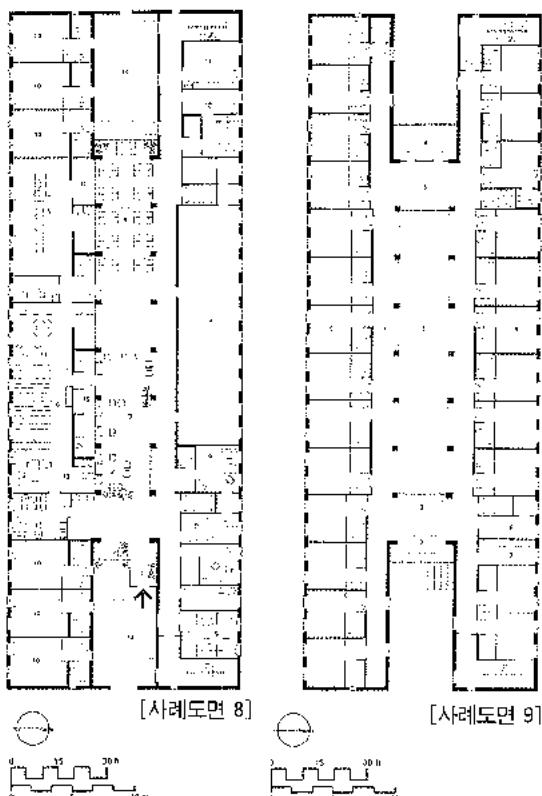
4



[사례도면 6]



[사례도면 7]



[사례도면 8]

[사례도면 9]

1. 주출입구
2. BAR
3. 거실
4. 식당
5. 물리치료실
6. 근육치료실
7. 도서실
8. 부엌
9. 사무실
10. 격리실
11. 세탁실
12. 미용실
13. 가사실습실
14. 칭원
15. 서비스 코아

1. 진입 복도
2. 식사실
3. 휴게실
4. 간호사실
5. 리운지
6. 침실
7. 아트리움
8. 물품창고
9. 개수대

아. 코뮤니티 시설 : 물리요법, 작업요법, day care
자.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 없음
차. 개설 연도 : 1977년

거주자 개요:

- 가. 평균 연령 : 82세
- 나. 거주 인원 : 54명
- 다. 부부/남자/여자 수 : 남신남 17명/독신녀 37명
- 라. Bathing help (%) : 83%
- 마. Toileting help (%) : 83%
- 바. 활체어 사용 (%) : 31%
- 사. 인지적 손상 (%) : 35%

Nybodergaarden은 덴마크식 plegehem, 즉 특수한 기능을 가진 시설 요양원(nursing home)이다. 이것은 몇 가지 특별한 면에서 미국식 표준 요양원과는 다르다. 260평방피트의 각 실 하나마다 완전한 욕실과 소형냉장고가 있다. 물리적이고 작업적인 요법이 그 plegehem lifestyle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였다. 요법(치료)에 대한 면이 매우 강조되어, 사람들은 그 plegehem이 부분적 재활 병원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1층 아트리움에 있는 open bar에서는 거주자, 이웃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알콜성분이 있는 음료수와 스낵을 하루내내 파는데, 이곳에선 그 주변 환경에 대하여 완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식사 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몇몇의 비교적 작고, 보다 친밀감 있는 장소에 분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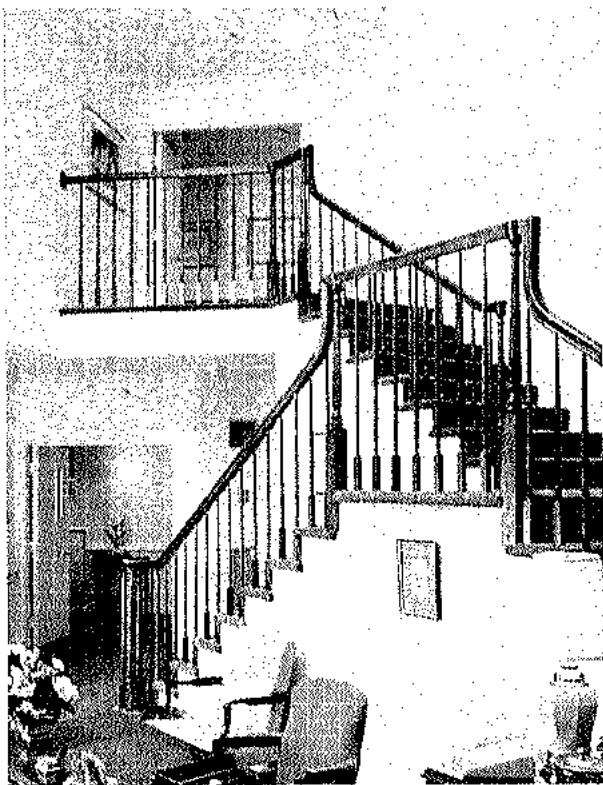
Nybodergaarden은 역사적인 Nyboder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500년대 후반에 이곳에 건설되었던 길다랗고 좁직한 주거 블록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긴물에서는, 좁직한 두 거주 블록 사이에 있었던 전통적인 open-air식 안마냥이, 지붕이 덮힌 빛이 충만한 아트리움으로 변형되었다. 건물의 전통적 황토색은 이웃하고 있는 주거들과 조화를 이루어, 그 위장된 모습이

[사례도면 6] 액소노메트릭 : 이 건물을 좁직하게 성형된 형태(75' x 210')로 Nyboder 지역내에 있는 기존 건물의 기하학적 패턴에 순응하게끔 계획되었다. 독립형 노인을 위해 마련된 인접 건물은 똑같은 패턴을 역시 갖추고 있지만 건물 사이에 외부 마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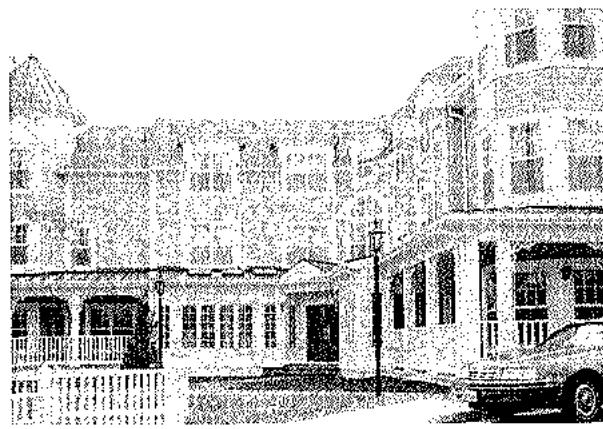
[사례도면 7] 각 단위세대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소형 냉장고를 두었고, 미닫이 문이 달린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된 큰 욕실을 계획하여 거주자의 이동이 수월하게 하였다. 세대 출입문은 실 안팎으로 침대를 옮기기 적합하도록 두개로 설계하였는데, 거주자들은 자신의 가구를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

[사례도면 8] 지층평면도 : 중앙 아트리움은 식사, 오락 및 사회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층 남쪽 가장자리는 요법 행위공간으로 쓰이고 있으며, 건물 동쪽과 서쪽 끝은 약간의 보조 장치를 필요로 하는 자립형 거주자를 위해 소형 부엌을 계획한 6개의 실이 있다. 앞 뒤 진입 마당에 앉을 수 있는 육외 공간을 두었다.

[사례도면 9] 기준층 평면도 : 거주자들은 1층에서, 그들 방에서, 또는 출입문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각층에 배치된 소형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각 거주자는 세대에 인접해 있는 발코니식 복도에서 아래 아트리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볼 수 있다. 각 층 끝에 있는 nurses station은,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대회하기에 수월한 리운지 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5



6

주위 배경으로 발전되고 있다. 아트리움을 디자인함으로써 그 프로젝트의 중심부를 빛으로 채워 1층에서의 그룹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그 보다 더 윗층에는 아트리움을 넘어다 볼 수 있도록 된 넓은 발코니형 복도들이 있는데, 거주자들은 이러한 복도 공간에 주거 단위 세대의 확장개념으로서 의자, 탁자, 때로는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해변용 우산을 두고 있다.

1-3-6. SUNRISE RETIREMENT COMMUNITY. Fairfax, 버지니아

설계 : Heffner Architects Alexandria, 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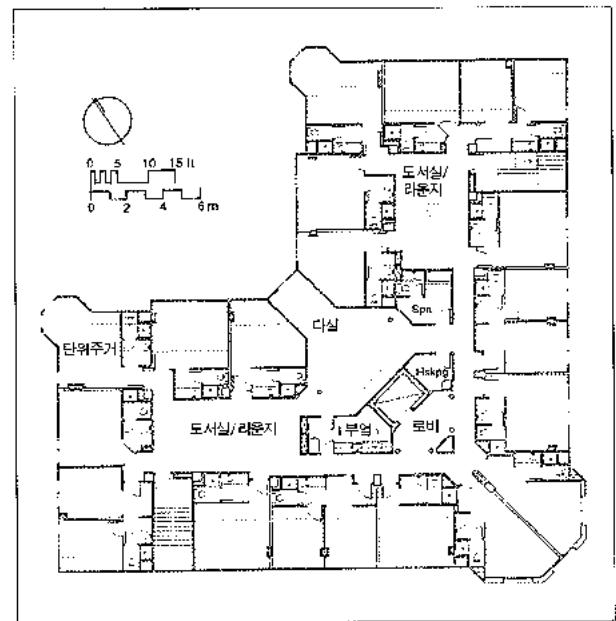
건축주 : Sunrise Retirement Homes and Communities Oakton, VA

건축년도: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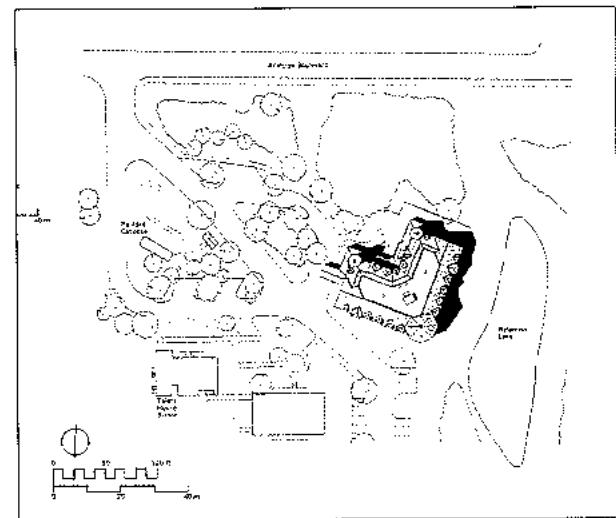
건물 개요:

가. 세대 수 : 47세대

나. 층 수 : 3+Bsmt



[사례도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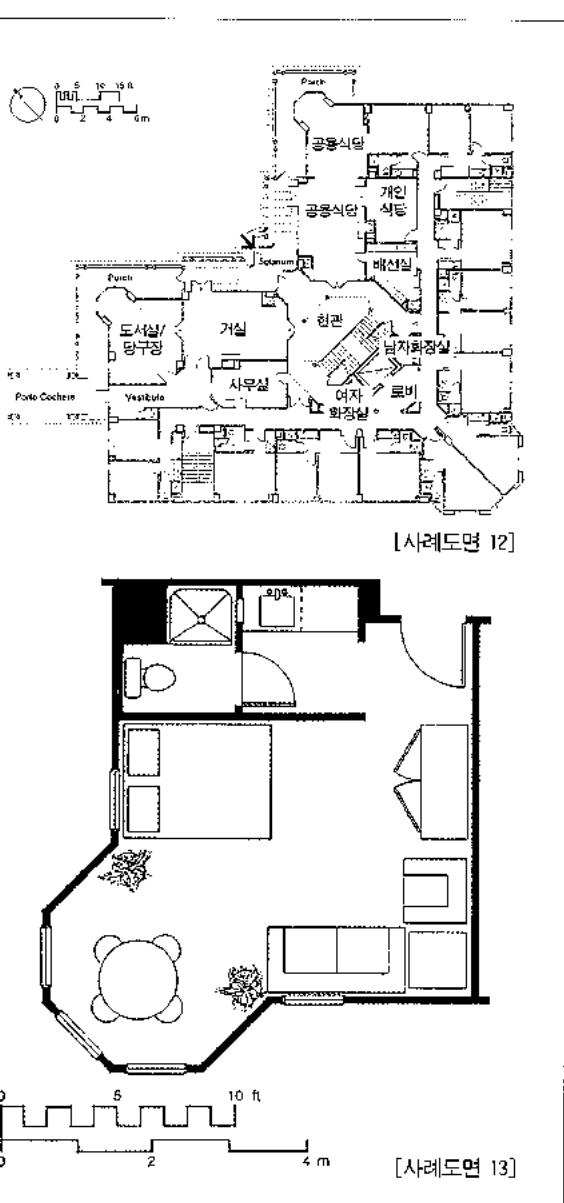
[사례도면 11]

[사진 5] 개방된 계단이 Sunrise가 가지는 하나의 특징적 요소이다. 그것은 건물의 특별한 하이어리키(hierarchy)를 더해 주며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인상적인 장소를 이루면서 진입부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 계단은 또한 운동용으로도 쓰인다. 접수원이 테스크에 앉아 거주자와 방문객을 접대한다.

[사진 6] 3층에 자봉창을, 1층에 부착형 포치 요소를, 그리고 건물 전체를 통해 주거식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Fairfax에 있는 Sunrise 주거의 규모를 강조하였다. 대저택 이미지로 사설 오양시설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집이란 느낌을 준다.

[사례도면 10] 3층 평면도 : Sunrise 평면을 보면 복도 양쪽 거실에 사회적 공간을 둘으로써 긴 복도 길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칭적이며 꽉찬 평면으로 계획하여 단위세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켰다. 주거 부엌은 그룹 활동을 지원할 때 사용한다.

[사례도면 11] 배치도 :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사립학교 캠퍼스의 경사진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대지에 앉혀진 Sunrise 주거는 동쪽으로는 호수를, 북쪽으로는 번화가를 볼 수 있다. 6등급 기술주거학교를 통한 가까운 day-care로 세대간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거주자들과 함께 짜여진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Sunrise 3층 tea room을 방문하게 된다.



[사례도면 12] 1층 평면도 : 둘러싸인 포치를 통하여 연속된 문을 지나가면 개방된 빅토리아조풍의 계단아래 2개층으로 된 현관 로비에 다르게 된다. 식당과 거실(parlor)이 유리창으로된 벽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출입문은 건물 서쪽 가장자리에 있다. 차대는 곳(Porte Cochere)을 보호하고 경사에 따른 접근성을 두어 편리하게 타고 내릴수 있게 해 준다. 자그마하고 개방된 중앙에 위치한 사무실을 잘 볼 것.

[사례도면 13] 단위세대 평면도 : 이 유닛엔 코너에 작은 탑이 있어 흥미롭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이 엘코브를 거실로써 사용하거나 여기에 게임, 쓰기, 작업 활동을 위한 테이블을 둔다. 전형적으로 단위세대에는 냉장고가 있으며, 한 공간에 욕실과 부엌을 함께 모아 두고 있다.

다. 배경 : 교외
라. Housing type(거주 형태) : home for aged
마. 건물설계기본개념/모양 : L 형태
바. 세대 혼합 : 35스튜디오, 12(1침실형)
사. 가장 일반적 세대 크기(평균) : 275sq ft (7.73 평)
아. 코뮤니티 시설 : 없음
자.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 없음
차. 개설 연도 : 1990년
거주자 개요:
가. 평균 연령 : 82세
나. 거주 인원 : 60명
다. 부부/남자/여자 수 : 독신남 9명/독신녀 51명
라. Bathing help (%) : 100%
마. Toileting help (%) : 25%
바. 휠체어 사용 (%) : 10%
사. 인지적 손상 (%) : 40%

3층 규모, 47세대 보조 생활 시설인 이 건물은 디자인 기본 개념으로서 빅토리아조풍의 대저택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경사진 지붕, 지붕창, 낮게 매달린 부착 포치, 코너부분의 작은 탑, 그리고 낮은 스케일의 차대는 곳은 거리에서 보면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내부에 주거 설비가 있는 2개층 진입부분엔 지층과 2층을 연결하는 극적인 개방 계단이 있다. 고 풍의 가구 사용과 거주자들이 어린시절 매일 하였던 벽 올리기 디스플레이이는 거주자의 기억을 자극하고 방문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 세대간의 상호관계와 같은 건설적 주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기법이 표현되었으며, 예술적 취지로서 환경에 정서적 차원을 부가시키고 있다. 주거 유닛과 공용공간은 원(院)이라기보다 오히려 bed-and-breakfast inn을 닮은 규모와 기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용실 및 복도의 규모는 친근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 보인다. 각 복도 끝 거주할 정도 규모의 방은 그 주변에 몇 개의 유닛이 윤집해 있는 준 사적 거실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 방침은 가능한한 거주자들이 사설 요양원이란 것을 벗어나서 자립적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검사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매주 "Miniphysicals"를 시행한다. 거주자들은 물론 애완동물과 어린이들도 여러가지 독창적 요법의 대상이 된다. 주거 단위는 보통 작으며 거기엔 음식장만을 위한 시설이 없다.

I. 서론

서울 시내, 특히 강북지역을 지날 때마다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바로 재개발아파트들인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계획되고 완성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한다.

또 가족과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날 때면, 동승했던 가족들 조차 산 중턱내지 산꼭대기에 고층아파트들이 줄지어 있는 현실이 어떤 연유에서일까라는 의아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그 산꼭대기 고층아파트들이 결국은 산에 있던 무허가 주택이나 양성적인 노후불량주택, 또는 판잣집들을 헐어내고 단지를 좀더 고급화 시킨 결과 밖에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내 재개발아파트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시행착오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미흡하나마 필자나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볼 생각에서 글로 옮긴다. 또 이 글을 통해 현실적, 도시 계획적 측면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차후 정책결정과 시행에 조금이라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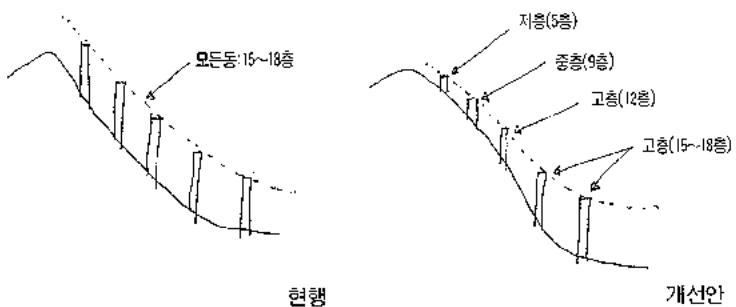
1. 산에 맞는 스카이라인 형성

기존의 산위 재개발아파트들은 평지, 산기슭, 산중턱, 산꼭대기 할 것 없이 모두가 일률적으로 고층아파트(15~18층) 일색으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개선안 : 평지 - 고층아파트 (15~18층)

산기슭 - 고층아파트 (12층)

산중턱 - 저층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5층)



2. 조합원+임대주택+약간의 일반분양분 건축

현재까지의 일반 분양세대수를 가급적 많이 시공하여, 건설회사의 이익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였겠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임대주택+일반분양세대수(최소의 적정숫자)로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공회사의 이익금 충당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반문이 생기리라 믿는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시공회사의 이익금 충당방법

재개발에서 얻어야 될 이익금을, 일부는 재개발 아파트건축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신도시 또는 서울 근교의 신규 아파트단지(예: 용인 수지·죽전지구)에 토지취득 및 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그 시공회사에 들려고 건설업계가 최선을 다해 견실한 시공을 하게 되리라 본다. (대부분의 재개발아파트 시공회사는 풍부한 재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생활편의 등을 위해 질 좋은 시공을 하는 국내굴지의 건설회사로 여타 건설회사들도 외곽지에 부지확보를 받기 위해서도 양질의 아파트를 건축하게 될 것임)

4. 고지대 연립 또는 녹지대(공원) 조성

좀 과장된 감은 있지만 현재는 산꼭대기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위 글1(산에맞는 스카이라인 형성)에서 산꼭대기에는 저층아파트 또는 연립을 제시하였지만, 이왕 할 바에야 3~4층 정도의 연립 또는 녹지대(숲 또는 공원)로 조성함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또, 단지 내의 공원, 녹지대는 최상부에 위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층별 입면조정

현재: 고층에 평지붕 일색입

→ 개선안: 고층 - 평지붕도 무방

중층 - 경사지붕 (다락층 권장)

저층 - 경사지붕 필수

6. 슬럼화 방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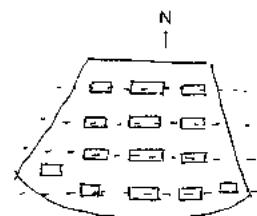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해야 함

현재(조합원+임대) : 전매차익 노린 처분이 대부분임
20%정도만이 실제 정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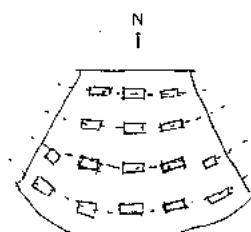
재개발지역민 다수가 서울 변두리지역에서 다시 판잣집 생활 시작

→ 개선안 : 일반분양 세대수 (최소의 적은 세대수 공급) - 대형(50~60평형)으로 작은 평형이 밀집된 지역의 슬럼화 방지 역할

7. 동배치



[현행-배치도] 일률적인 정남향 배치임



[개선-배치안] 산 경사, 능선을 따라서 쪽면배치

III. 결론

강력한 결정 및 입법추진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재개발(특히 산의 재개발시)의 경우 고층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어찌면 가장 빠른 전환시점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양적인 공급의 승인 보다는 도시계획적이고 거시적인 사항들에 중점을 두어 개선안이 검토되길 바란다.

이대로 10년만 지나다 보면, 서울시내의 모든 산이 온통 고층아파트 일색이 될지도 모를테니까…

UIA 대회와 협회 국제활동

KIRA'S International Activity & UIA

이정근 / 우근계획 건축사사무소
by Lee Jeong-Keun

1. 들어가는 말

한국건축계의 공식적인 국제활동은 두 갈래로 분리되어 UIA에는 한국건축가협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Arcasia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두 협회 모두 반쪽의 국제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건축가협회는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한국이 속한 이웃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발판이 없어 기반이 허약하다. 건축사협회는 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전세계적인 국제관계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양협회가 모두 반쪽식의

국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국 건축계 전체로 볼 때 국제활동의 반신불수 상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전이라도 우선 양 협회간에 국제관계 정보를 공유하며 장기적인 합동위원회를 가져 문제를 좁혀가자는 견해는 양쪽에서 벌써부터 일고 있었지만 잘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건축가협회로서는 특히 1993년 Chicago UIA 총회에서 제 20차 대회의 한국유치를 위해 중국과 경합을 벌

일 때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기반이 약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 후에 건축가협회에서는 Arcasia 행사에 옵저버 자격으로 대표를 2회에 걸쳐 참가시켰다.

건축사협회는 두 가지 면에서 UIA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었다. 첫째는 아카시아의 여타 회원국들이 대부분 UIA와 Arcasia에 동시에 가입되어서 지역적인 활동과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건축사협회도 UIA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건축가협회와 국제활동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협의체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때로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협력하는데 있어 UIA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7월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19차 UIA 대회(Congress)와 7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20차 UIA 총회(Assembly)에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행사에는 등록한 사람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총회에는 각국 협회의 대표들만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 각국의 대표수는 협회의 회원수, UIA에는 회비액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건축가협회는 5명의 대표를 참석시키며 투표권으로 다섯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 대표들중에는 사정으로 인해 참석못하는 분들이 생겨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여 다행히 전 과정을 몸소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대회의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UIA 행사는 대회와 총회로 구성되는데 총회는 전시회, 강연, 워크샵, 영화상영, 사교행사, 건축방문, 도서판매 등 건축관련행사들이 총 망라되어 축제를 이룬다. 공식언어는 개최지의 카탈

로니아어, 스페인어, 불어, 영어, 러시아어 등 5개국어를 사용하여 모든 행사와 관련문서 및 출판물에는 5개 국어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학술발표와 회의 등에서는 5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되었다. 총회는 회의의제에 따라 3 일간 계속되었고 후반부에는 차기 회장 및 임원선거, 5 개지구의 지구별 책임자인 부회장 선거, 이사국 선출 및 다음의 UIA 대회 개최지 선정 등이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대회주제인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전시로 보여주는 주제전과 여타 건축과 관련된 전시 및 대회에 동참하는 기타 전시로 대별된다. 주제전은 대회본부인 바르셀로나 문화센터에서 변화, 주거, 흐름, 용기, 버려진 땅 등 소주제별로 조직되었다. 주목할 만한 전시회는 UIA대회를 기해 만들어진 특별 국제현상 설계경기 입상작품의 전시회, 1985~1994년의 스페인 건축제, 1984~1994년의 유럽건축전 등 이었다.

주제전에서 개개 전시작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 체를 흐르는 주제에의 연결성과 통합성에서는 약하지 않 았나 하는 인상이다. 찬조 전시들에서는 지난 10년간 유럽에서의 건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게 하였다. 기타 바르셀로나에 산재하는 박물관과 갤러리 등에서 주최하는 전시도 대회주제에 호응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존 미로, 달리, 피카소, 가우디 등 바르셀로나가 배출한 예술가, 건축가들의 작품감상은 값진 것이었 다. 일부 전시는 토론회(Conference)가 병행하였다.

강연회는 개인과 그룹이 참여하여 소주제별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세계의 57개 건축학교가 각각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팀이 도시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건축가들도 동참하여 25개 도시의 현재와 과거를 분석하며 새로 운 제안을 하였다. 11개의 특별 전문주제를 다루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건축과 소통이란 주제아래 건축·복지·환경·연구·편집자·비평가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 공항과 도시, 도시의 접근성, 의미론과 건축 등 이었다. 영화와 건축이란 제하에 공간, 도시 영역, 경계, 빈 공간 등의 테마를 걸고 10개의 영화가 상영되고 토론이 벌어졌다. 사회행사로서는 환영 칵테일파티, 개회식, 수상의 날, 폐회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환영파티는 2일 저녁 가우디가 설계한 Parc Guell에서 있었는데 가우디의 조경 조조물을 배경으로 한 연출을 시도했다.

개회식은 3일 카탈로니아 음악의 전당에서 스페인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프로급의 음악 연주가들이 성악, 피아노, 째즈 등을 연주하여 정연하면서도 가벼운 분위기로 끝고 나았다. 4일밤 몬쥬의 언덕의 올림픽아레나에서 있었던 수상의 날 기념식에는 야외 광장의 분수와 조명 등을 이용한 야외분위기에서 스페인의 Rafael Moneo에게 UIA금상이 주어지고 그 밖에 UIA에서 조직한 각종 상이 주어졌다. 6일 밤에 있었던 폐회식 행사는 침침한 바르셀로나의 해변가에서 모래사 장에 일정 간격으로 촛불이 끊혀지고 무대에서 춤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별다른 의식없이 진행되었다. 파도소리 와 어둠속에 그간 행사에의 열정과 만감은 서서히 침잠되어 갔다.

총회는 UIA회원국이 3년에 한번씩 모두 참여하여 의제를 다루는 공식회의이다. UIA가맹국은 106개국인데 현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이며 올해 총회 참석국가는 70개국이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바르셀로나 해안에 새로 개발된 연육교로 연결된 시민위락 쇼핑단지인 port vell에서 열렸다. 단상에 회장, 직전회장, 사무국장, 회계총무 및 5개지역을 대표하는 부회장 5 명 등 사무국 구성원이 자리하고 홀에 방사형으로 각국의 대표들의 좌석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었다.

각국은 국민소득, 회원수 등등으로 산출된 식에 따라 회비의 액수가 산정되고 이에 비례한 대표수를 가지며 이는 투표할 때 투표수에도 적용된다.

각 지역별로 이사국이 선출되어 이십여 명의 이사와 사무국이 합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일년에 4번 씩 이사국간에 돌아가며 유치하게 되어있다. 회의는 의제설정과 사무국구성원들의 인사와 활동보고에 이어 재정보고가 있었다. 3년간의 예산은 1200만 프랑 정도이며 이는 회비와 각종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UIA활동을 확고히하고 넓히기 위해서는 해마다 필요예산이 증가하므로 회비납부금을 올리려해도 각국의 가맹협회로부터 반발이 심하고 회비산정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 회비를 많이 내는 12개국중의 하나이며 투표권도 5표를 행사한다. 실질적인 UIA활동의 핵심도 각종 활동 프로그램으로 현재 30여개가 가동중이며 활동프로그램의 유효성은 내규에 규정된 활동규준을 상회하는 활동내용에 따라 인정 받는다. 테마에 따라 각 회원국 또는 복수의 회원국이 협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회장단 5개 지역을 대표하는 회장단 및 이사선출이 있었다. 이사는 임기 6년, 나머지는 3년으로 되어있다. 회장에는 제 3지역 부회장인 멕시코의 Sara Grinber가 당선되고 아시아국이 속한 제 4지역에서는 다음 UIA대회 개최국인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일본의 Ren Suzuki가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사국 선출에서는 한국의 조재원 기협 국제위원장이 호주, 중국대표와 함께 21년만에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사국은 UIA의 모든 활동기조와 내규를 조정하고 결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건축 가협회는 UIA를 매개로 한 국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2002년에 개최될 제 21차 UIA대회와 22차총회 개최지 선정에서는 독일의 베를린이 이태리의 베니스, 프로렌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호주의 멜번 등의 경합을 물리치고 결정되었다.

선거 바로 직전에는 회칙개정이 있었고 UIA의 결사함이 토의를 거쳐 통과 되었다. 1996 UIA 의결 안건은 건축실무 전문성에 대한 UIA표준내규, UIA/UNESCO건축교육현장, 일반정책 대강보고서 등이다.

3. 대회 주제 :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

General Reporter 역을 담당하는 Ignasi de sola Morales가 주제를 발표하고 대회를 총괄하도록 되어있다.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발전은 인구와 생활내용, 기술과 통신, 소비패턴 등에서 가히 전대미문의 변형을 끌어내고 있다. 기존의 도시조직도 이전에는 상상 할 수 없던 속도로 변형과정을 겪으며 안으로는 이제까지 잘 쓰이던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기도하고 새로운 것도 금방 옛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날 가속적인 도시발전의 역동성에 내재하는 전략, 이해관계 및 논리들의 복합성을 기초로 하여 주요 사항의 결정들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근래에 이중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영역의 변형에 관여함으로써 탈출구를 찾는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의식적으로 형태창조의 적설적인 분야에 안주하거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경주한다. 이 두 노선의 양극사이에서 상당수의 결정들이 건축이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껴나간다.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 대도시의 활동들을 담는 거대한 용기,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거대한 용적들, 공업과 상용의 건물들이 문화성을 상실하고, 진부한 때로는, 우리를 허탈하게하는 모습을 가진다.

진정한 건축성이 결여된 이 모든 양적인 발전은 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재편성 된 결과이다. 금세기의 가장 활발한 건축활동기에 제시된 모형들은 건축가들에 의한 전지한 고찰을 거치지 않고 교묘하게 재구성되었다. 표준화된 해답의 반복뒤에 감추어진 일반적인 형태들은 명확하게 직조되지 않은 과정들을 거짓으로 엮는다. 따라서 주거와 일과 놀이공간 그리고 도시 하부구조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서부터 형성되어온 건축 이데올로기와 21세기의 문턱에 위치한 오늘의 대도시 상황의 새로운 조건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착란은 건축에 있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가능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대형 프로젝트의 방법과 문제, 건물들의 변화에 동시에 요구되는 일시적인 조건들, 동일한 점에 수렴하는 프로젝트의 병치와 과편화, 새 기술에 의해 창조되는 시설, 공간지각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시간의 체험, 새로운 용도와 사회의 삶에 부응하는 공간의 설계, 변형을 이겨내고 이에 재적용하는 건축기술 및 도시구조 등은 공공 행정조직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건축이 이러한 대도시 상황에서 일발의 발언권이라도 가질라치면 준비해야 하는 점은 이 과정을 조절 통제하는 가능성과 어떤 집합적인 가치체계에 근거한 이성적인 논리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UIA 바르셀로나 96대회의 목표는 현대도시의 변형 속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해 다음 다섯가지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것이다.

●변 화(Mutations)

오늘 도시들의 변형의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주 거(Habitation)

대도시 상황이 빚어내는 새로운 거주 모형

●흐 름(Flows)

현대 건축과 도시에서 교통, 정보의 수단과 매체의 영향

●용 기(Containers)

도시주거의 사적 및 공적 생활을 구성하는 새로운 의식들을 다루는 건축의 형태

●빈 땅 (Terrain vague)

도시 조직속의 베려진 땅과 이들을 변형시키는 도시 프로젝트

4. 바르셀로나와 UIA대회

바르셀로나는 UIA대회를 위한 천연의 배경이었다. 중세의 고도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다 근세의 도시구조와 현대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이 발전의 연속선상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피카소를 비롯하여 달리, 미로 및 가우디 등 불세출의 예술가, 건축가들이 태어난 이 곳은 카탈로니아 지방의 축복받은 땅이다. 현대생활을 수용하는 시설물들을 기존의 도시조직에 어떻게 접속시켰나 하는 것만 보아도 이들의 디자인 수준을 알 수 있고 문화의 질을 가늠하게 한다. 이들이 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 도시조직과 섞여 놓아서 행사를 찾아다니는 자체가 참여이며 대회 주제인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을 둘으로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회장소들이 하도록 흘러져 있어서 찾아다니는 데 힘이 빠지고 시간소비하고 막상 도착하면 소위 유명인사들이 강연하는데는 장소가 모자라 못 들어가고 하는게 불편한 만큼 다른 면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바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막식, 폐막식, 환영식, 서상식 등 의 행사도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도시공간과 자연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삶의 경험속에 침투하게하고 일체화시키는 연출의 전략은 가히 천재적인 예술가와 장인들의 고향이기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도 생각되었다.

각개 행사의 국부적인 연출의 전술적인 면에만 한정하지 않고 행사 전체를 도시공간과 함께 섞어내는 감성은 천부적이고 내생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드는 시간과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소모하고 잃는 과정에서 도시공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각성의 가치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

고 손실을 따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2002년 UIA대회 유치를 위해 경합하던 도시들이 내세우고 있는 점들의 하나는 대회행사를 집중시켜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편리성 위에 무엇이 얻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지는 대회 조직의 집행 시점에서 밝혀질 것이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장소에서 등록하는데만 아까운 시간을 많이 버리게 한 것이라든지 여러 정보들이 쉽게 이방인들에게 곧 바로 달게 할 수 있는 운영방안 등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아야겠다. 특히 총회 장소의 엄청난 꾸밈은 회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회의의 귀함과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대회행사들은 빠른한데 비해 총회나 등록 및 정보전달 등 사무관련 행사의 조직과 장소적 배려에서는 낙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한국 건축계의 국제활동의 전망

국제활동은 인간의 모든 활동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여타 활동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면 문화권이나 국가라는 인위적 올타리로 둘러싸는 집단을 집합의 개체로 하여 상호 접근하는 것이다. 활동 일선에 있는 개인은 인간 개체가 아닌 국가나 문화권이라는 집합적인 개체라는 정체성을 뒤집어 쓰고 움식이게 된다.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시간과 경비, 개인적인 회생 등이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에 비해서 투자의 효과가 즉시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국제활동은 꽃나무가 아니다. 그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는 밭의 거름일 뿐이다. 몇몇 사람의 활동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이고 가치없는 활동이 된다. 이것은 꽃밭의 밀거름이 되게끔 파급되어야하고 호수의 잔잔한 파문처럼 조용히,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건축인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변화의 맥박이 되어야 한다.

한국 건축계의 국제활동은 협회와 가협회의 그것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 분리된 상태를 묶어주는 내적인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근래에 건축 3단체는 이제까지 명목상으로 유지되어오던 형식적인 정기적인 면담의 기능을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교류와 구체적 사업의 공동참여를 통해서 협력체제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 중의 하나가 국제활동 분야이다. WTO, UR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바 있다. 국제관계 정보의 공유를 위한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대표성과 정체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협회와 가협회가 하나의 단체로서 통합되지 않는 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양 협회의 국제위원회가 정례화된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고 대외적으로 통합된 목소리와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가협회에서 3년전 UIA대회 유치활동을 할 때 사협회에서는 아카시아 활동이 밀거름이 되어서 적극 도운적이 있으며 이번 UIA대회에서도 한국이 상임이사국에 피선되도록 아시아쪽의 기반을 이용해 도운 바 있다.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점을 잘 극복하고 운영의 묘를 갖추면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더 큰 힘을 보태게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쪽의 국제위원들이 다른 협회에서 국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목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빠른 진도를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타 단체의 일부 국제위원을 상호 교환하며 엉갈려 활동하게 하면 사사로운 체면보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합심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 합일점이 생긴다해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상대들은 이러한 특수한 해법을 싫어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이번 UIA상임이사국 선출 때 협회가 협회를 도와서 당선에 일조가 되었다 할때 4지역에 속한 아시아 국가를 낙선시키게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카시아 회원국 조직이 비아카시아 회원조직을 도와서 다른 아카시아 회원국을 폐비시켰다고 나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단체는 상호 배타적인 단체가 아니고 상호의 영역을 서로 포함하는 단체라는 것과 공식화된 협의체제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분할된 활동영역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협회는 UIA 무대에서 아시아국가의 공동이익과 활동목표를 추구하는데 시협회와 협력한다는 점을 아카시아 회원국에게 이해시켜야하며 실제로 국제활동의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가협회의 UIA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UIA 목표를 각 지역별로 실천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UIA 회원국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 협회는 한국 건축계를 살찌게 한다는 첫째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혁명하게 협력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국제무대에서 힘차게 뛸어나가야 할 것이다. 양 단체 이외의 건축학회나 건축역사학회 또는 그 밖의 단체와의 상호 협력문제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투시도

대련 운산 호텔

Dalian Mixed Use Tower Hotel

당선작

(주)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박서홍+이재우)

위치 /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운산대로 6
대지면적 / 4,850㎡
건폐율 / 50%
용적률 / 1,470%
연면적 / 93,261㎡
총수 / 지하4층, 지상40층
구조 / 철골
용도 / 호텔, 아파트,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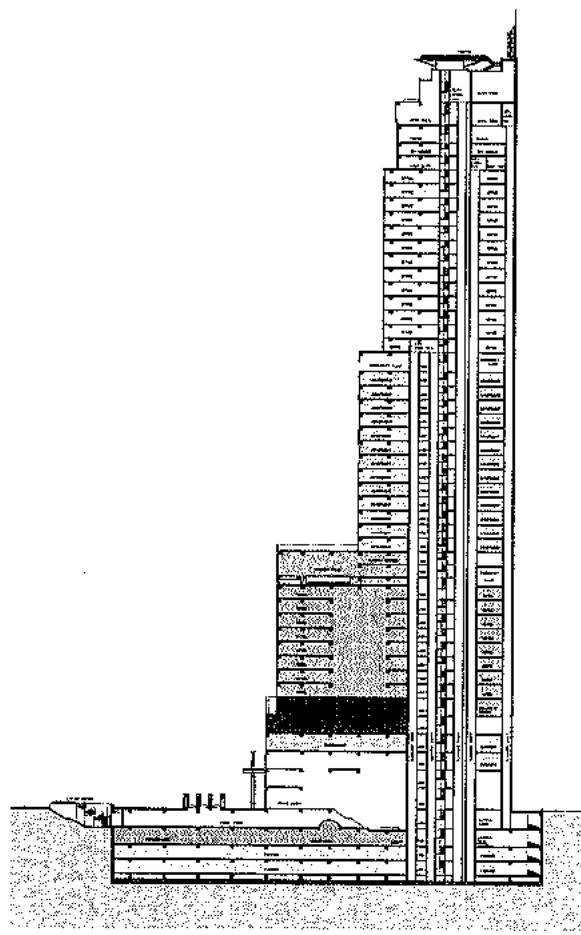
설계담당 / 박동천, 심재우, 이범형, 이창모,
서울구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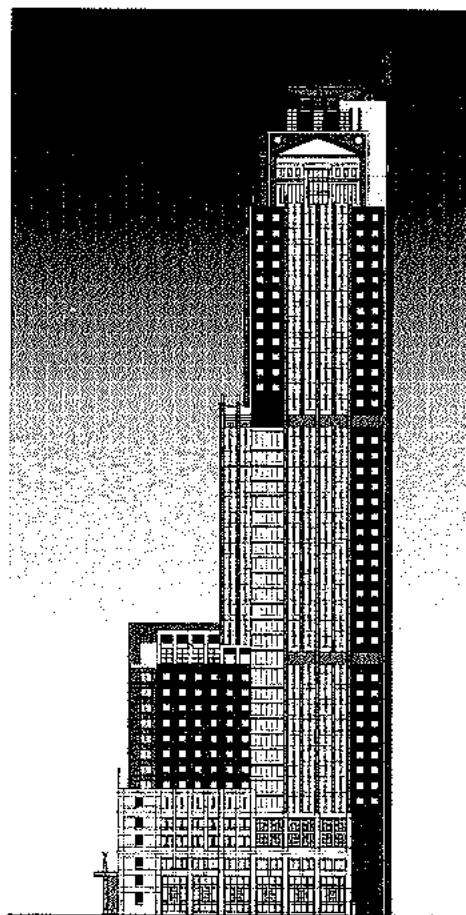
- 복합기능의 경제적 해석
-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에 맞는 계획
- 주차계획은 무시, 높이제한 무시
- 전면광장과의 연계 계획
- 공사비 2백만원(평당, 우리나라 기준)
- 계획설계(한국), 실시설계(중국, 동북설계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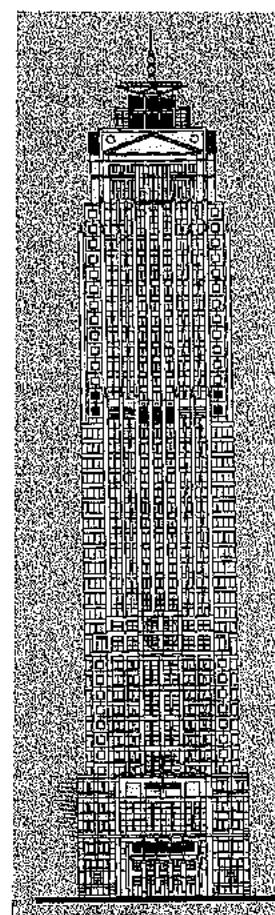
- 호텔을 주로한 임대계획설정
- 지하에 최소의 주차공간 확보
- 신고전주의풍의 도시 분위기 고려
- 기능변환 사이클 10~15년 기준
- 운영 프로그램 제시
- 인근에 컨벤션센터의 가능성
- 환경친화적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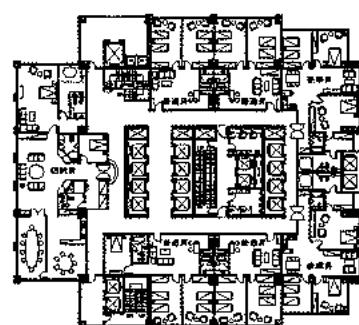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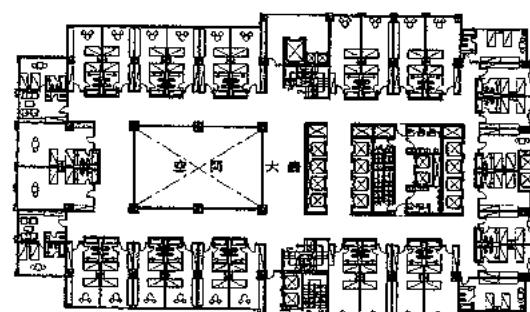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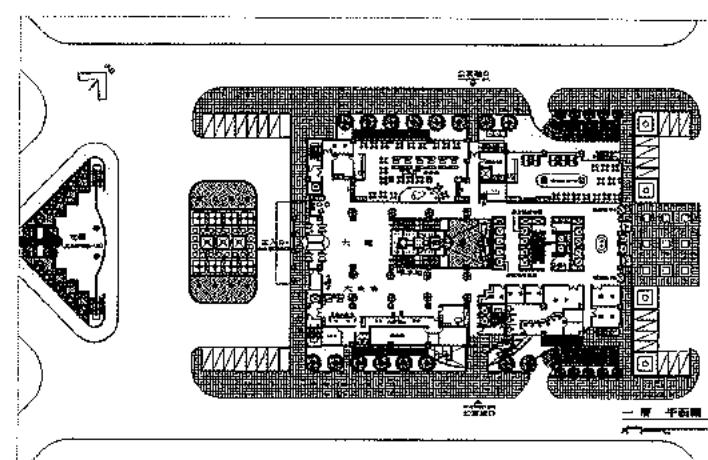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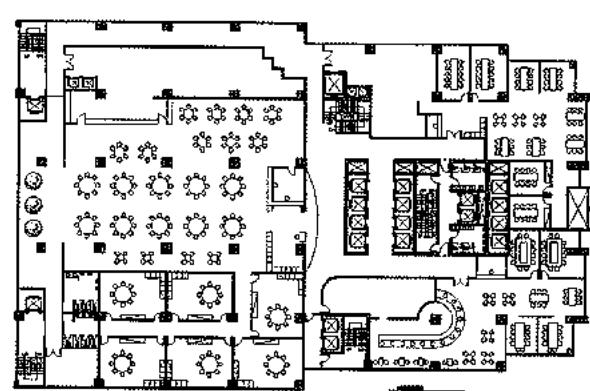
18~29층 평면도



8~1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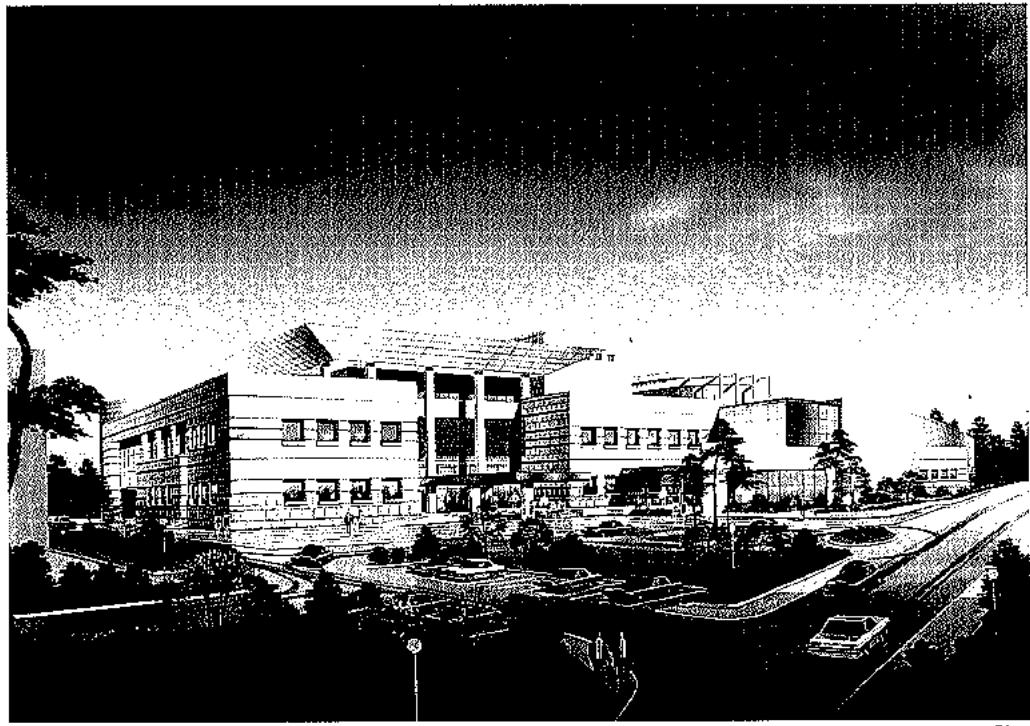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Competition

현상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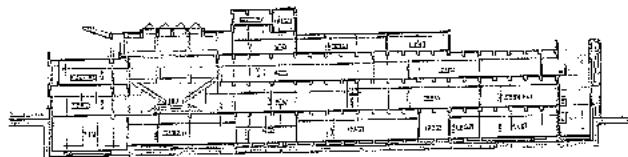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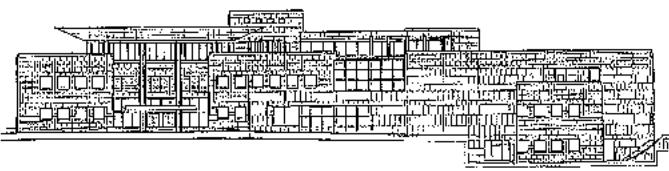
헌정기념관

Commemorative Hall of Constitut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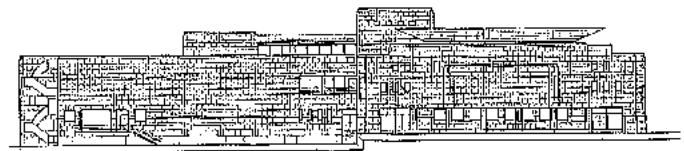
계획대지는 국회의사당 단지 내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대지형태는 대지 북쪽의 20m 전면도로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이 가능하며 원활한 순환체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본관동의 정방형 매스, 전시동의 삼각형 매스, 사무동의 정방형 매스의 유기적 연결 및 각 기능별로 매스와 동선의 분리를 꾀하였다. 건물의 장벽을 도로측에 배치시켜 전면도로에서의 강한 정면성을 갖게 하였고 대칭적 구성, 중앙홀의 천창, 캐노피의 주출입구 등을 강조시켜 본관동 매스의 중심성 및 상징성을 갖게하였다. 건물의 기념비적 성격에 맞춰 관람객을 위하여 전용공간을 배치하고 전시관의 출구에서 옥외조각공원의 보행동선으로의 자연스런 연결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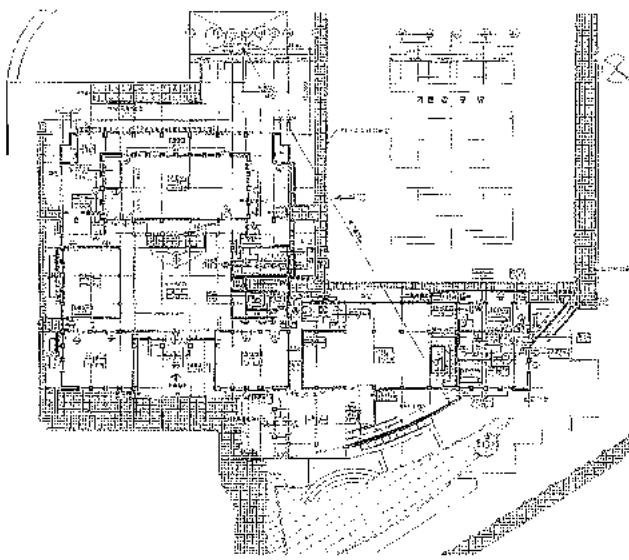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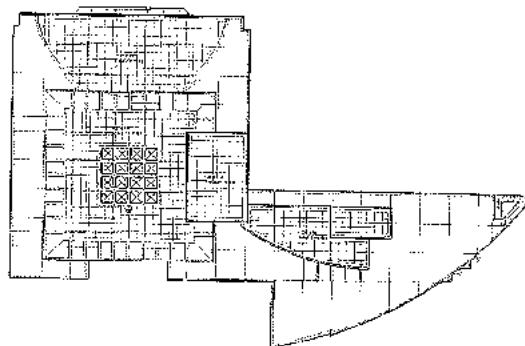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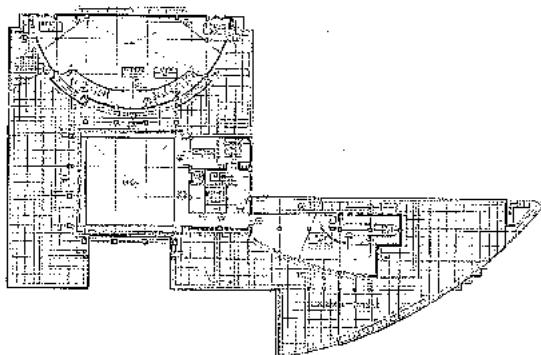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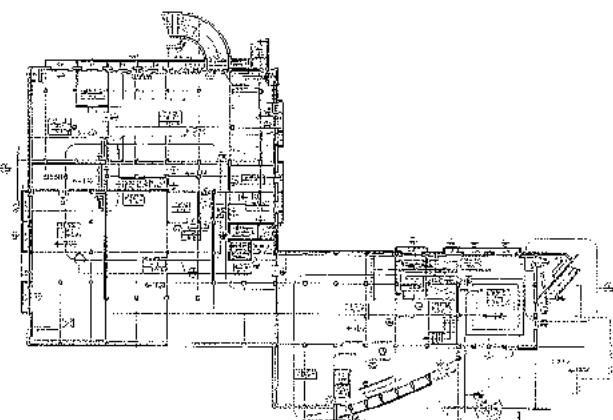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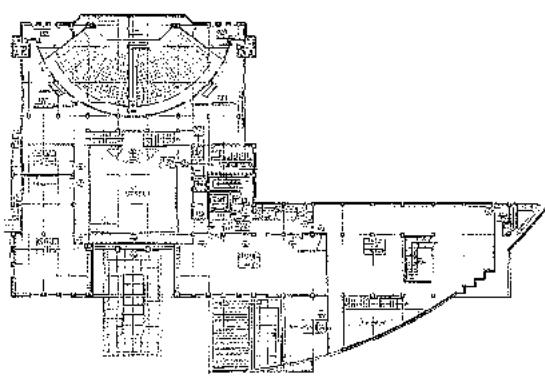
2층평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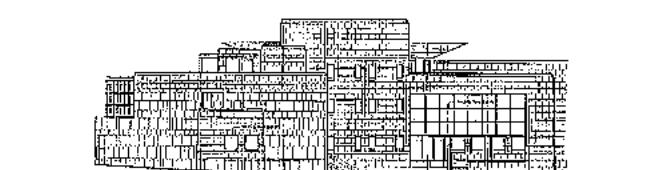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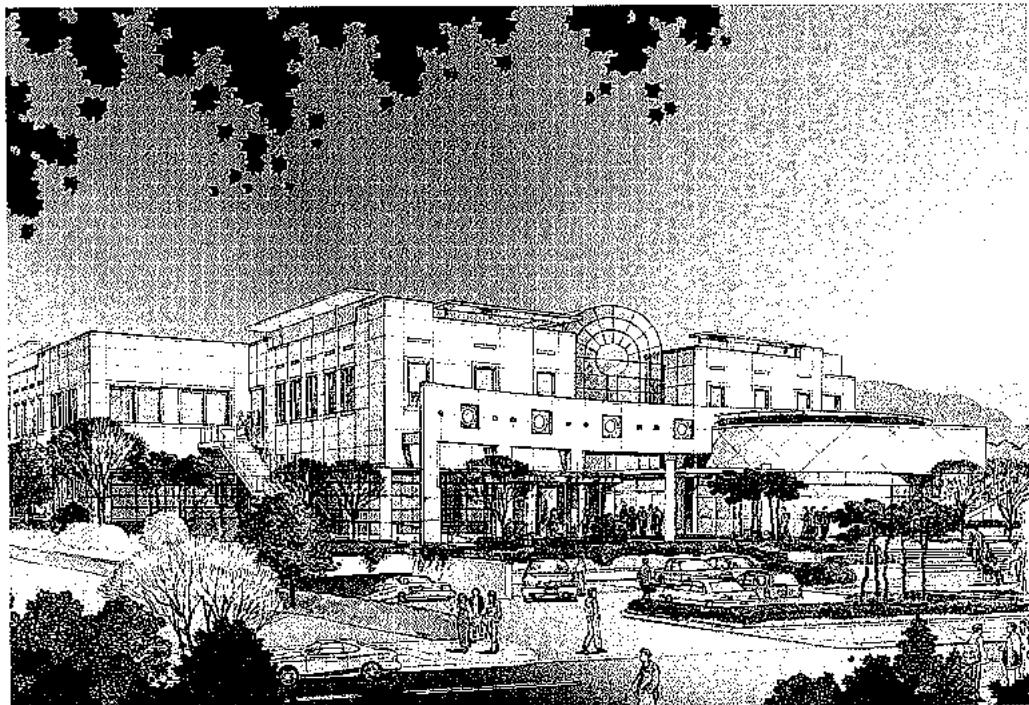
4층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조감도

중랑구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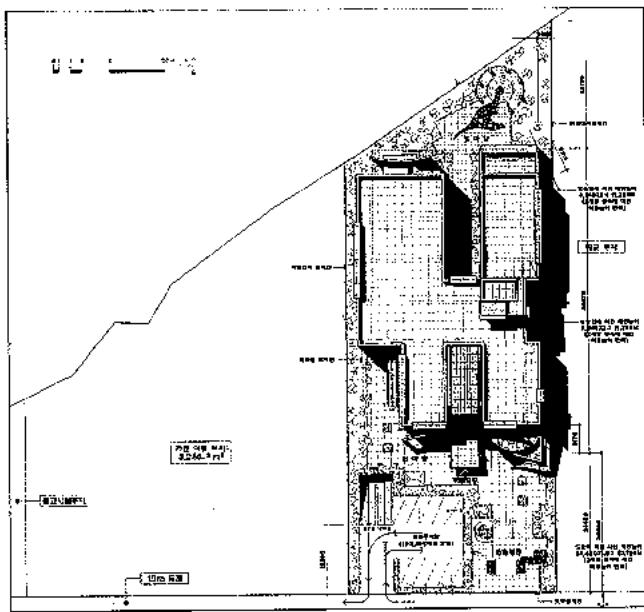
Chungnang-gu Library

지난 8월 13일 중랑구립도서관의 현상설계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총 15개 건축사 사무소가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는 (주)듀얼인터내셔널건축(오용석, 김진권)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민가건축(김석순)과 서울, 진우, 시공, 필건축(정규식)안이 각각 기작으로 선정되었다. 정보화,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자료의 열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실시된 이번 현상설계는 연면적이 1,000평이며, 예정공사비는 36억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선된 (주)듀얼인터내셔널 건축사사무소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설계비 : 177,610천원)이 도서관은 오는 98년 완공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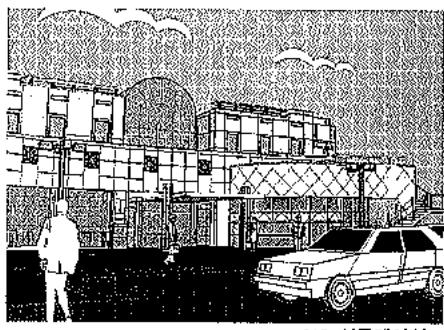
당선작

(주) 듀얼인터내셔널건축(오용석+
김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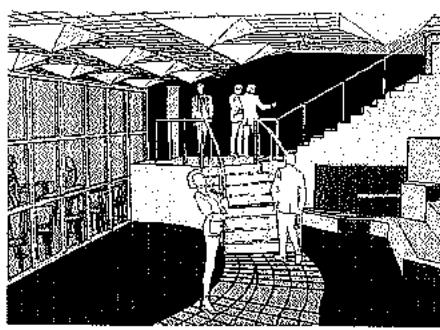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묵동 22
지역 · 지구 / 일원주거지역, 신내택지개발지
구
대지면적 / 3,309㎡(1,000평)
연면적 / 3,442.71㎡(1,041.41평)
건축면적 / 1,249.6㎡(378.0평)
건폐율 / 37.76%
용적률 / 68.20%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 화강석 베니큐이, 캘러복충유리
주요용도 / 공공도서관
주차대수 / 24대
조경면적 / 794.8㎡
설계담당 / 민세일, 이종윤, 김재윤, 최운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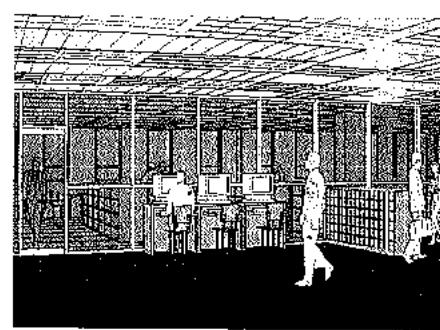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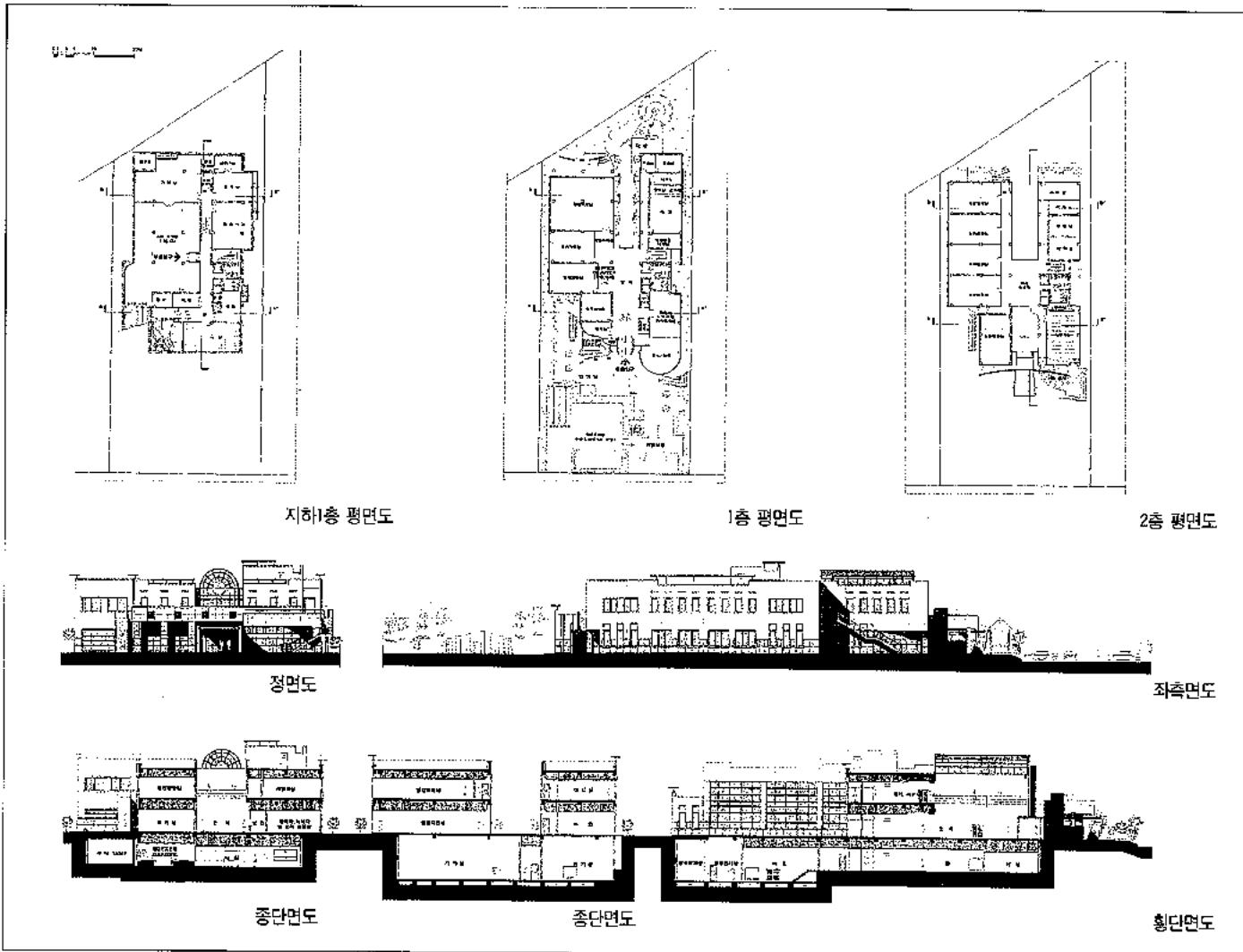
CAD 시뮬레이션 1



CAD 시뮬레이션 2



CAD 시뮬레이션 3



도서관의 자체기능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호 조합하여 각자의 기능상 충돌을 피하고, 정보화 도서관이 갖는 독립성, 공공성, 개방성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으며, 전체적인 배치에 있어, 대지를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의 3개 영역권으로 설정, 각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였다.

전면부는 진입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하여, 차량 및 서비스 동선은 지하층으로 유도하고, 옥외공간은 자연스러운 유도 및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계단을 통한 진입공간의 위계를 부여하고,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과 일체감을 위하여 선큰가든을 고려하였다.

중앙부의 도서관은 정보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하여, 자료 열람공간을 최대한 수용하였고, 관리 및 열람동선의 명쾌한 분리로 이용동선 및 도서관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남측의 휴게공간과 관통되는 로비를 통해서 외부환경과의 연속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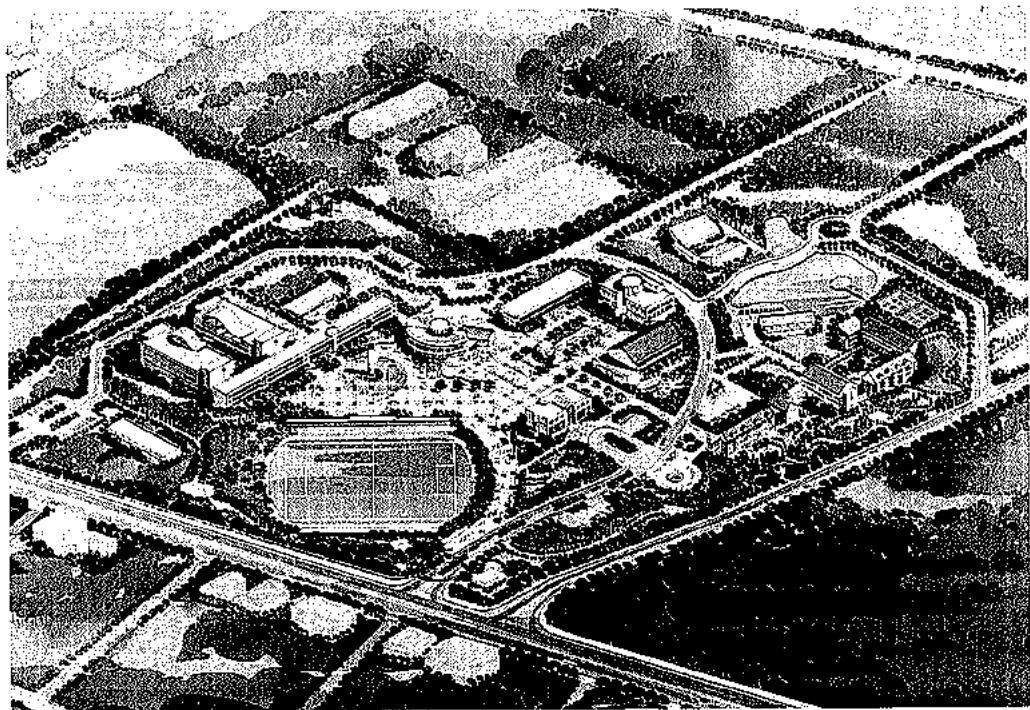
2층으로의 진입은 주·야간 운영에 대비하여, 별개의 출입시설을 두었고, 복도에 면한 개구부를 통하여, 채광 및 조망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부지여건상 증축에 대한 개념은 수직방향의 증축이 고려되었고, 수요에 의한 필요면적차를 만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후면부의 휴게공간은 성격을 정적인 휴게공간으로 설정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관리직원들을 위한 사색 및 쉼터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면의 구성개념은 내부 기능의 외부표출 및 증축에 대한 고려로 절제된 형태미를 추구하였고, 부분적으로 강조된 조형적 요소들을 통하여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기능과 연계된 포용력을 부여하였다.

중랑구립도서관의 신축으로 지역사회로의 문화적, 교육적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상의 장소로서의 도시적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김진권)



조감도

강원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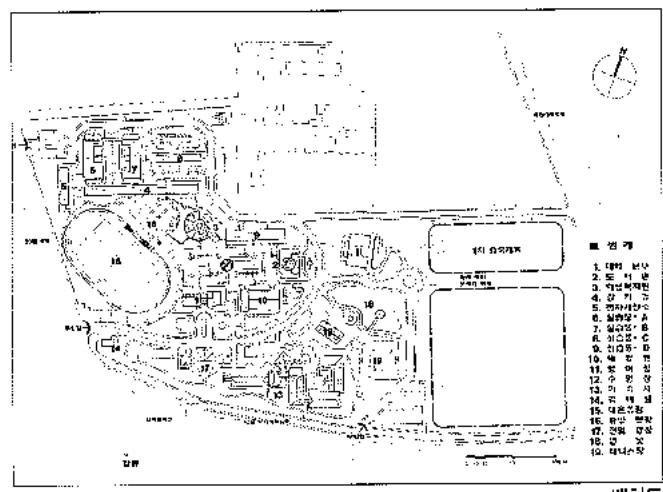
Kangwon College

강원전문대학신축설계경기의 당선작이 지난 6월 21일 발표되었다. 총 9개의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주.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이각표)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한광호)의 공동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건축사사무소 원. 시공. 형제(정상원)와, 주.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공순구)의 안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설계경기는 강릉시 주문진의 주문진소속고등학교 4만 8천여평 부지의 기존교사동, 실습동 증축과 대학본관, 도서관 등을 비롯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원전문대설립방안 및 중.장기발전계획연구"에 의거 전문대학의 설립이념 및 목적,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시설확충계획의 반영, 옥외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하는 것을 기본 설계방향으로 잡았다. 이번 심사는 한봉기(기획관), 이중근(건설교통국장)과 강원대, 관동대, 삼척산업대, 춘천교육대의 건축 및 조경학과 교수 등 총 10명이 맡았다. 당선된 주.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의 공동안은 적절한 조닝캠퍼스 내외의 접근성양호와 보차분리와 토지이용계획의 우수 등 여러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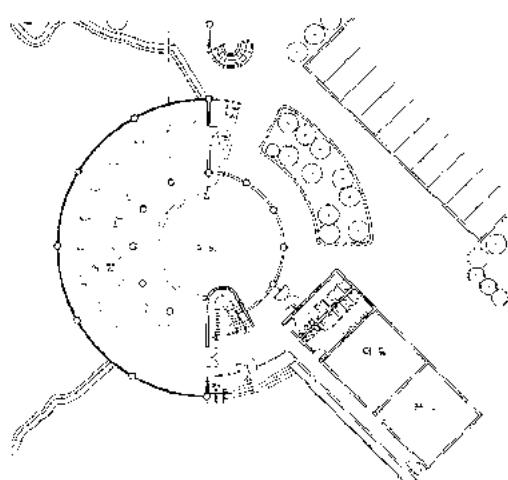
당선작

(주)엄앤드이건축(이각표)+
(주)종합건축 산(한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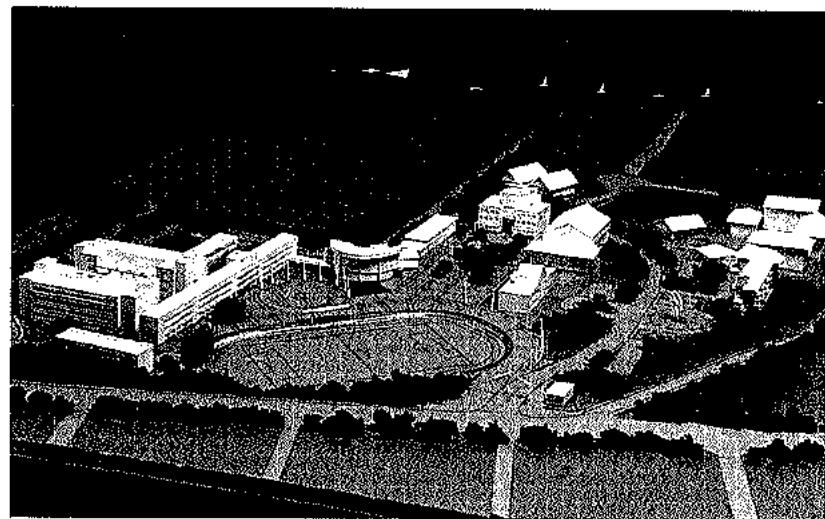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8-2번지와 4필지
계획지역 / 자연녹지지역(학교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 159,089.00m²
건축면적 / 12,410.70m²
연면적 / 28,466.64m²
건폐율 / 7.80%
용적률 / 16.32%
조경면적 / 63.50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적벽돌
주차대수 / 15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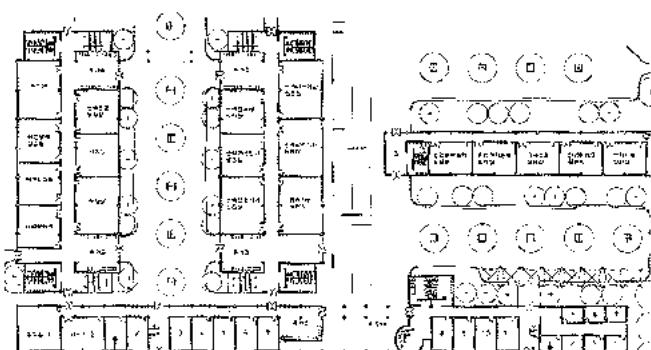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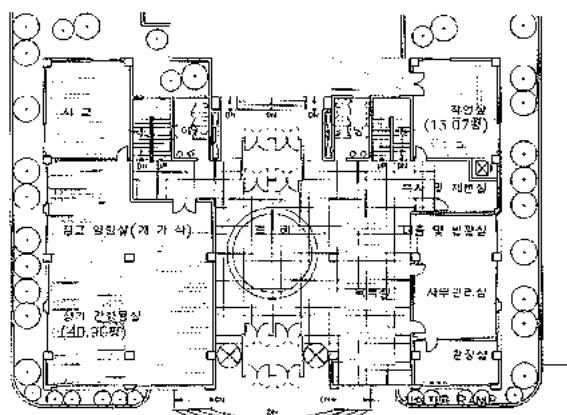
학생복지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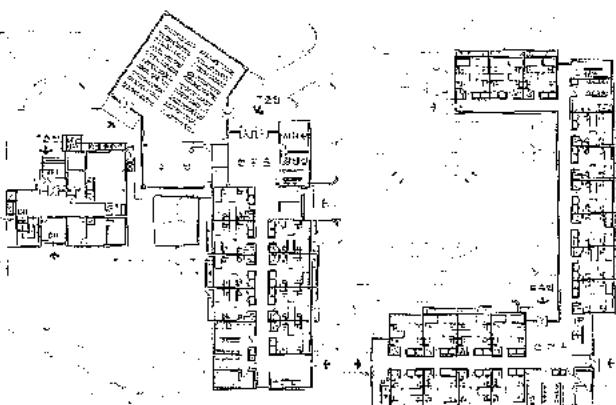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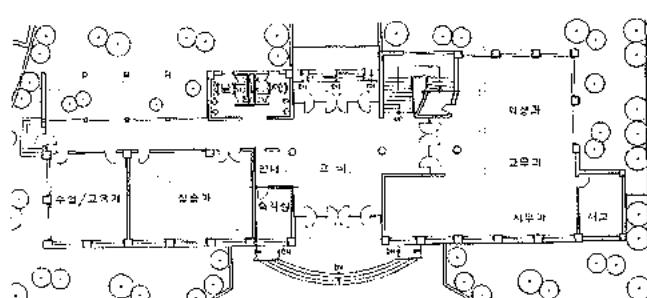
강의동(실습동) 1층평면도



도서관 1층평면도



기숙사동 1층평면도



대학본부 1층 평면도

계획의 목적 및 의의

- 목적**
-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중견직업인 육성
- 현직증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중견 기술인력 지원의 생산력 극대화
- 의의**

- 주문진 및 인근 지역의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 기술인력 양성 및 장기적으로 강원도 동해안 개발, 한국사회의 어업, 해양발전에 기여
- 주문진 및 인근지역의 고교졸업생들의 타시도의 고등교육 기관 입학에 필요한 교육비를 줄이고 인구유출방지

계획의 기본방향

- 자연에 순응**
- 지형지세에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공간계획
-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활용 및 산림훼손 최소화
- 개발범위 적정화
- 인간중심**
- 학생과 교수위주의 최적공간 환경부여

- 친근감 있는 내·외부 공간 및 형태 구성
- 합리성 및 경제성
- 교육지원시설에 대한 탄력적인 검토
- 기능의 편의성과 동선의 유기적인 연결도모

우수작

원·시공·형제건축(정상원)

대지면적 / 169,089㎡
건축면적 / 11,902㎡
연면적 / 29,284㎡
건폐율 / 7.48%
용적률 / 18.40%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적벽돌+시스템 외단열마감

축의 설정

- 남북 및 동서방향의 설정
- 대지축에 따른 대학시설 발전
축

토지이용

- 시설군별 집약화에 의한 효율
적인 토지이용
- 환경사지 최대 활용한 시설군
배치

공간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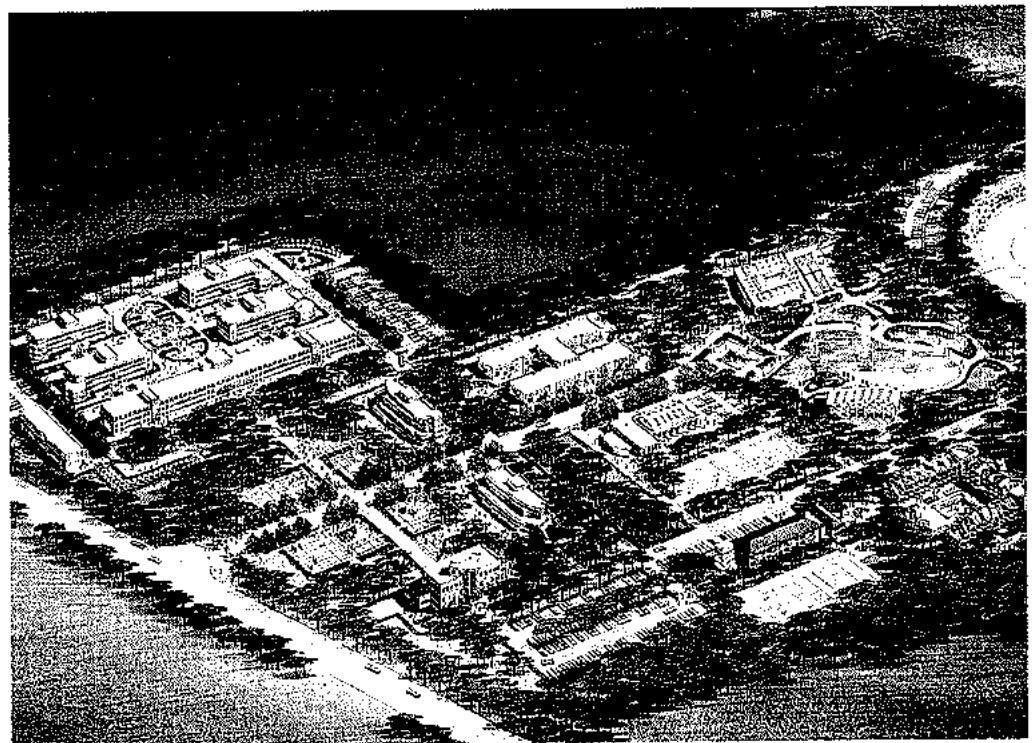
- 시설군별 관련시설에 대한 영
역설정
- 캠퍼스 중심시설, 연구·강
의·실험·사색·휴게·거주,
심신단련원칙에 의한 공간의
조직화, 체계화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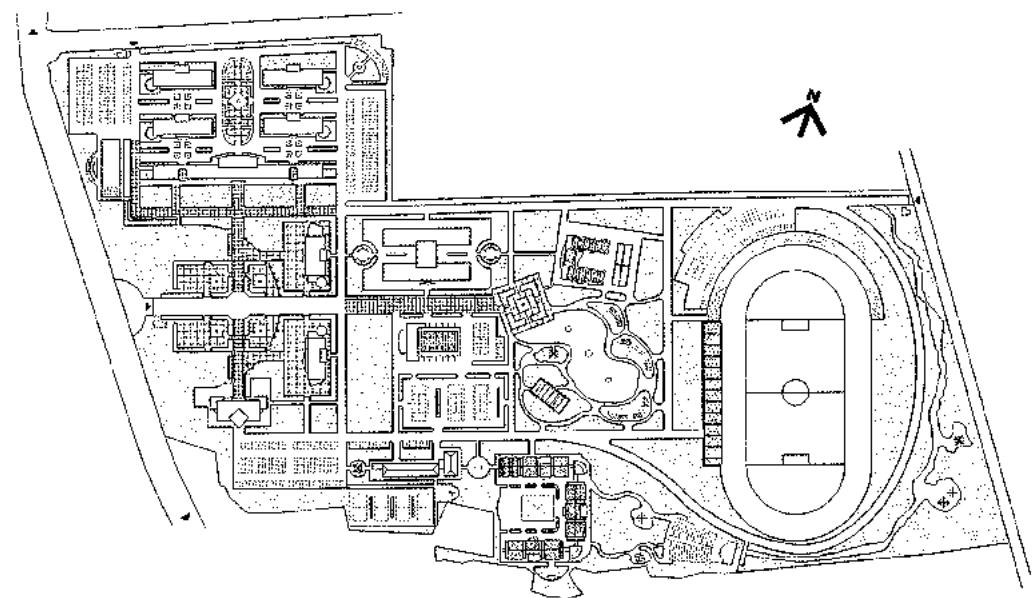
- 향과 바람, 전망, 보행접근성,
외부공간의 영역감 조성에 맞
는 배치
- 캠퍼스 중심시설은 캠퍼스 전
체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심부
에 배치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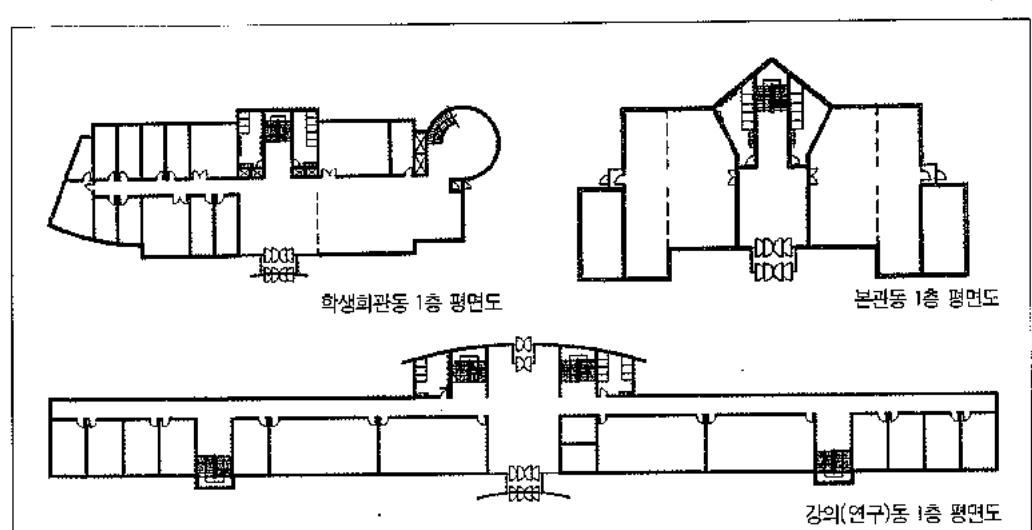
-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분리를
원칙화 함
- 비상시를 대비한 차량동선 설
정



조감도



배치도



우수작

건우사 건축(공순구)

대지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8-2번지 4

필자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 보호지

구

대지면적 / 159,089m²(4,812.42평)

건축면적 / 11,143m²

연면적 / 32,996.64m²(9,981.4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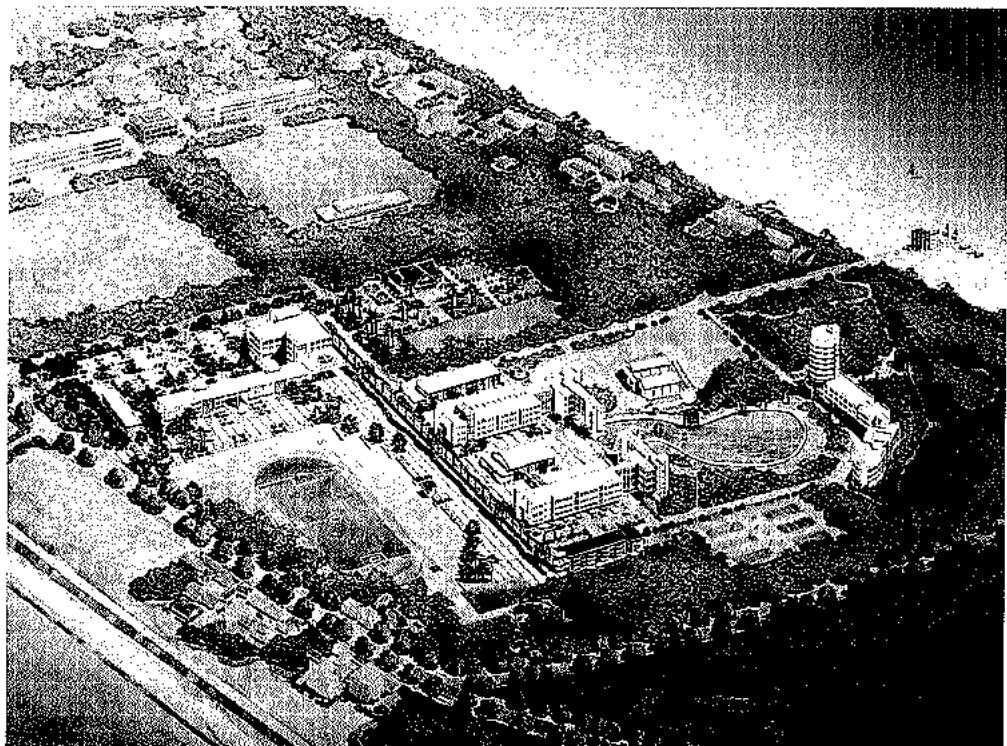
건폐율 / 7%

용적률 / 19.20%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 외장재료 / 흰색본타일마감+스틸루버

(소부도장)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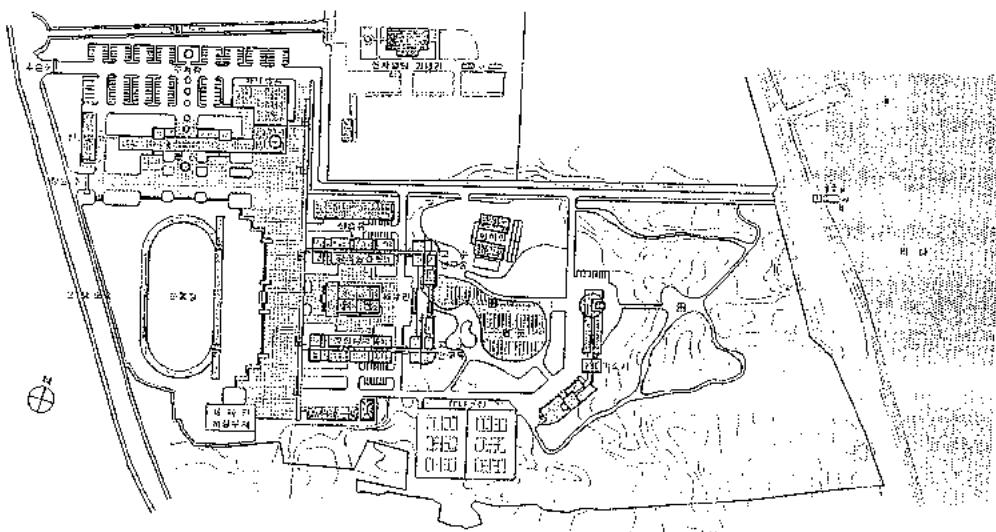
배치 및 공간구성 개념

- 점(Folly), 선(도로,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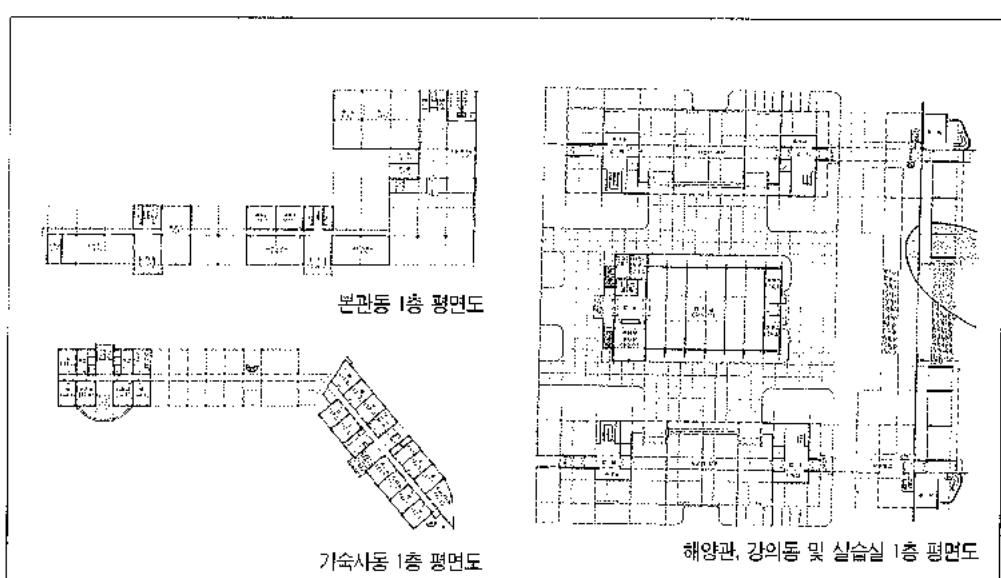
- 부지내 선적인 요소가 되는 도로, 또는 시선축이 이루는 가상의 선 상에 정적인 요소를 위치하여 강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갖게하였다.
- 보행자 운동 및 시설을 유도하는 직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캠퍼스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요소 및 이정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의 체계는 회로와 같은 형태로 써 치밀하게 각 건물들과 연계되어 각 건물로의 유입을 보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 자연과의 융화(Piloti 구조)

캠퍼스내의 자연경관(해승숲)은 대지내 공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건물 및 신축 건물 모두가 이의 조화 및 융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건물로부터 또는 보행자로부터 시선을 좀 더 자연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건물의 저층부를 일부분 Void화함으로써 인간과 건물이 자연속에 융화하도록 하였다.



배치도



본관동 1층 평면도

기숙사동 1층 평면도

해양관, 강의동 및 실습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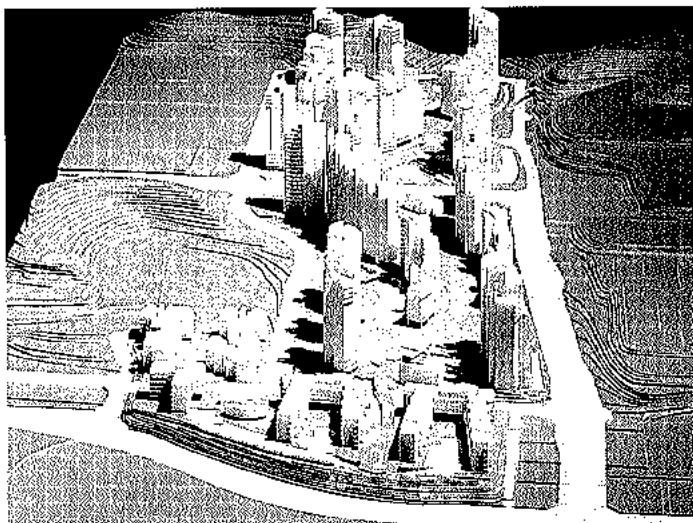
Competition

현상설계경기

A지구 당선작

한빛건축(민승렬)

대지면적 / 89,470.0m²
 건축면적 / 15,228.77m²
 연면적 / 143,332.96m²
 용적률 / 655.61%
 녹지율 / 11.67%



A 지구 최우수작 단지 모형도

기흥상갈지구 주공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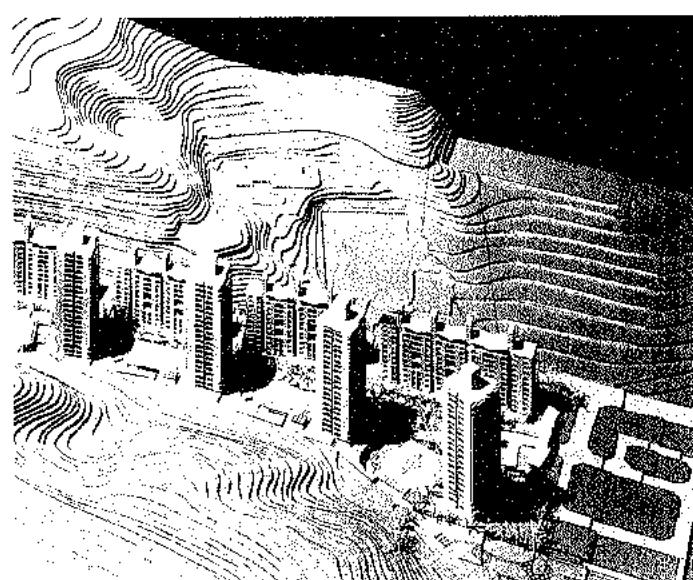
Kiheung Sanggal-District Apartment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100만호 주택건설을 이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주거환경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상갈지구를 100만호 사업단지로 지정하여 현상설계를 공모한 결과 총 23개 업체(A블럭 : 10개 업체, B블럭 :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A블럭의 최우(수작으로는 한빛건축사사무소(민승렬))의 안, B블럭의 최우수작은 (주)건축사사무소 창일엔지니어링(문정일)의 안이 당선되었으며 최종 8개 업체가 입선되었다. 특히, 이번 현상설계공모방식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2개 블록으로 나누어 공모함으로써 많은 신진건축가들의 참여도를 높여 그 결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수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B지구 당선작

창일(엔)건축(문정일)

대지면적 / 28,240m²
 건축면적 / 5,243.32m²
 연면적 / 82,389.04m²
 건폐율 / 18.56%
 용적률 / 214.52%



B 지구 최우수작 단지 모형도

입선작 현황

A지구 :

- 최우수작 – (주)한빛건축사사무소(민승렬)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곽홍길)

• 가작 – (주)창일도시건축사사무소(이종수)

B지구

- 최우수작 – (주)건축사사무소 창일엔지니어링(문정일)
-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꾸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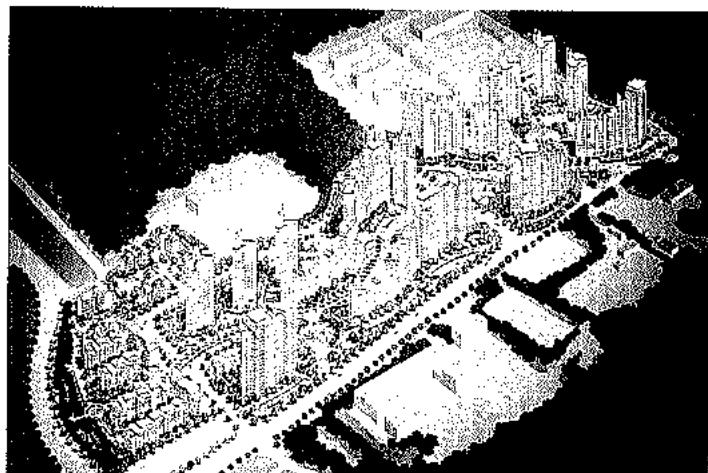
(유난영)

- 가작 – (주)강남건축사사무소 (곽동수)
- 가작 – (주)건축사사무소 우양 환경(강형석)
- 가작 – (주)전인건축사사무소 (안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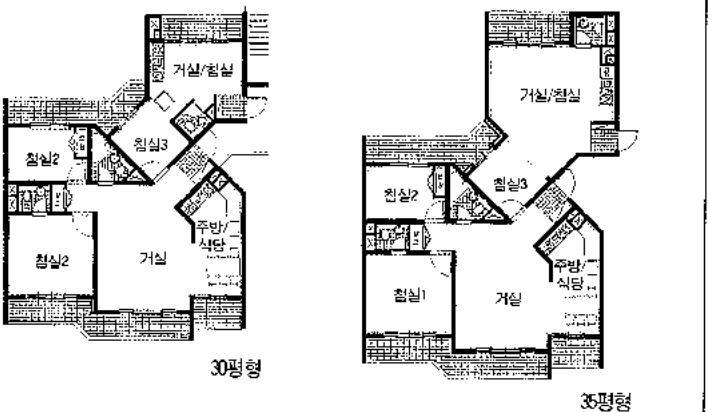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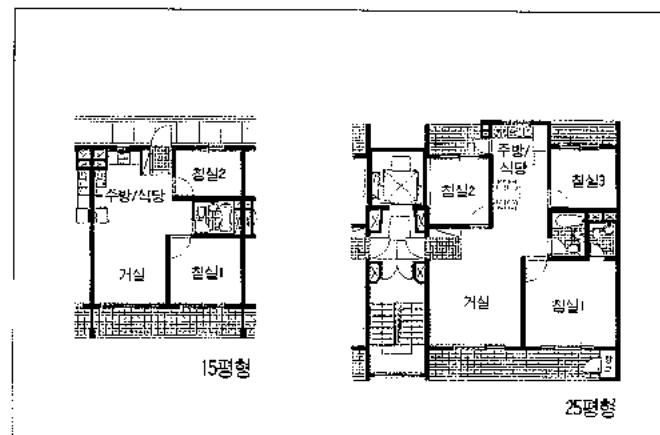
A지구 최우수작 특징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단지조성 및 독가적인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판상형의 주동형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인근공원의 산세능선과 한국적 논두렁의 선을 주동형태로 승화시켜, 미려한 주변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단지 고저차에 의해 펼쳐지는 옥외공간을 상호연결하여 공간감과 개방감을 부여하여 주민이 함께 모여 담화하고, 겉고 싶은 동네가 되도록 커뮤니티 공간 및 광장 등을 마련하였다.



A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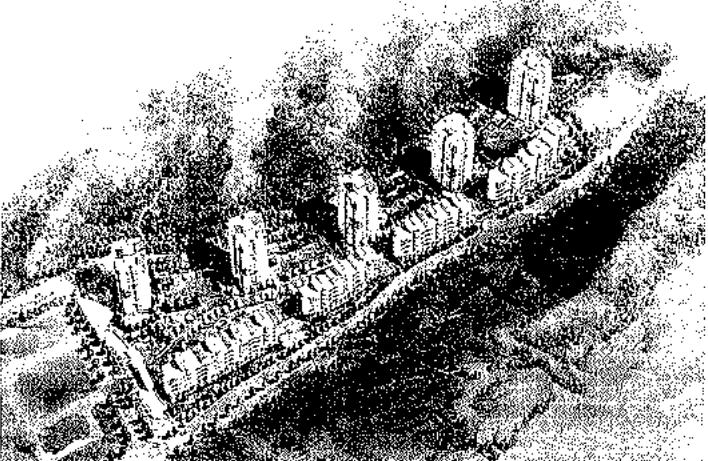
A지구 단위세대 평면도

B지구 최우수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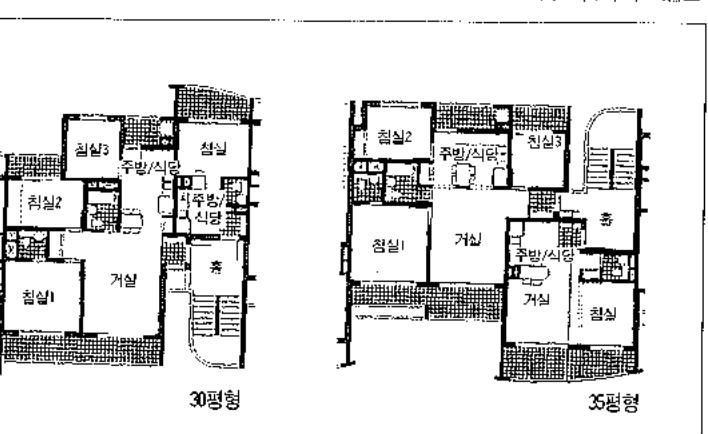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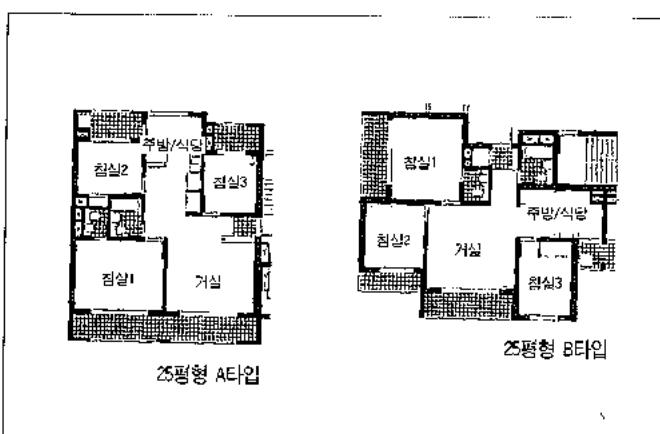
길게 뻗은 대지와 북측의 환경을 요소화하는 배치로 남측에는 판상형의 주동으로 기본적인 시계를 유도하고 북측에는 탑상형을 배치함으로써 인근공원의 녹지를 단지내로 끌어들여 시야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동계획은 판상형과 상징적인 고층 타워형으로 계획하여 높이와

입면의 분절을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이루었고, 타워형 주거동은 4면에서의 전면성과 조망성을 중시하여 계획하였으며 또한 단지 고저차에 의해 연계된 보행자 물을 따라 북측의 공원을 바라보며 겉고심은 동네, 살고싶은 동네가 되도록 하였다.



B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B지구 단위세대 평면도

96년도 7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9백8만구천3백9십6m² 보다 18.4%(1백6십7만5천3십1m²) 증가한 1천7십6만4천4백2십7m²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누계 7천6백7만9천3백8십7m² 보다 10.3%(7백8

십4만7천5백9십7m²) 감소한 6천8백2십3만1천7백9십7m²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6월분 9백8십1만1천9백7십5m²보다 9.7%(9십5만2천4백5십2m²) 증가한 1천7십6만4천4백2십7m²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²)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529,664	4,870,224	3,340,560 218.4
	부 산	364,928	758,275	393,347 107.8
	대 구	459,975	945,658	485,683 105.6
감소지역	인 천	338,540	381,113	42,573 12.6
	광 주	208,485	423,111	214,626 102.9
	대 전	216,073	100,081	(115,992) -53.7
	경 기	1,948,146	1,464,563	(483,583) -24.8
	강 원	305,887	264,265	(41,622) -13.6
	충 북	629,128	223,661	(305,467) -57.7
	충 남	445,797	201,667	(244,130) -54.8
	전 북	324,540	195,136	(129,404) -39.9
	전 남	771,519	100,221	(671,298) -87.0
	경 북	847,091	213,625	(633,466) -74.8
	경 남	679,286	577,107	(102,179) -15.0
	제 주	120,337	45,720	(74,617) -62.0
합 계		9,089,396	10,764,427	1,675,031 18.4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²)		
구 分	6월분	7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1,605,861	1,766,103	160,242	10.0
다 세 대 주 택	613,698	481,463	(132,235)	-21.5
연 립 주 택	180,814	241,377	60,563	33.5
아 파 트	2,560,853	3,582,278	1,021,425	39.9
근린생활시설	1,982,546	1,727,772	(254,774)	-12.9
종 교 시 설	81,160	94,171	13,011	16.0
의 료 시 설	233,502	47,392	(186,110)	-79.7
교 육 연구 시 설	221,701	324,883	103,182	46.5
업 무 시 설	254,835	301,736	46,901	18.4
숙 박 시 설	220,151	211,569	(8,582)	-3.9
공 장	806,832	894,880	88,048	10.9
기 타	1,050,022	1,090,803	40,781	3.9
계	9,811,975	10,764,427	952,452	9.7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 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126	3,184	755,706	5,244	5,289	1,766,103	2,098	2,105	1,010,397	113.7	
다 세 대 주 택	698	726	306,718	877	926	481,463	179	200	174,745	57.0	
연 립 주 택	94	101	164,910	172	178	241,377	78	77	76,467	46.4	
아 파 트	147	502	3,152,464	115	247	3,582,278	(32)	(255)	429,814	13.6	
근 린 생 활 시 설	2,848	2,961	1,237,888	3,733	3,856	1,727,772	885	895	489,884	39.6	
종 교 시 설	109	119	67,418	109	115	94,171	0	(4)	26,753	39.7	
의 료 시 설	27	27	132,826	17	18	47,392	(10)	(9)	(86,434)	-64.3	
교 육 연구 시 설	110	119	209,835	137	143	324,883	27	24	115,048	54.8	
업 무 시 설	98	111	593,956	87	92	301,736	(11)	(19)	(292,220)	-49.2	
숙 박 시 설	122	128	205,115	172	171	211,569	50	43	6,454	3.1	
공 장	833	1,138	1,231,413	695	910	894,880	(138)	(228)	(336,533)	-27.3	
기 타	1,062	1,267	1,031,147	1,072	1,228	1,090,803	10	(39)	59,656	5.8	
합 계	9,274	10,383	9,089,396	12,410	13,173	10,764,427	3,136	2,790	1,675,031	18.4	()=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7월분)

구분	1995년			1996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27,771	28,242	7,071,650	26,628	27,205	8,059,652	(1,143)	(1,037)	988,002	14.0	
다세대주택	5,350	6,167	2,658,750	5,012	5,329	3,045,203	(338)	(838)	386,453	14.5	
연립주택	790	842	1,144,102	769	803	1,064,538	(21)	(39)	(79,564)	-7.0	
아파트	1,176	4,206	26,725,363	741	1,530	23,434,416	(435)	(2,676)	(3,290,947)	-12.3	
근린생활시설	24,959	25,736	11,517,106	23,440	24,442	11,217,165	(1,519)	(1,294)	(299,941)	-2.6	
종교시설	812	932	608,994	721	822	685,300	(91)	(110)	76,306	12.5	
의료시설	170	182	632,915	159	186	558,031	(11)	4	(74,884)	-11.8	
교육연구시설	833	967	2,254,913	652	732	1,980,795	(181)	(235)	(274,118)	-12.2	
업무시설	824	861	4,243,266	576	601	2,595,236	(248)	(260)	(289,035)	-38.8	
숙박시설	889	967	1,287,012	929	986	997,977	40	19	(289,035)	-22.5	
공장	6,001	8,362	8,938,016	4,604	6,089	6,603,994	(1,397)	(2,273)	(2,334,022)	-26.1	
기타	7,208	8,760	8,997,300	6,503	7,671	7,989,483	(705)	(1,089)	(1,007,817)	-11.2	
합계	76,783	86,224	76,079,387	70,734	76,396	68,231,790	(6,049)	(9,828)	(7,847,597)	-10.3	0=미어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분	1995년			1996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356	1,356	1,529,664	4,228	4,232	4,870,224	2,872	2,876	3,340,560	218.4	
부산	864	937	364,928	668	905	758,275	(196)	(32)	393,347	107.8	
대구	1,148	1,168	459,975	646	646	945,658	(502)	(522)	485,683	105.6	
인천	343	360	338,540	448	455	381,113	105	95	42,573	12.6	
광주	223	274	208,485	349	419	423,111	126	145	214,626	102.9	
대전	192	193	216,073	232	243	100,081	40	41	(115,992)	-53.7	
경기	1,663	1,901	1,948,146	2,635	2,789	1,464,563	972	888	(483,583)	-24.8	
강원	510	550	305,887	514	559	264,661	4	9	(41,622)	-13.6	
충북	523	610	529,128	442	492	223,661	(81)	(118)	(305,467)	-57.7	
충남	378	423	445,797	363	311	201,667	(15)	(112)	(244,130)	-54.8	
전북	261	278	324,540	246	246	195,136	(15)	(32)	(129,404)	-39.9	
전남	371	482	771,519	230	255	100,221	(141)	(227)	(671,298)	-87.0	
경북	516	756	847,091	492	585	213,625	(24)	(171)	(633,466)	-74.8	
경남	821	963	679,286	796	911	577,107	(26)	(52)	(102,179)	-15.0	
제주	105	132	120,337	122	134	45,720	17	2	(74,617)	-62.0	
합계	9,274	10,383	9,089,396	12,410	13,173	10,764,427	3,136	2,790	1,675,031	18.4	0=미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7월분)

구분	1995년			1996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1,767	11,831	11,858,889	17,536	17,568	31,502,345	5,769	5,737	19,643,456	165.6	
부산	6,230	7,406	4,932,912	4,992	6,609	6,121,009	(1,238)	(797)	1,188,097	24.1	
대구	8,654	9,112	5,389,770	5,968	6,012	4,453,459	(2,686)	(3,100)	(936,311)	-17.4	
인천	2,877	3,036	3,972,817	2,540	2,569	2,634,153	(337)	(467)	(1,338,664)	-33.7	
광주	1,977	2,619	2,939,948	2,160	2,574	1,751,233	183	(45)	(1,188,715)	-40.4	
대전	1,904	2,072	2,307,381	2,235	2,272	1,251,716	331	200	(1,055,665)	-45.8	
경기	14,362	16,251	16,541,716	12,801	13,959	7,770,874	(983)	(1,136)	(1,275,009)	-53.0	
강원	4,109	4,866	3,277,974	3,078	3,345	1,316,858	(1,031)	(1,521)	(1,961,116)	-59.8	
충북	3,713	4,177	2,725,793	2,730	3,041	1,450,784	(983)	(1,136)	(1,275,009)	-46.8	
충남	3,142	3,420	5,051,379	2,124	1,905	1,345,353	(1,018)	(1,515)	(3,706,026)	-73.4	
전북	1,923	2,155	2,564,032	1,593	1,595	1,219,775	(330)	(560)	(1,344,257)	-52.4	
전남	2,841	3,386	2,368,080	2,153	2,380	1,053,455	(688)	(1,006)	(1,314,625)	-55.5	
경북	4,705	6,131	4,792,893	3,144	3,836	1,669,891	(1,561)	(2,295)	(3,123,002)	-65.2	
경남	7,006	8,098	6,652,866	6,605	7,565	4,180,474	(401)	(533)	(2,472,392)	-37.2	
제주	1,57	1,664	702,937	1,075	1,166	510,411	(498)	(498)	(192,526)	-27.4	
합계	76,783	86,224	76,079,387	70,734	76,396	68,231,790	(6,049)	(9,828)	(7,847,597)	-10.3	0=미어너스

건설산업기본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30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246호로 입법 예고돼 오는 19일(수)까지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설계 및 전기·통신·설비 부문의 건설업에 포함여부 문제로 우리협회 및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가진 총청회에서 우리 협회 및 관련 단체들은 건설업과는 별개인 각 분야의 특수성을 들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후 우리 협회는 건교부·당국 간의 지속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협회측 의견이 대부분 반영,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p. 28 참조).

「'9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심사 마쳐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1세기 신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문화 행사인 「'96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 작품심사가 끝났다.

총 75작품(주거부문 28점, 비주거부문 47점)이 출품된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0일 작품을 접수마감하여 8월 23일 1차 사진첩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1일에 있을 계획건축물부문 심사결과와 함께 9월 16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9월 16일(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같은 장소에서 24일(화)까지 계속된다.

이번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한창진(전 대한건축사협회회장, 한정건축, 위원장), 안영배(서울시립대교수), 지순(간삼건축, 95년도 대상수상자), 심우갑(서울대교

수), 이호진(건국대교수), 정훈(서울경제신문부국장), 박칠립(대우건설기술연구소 소장) 이상 7명

우리협회, 수재민을 위한 성금 기탁

우리 협회는 지난 여름 경기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깊은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지난 8월 20일 조선일보사에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였다.

또 서울시건축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건축사회에서도 지역방송국과 신문사 등에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수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조속한 재활 복구를 기원하였다.

이번에 협회와 각 시·도건축사회가 기탁한 수재의연금 총액은 3천9백만원이다.

서울시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제4기 강좌 열어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에서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시민건축대학」 제4기 강좌를 연다. 시민건축대학은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 건축행정, 법규, 건축자재정보 등 건축과 관련한 교양강좌를 통해 내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나 소규모 시공업자 그리고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강좌내용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풍수지리, 건축법규, 건축설비, 기타 행정업무 등이며 강좌기간동안 매주 2회(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실시된다.

장소는 대한건축사협회회관 1층 세미나실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건축사회 기술지도부/581-5715

□ 제4기 시민건축대학 강좌내용 및 일정

일 시	내 용	강 사	비 고
9. 2(월)	풍수지리(양택론)	박시익(도봉건축 대표)	입교식
9. 5(목)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시량(태신종합건축 대표)	
9. 9(월)	건축법규	윤혁경(서울시청도시경관과)	
9. 12(목)	건축시공	장양순(중합건축 동맹 대표)	
9. 16(월)	건축설비(주택 등의 브일더 관리)	이정기(에너지관리공단 기획실 차장)	
9. 19(목)	건축설내상식	함정도(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 교수)	
9. 23(월)	현대건축 소개	김형우(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	수료식

* 강좌의 일시 및 내용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건축사회, 제2회 건축관계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광경

경기도와 경기도 건축사회는 지난 6월 17일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21세기를 대비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제1회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공무원 등 건축관계자 6백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인제 경기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건축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건축분야의 일대혁신과 빌전을 당부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특히 발표자 및 토론자가 모두 건설현장에서 현업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 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관계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진솔하고 현실적인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의 주요 토론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건설업 시공자·등록제의 조기실시와 설계비와 감리비, 현실화 등이 거론되었으며 제도적인 개선과제로는 대규모 건설공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장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 책임도 부과하는 건설공사현장 실명제 도입,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건설업의 내실화를 위해 성실한 입찰자제의 필요성과 철저한 검증에 의한 설계, 유지관리의 중요성 제고 등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토의되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이날 행사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연 2회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하고 오는 10월 말 경 수원지역에서 제2회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건축사회 등산동호회, 킬리만자로 등반

대구건축사회의 등산동호회원인 김두하, 박현일, 조정부 회원이 아프리카대륙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이들 대구건축사회 등산동호회원들은 지난 8월 1일 대구공항을 출발 홍콩, 봄페이 등을 거쳐 케나의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해 다시 버스 편으로 300km를 달려 아루사라는 마을에서 최종 등반준비를 마치고 이후 4박5일간의 산행과 8시간의 정상 도전 사투 끝에 무사히 정상을 정복하였다. 등반동호회가 정복한 킬리만자로는 동아프리카 북부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 해발 5천8백95m의 험준한 산으로 정상부근에는 분화구가 있고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세계 최고봉중의 하나이다.



대구건축사회 등반부

건설기술인력신고, 14만명 넘어

한국건설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건설기술인들의 경력신고가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금까지 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는 기술계기술자 10만1천명 등 모두 14만1천3백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공분야 기술계 기술자는 기술사 7천9백44명을 비롯, 기사1급 5만8천8백58명, 기사2급 3만4천5백97명 등 모두 10만1천7백59명이며 기능직기술인은 1천4백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력·경력자들의 주요 등록분야는 토목과 건축분야로 각각

1만7천2백26명과 1만3천8백 96명이다. 또한 기계 4천5백81명, 국토개발 1천3백7명, 건설안전 4백84명 순이다. 한편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고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우리 협회에 신고된 경력신고자 수는 이보다 늦은 지난 8월 말 현재 건축사가 3천8백92명, 학경력자 8천6백58명, 기능계 2천6십명, 기타 5백85명이며 기술계(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타)도 8천6백94명이 신고를 마쳐 전체 신고접수자 수는 총 2만3천8백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협회에 신고하는 학·

경력소지자의 신고는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건설교통부, 설계심의제도 개선

던키발주(설계시공 동시발주)방식에 따른 프로젝트일 경우 이에 따른 실시설계 심의는 지금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해왔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며 이와 함께 심의대상 공사도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조기집행을 지원하고 설계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설계심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설계심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6일 관계자회의를 갖고 심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중앙심의위원회에 상근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6개월에 한번씩 실시토록하는 등 심의내용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설계심의나 입찰방법심의는 위원장을 비롯 모두 2백 96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공항, 터널 등 28개 분야를 맡아 해오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오던 해당공사의 심의를 던키로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 전체 심의건수 3백 28건중 던키가 75건이었고 일반이 2백 19건 대안입찰 9건, 신기술 및 제기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6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제6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 전시회가 '건축가... 미래의 감지자'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베니스 차르디니공원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한국관 전람을 계기로 올해 처음 이탈리아 정부의 초대를 받아 참가하게 되며, 현재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이 커미셔너로 선임돼 참가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번 전시회에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공모 작품등 11점과 명동성당 설계공모작품 6점 등 총 17점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건축전은 '건축가... 미래의 감자'라는 주제로 한스홀라인이 큐레이터를 맡은 주제전(이탈리아관)과 각국의 신인건축가를 초청해 작품을 전시하는 Emerging Voice전, 베니스건축대학의 마리노 폴린 총장이 주관하는 이탈리아국내전,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자국관전 등 총 4개 전시관전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건축전 기간동안의 전시회 참가와 이태리지역 건축기행의 프로그램은 한국건축가협회가 기획·진행한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744-8050

■ (주)삼우설계, 창립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주)삼우설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0일 건축계 및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유럽 현대건축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의 현대건축 흐름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건축계의 나아갈 길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프랑스의 Jean Nouvel, 스위스의 Mario Botta, 네덜란드의 Rem Koolhaas, 영국의 Terry Farrell 등 4명의 초청강사 강연이 열린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들 유럽의 초청강사 외에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의 발제강연과 조주환(삼우설계)씨의 사회로 심우갑(서울대), 임창복(성균관대)교수와 박승홍(정립건축)씨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 (주)삼우설계/3400-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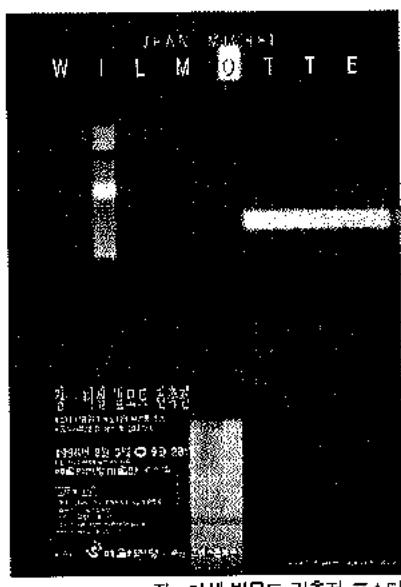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원장 유호민)과 스페인 가우디대학원이 공동주최

하는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서울시내 보도블럭, 베스 디자인 개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설계와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41점을 비롯해 모조품, 사진, 스케치 등 총 73점이 전시된다. 가우디의 작품을 보전·발굴하고 가우디의 작품세계를 연구중인 가우디 대학측은 그동안 세계 74개국에서 이들 작품을 순회 전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우디의 건축양식은 로마 고전건축과 고딕의 요소들을 혼합한 아르누보양식을 유일하게 건축물에 도입하여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가우디 건축의 복잡한 기하학은 건축구조와 홀륭하게 일치되어 오벽면을 포함한 전체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며, 한편에서는 당시 아르누보의 유행을 초월하여 인간의 근원적 '불안'을 건축으로 표현하였다 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그리스극장으로 구성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엘공원의 벤치', 성가족 교회(Holy Family Temple, 1883-1926), 아스트로가사교관 등이 있다. 문의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홍보실/708-2027~9

■ 「장-미셸 빌모트 건축전」



「장-미셸 빌모트 건축전」이 예술의전당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 예술의 전당

과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리며, 개막 당일인 9월 3일 오후 5시에는 작가인 장-申博모트의 「건축에 있어서 디테일적인 요소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개최됐다.

문의 : 예술의 전당/580-1114

■ 경기대 건축대학원·건축학과, 세미나 및 특강 마련

경기대 건축대학원(GSAK)과 건축과(SAK)에서는 각각 설계수업과 정보수렴을 위한 스페셜 세미나와 스페셜 강좌를 마련한다. 9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경기대서울캠퍼스 지하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스페셜 세미나는 김준성씨가 디렉터를 맡아 영화감독 홍파씨의 한국영화 비평, 이상규 한양대교수의 전통음악과 미래음악, 화가 박권수씨의 신파라다임의 영향 등 건축 분야외에도 타분야의 전문기를 초빙하여 보다 폭넓은 사고 및 정보를 수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기대 수원캠퍼스 건축과 시청각실과 서울캠퍼스지하세미나실에서 열릴 스페셜 강좌에서도 건축가 이일훈씨의 채나눔 작업, 김창화 교수의 그리스·로마의 극장건축, 언론인 윤호미씨의 디자인과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마련했다. 일정은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열리며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경기대서울캠퍼스/390-5245

■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공청회」 열려

최근 일본과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난 찾은 지진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내실있는 내진설계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비콘 엔지니어링(주)의 주관으로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성자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1992년 도로교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기준이 외국에 비해 미비

한 형편이며 특히 일본 고베지진의 발생으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분야(고속 전철, 터널 등)에 대하여도 내진설계의 내 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오후 2시 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 개회식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개회사,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의 축사 및 고려대 유 칠수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대본엔지니어링 유건신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명석 박사, 유비콘엔지니어링(주) 전형식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3부에서는 고려대 유철수교수가 좌장을 맡은 분야별(지진, 토목, 건축, 산업연구단체, 정부) 토론 전문가 15명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건축가협회, 「제1회 건축사진 전시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에서는 건축물을 이해하는 또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리고 일반인이 건축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회 건축사진전을 개최한다. 출품자격은 건축가나 건축관련인으로서 작품의 내용은 국내외 건축물을 소재로 한 사진(미발표작)이면 된다. 또 작품규격은 11인치×14인치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인화방식에 따라 컬러 슬라이드와 컬러네가티브부문으로 구분했다. 금상1점, 은상2점, 동상 3점의 입선작 다수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건축대전 수상작 전시와 병행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744-8050

인천시, 건축물 심의절차 대폭 완화

인천광역시는 종전 건축허가전 11층 또는 연면적 5천평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21층 또는 연면적 3만 3천평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일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글자로 한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개정안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용 여부의 결정절차와 도시계획 등 불필요한 사유로 인해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된 경우의 건축허가 기준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했다. 특히 시는 이 개정안에 있어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과 일반·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현행 3백~1천%에서 1백50~3백%로 하향조정, 주택단지의 과밀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회 Architecture as a Reality—라스메니나스展」 열려

대구 지역의 중견건축가 서보광(동성건축연구소)씨의 건축전시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22일까지 대구(9월 2일~9월 10일, 대구은행 본점)와 서울(9월 13일~9월 22일, 경인미술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 展'이라는 주제로 현실비평연구소(대표 조원섭)가 주최하며 제1부-중정공간을 수용하는 폐쇄성의 구축, 제2부-퍼브릭 : 순환성의 방위총력, 제3부-아마디스의 전설 '매스의 이중주'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현실비평연구소측은 전시회의 대상작가를 작가 자신이 바탕을 두고 있는 한정된 구역을 반영하고 봉사하는데 목적을 둔 건축가로 정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에서 개업한 이래 창립 20주년을 맞는 동성건축연구소의 서보광씨가 이러한 취지와 부합되어 대상작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9월 2일 성악가 백용진씨의 오프닝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비평파, 비디오 상영, 설명회 등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게 된다.

문의 : 서울-현실비평연구소/

304-6539,

대구-동성건축연구소/

053) 754-2301

지역 전시회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시험 포함) 시험장소 안내

구 분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시험
1. 시험일자	○ 96. 9. 22(일)			○ 96. 9. 22(일)
2. 시험시간	○건축법구 : 10:00~10:50(50분) ○건축설계 : 12:00~18:00(360분)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 10:00~12:00(120분)
3. 시험장소	응시번호 00002~02548 02554~04439 04440~06000 특별전형	시험장소 서울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광진구 광장동 광남중학교	소 재 지 서초구 서초동 광진구 광장동	교 통 안내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12분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도보 15분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도보 7분 •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도보 15분
4.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소인 학교에 차량 출입이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 학교 이외에는 수험이 불가하니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반드시 지정학교, 지정좌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합격예정자 자동응답서비스 안내 : 96. 10. 31~11. 3(4일간) 【700-1925】 , 【700-4123(기판코드 : 54)】 (단, 【700-4123】 전화서비스는 정보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